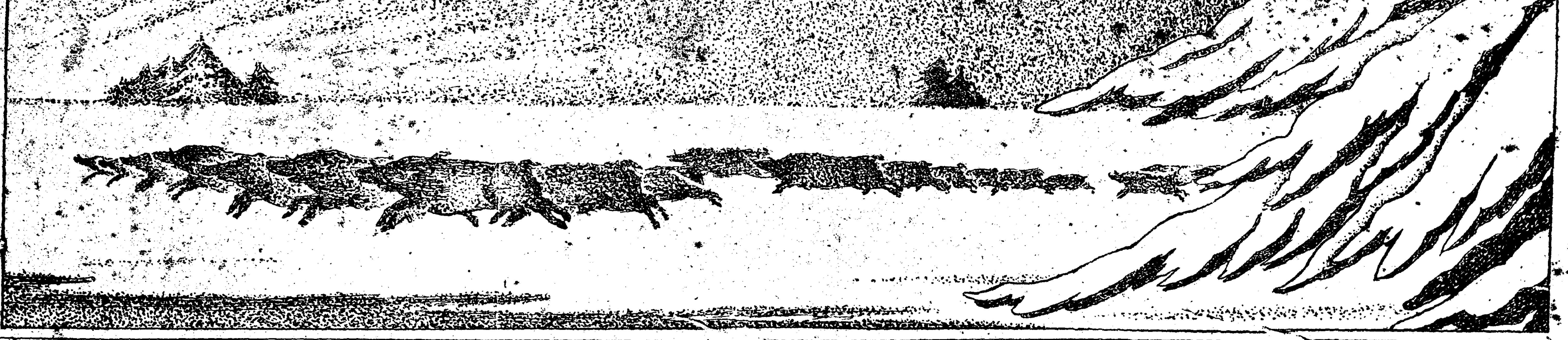
朝鮮日報



# 社說

## 年頭辭

一

地球의 公轉은 週期的이다. 圓周의 어느 一點을 指目해 보아도 이 點이 첫 點이라고 할데는 업다. 그러기때문으로 古來로 曆者를 만들때에 子月, 丑月, 寅月, 어느것으로도 歲首를 만들수가 잇섯던것이다. 그러니까, 歲首는 自然的이라기 보다도 人爲的으로 만든것이다. 그러나 一旦 定하고나서는 사람은 다시 그 定한 制度의 支配를 밧는것이다. 예로부터 歲首를 歲首라하야 마음을 새로히하며, 計畫을 새로히하며, 方針을 새로히 하는것은 그 支配를 밧는 標다. 例에 따라서 이제 새로 한해를 마지하는 첫 아츰에 잇서서 社會的으로, 個人的으로, 從來 거러오던 길을 再認識하야, 고칠것을 고치며, 더할것을 더하야 百年大計를 세우기로 하자.

二

첫재 社會的으로 보와 朝鮮사람으로 再認識을 要할 點은 우리는 檀君以來로 長久한 歷史를 가지면서도 山을 모르고, 바다를 모르고, 하늘을 모르고, 오직 하나 平野. 잇는줄만 알고 지내온 民族이라는 點이다. 造物主는 우리에게 三面環海의 特殊한 恩典을 베프럿것만 五大洋은 朝鮮사람의 形影을 볼수가 업섯다. 錦繡 그대로의 華麗한 大山巨嶽을 豐富히 주엇것만 山은 朝鮮사람의 足跡을 드듸게보앗다. 水空一色의 明朗한 하늘을 주엇것만 하늘은 朝鮮사람의 鳥人을 몃사람이나 보앗느냐. 總面積 一萬四千三百十二方里의 僅僅 四分之一에 該當하는 原野만이 朝鮮사람의 活動하던 唯一한 舞臺이엇다. 이러케 생각하면 世界 各國이 다 朝鮮사람가튼 歷史바게 더 못 가지엇드라면, 航空母艦이 問題될 理업고, 超弩級艦이 問題될 理가 업섯슬것이다. 따라서 新年, 卽, 오늘아츰부터 始作하는 一九三五年의 世界的危機도 잇슬수가 업섯슬것이다. 이러케 생각하면 朝鮮사람의 處地가 얼마나 可憐 하냐.

三

여기서 우리는 新年劈頭에 잇서서의 社會百年大計의 첫소리로, 「산으로 가자」, 「바다로 가자」, 「空中으로 날자」의 三大標語를 提唱한다. 文明은 다른것이 아니라, 自然을 征服할수잇는 極限까지 征服하며, 利用할수잇는 極限까지 利用하는것이다. 그러나 가지안코는 利用할수가 업는것이다. 그러기때문으로 이 三大標語가 朝鮮사람의 손과 발에 依하야 實現되는 날을 기다려서야 우리도 비로소 文明을 말할수잇는 班列에 參與하며, 그때에 가서야 비로소 우리도 남이 危機를 말할때에 가티 말할수 잇는 資格을 가질것이다.

四

다음 社會는 그構成멤버인 個人을 經으로 하며, 緯로 하는것이다. 그러므로 經과 緯의 質이 나쁘면, 社會自體의 向上發展을 企望할수가 업다. 이런 意味에 잇서서 三大標語를 標榜하고서의 社會改造는 몬저, 그멤버인 個人의 改造로부터 始作해야된다고 하는것이다. 그러면 朝鮮사람을 個人으로 보아 고칠點은 무엇 무엇이냐. 첫재 冒險進取性을 가지라, 朝鮮사람은 懶弱하고 卑怯한 民族이라는 評을 듯는다. 우리가 先祖代代로 今日까지 山을 모르고, 바다를 모르고, 하늘을 모르고, 지내 온것은 主로 그原因이 우리의 懶弱卑怯性에 잇다.

五

둘재로 積極的競爭心을 가지라, 朝鮮史를 들고 보면 朝鮮사람처럼 競爭心이 猛烈한 民族은 드물것이라는 暗示를 바들수가 잇다. 그러나 그 競爭心은 積極이 아니요, 消極이엇기 때문에 그競爭心이 史蹟으로 나타난바는 흔히, 猜忌, 嫉妬, 謀陷, 讒謗, 黨爭, 骨肉相食으로 나타낫던것이다. 그러나 이래가지고는 個人으로도 社會로도, 進展向上을 圖할수가 업고, 自然自滅할수밧게 업는것이다. 셋재로 모임의 힘의 偉大함을 알라, 從來 朝鮮사람의 活動은 一將拙匹한 平原曠野에 局限되엇기 때문으로 우리는 모임의 힘의 偉大함을 모르고 왓다. 그러나 山으로, 바다로, 하늘로의 危險한 길을 가라면 혼자의 힘으로는 안될것을알것이다.

六

넷재로 敎條바의 敎條, 又는 利害를 超越한 無形한 利害에 눈을 뜨라. 山으로 바다로 하늘로의 遠大한 計畫을 세워가지고 가려는데는 目前의 小利害와 近眼的名譽心을 가지고는 到底히 그理想을 達할수가 업을 일이다. 다섯재로 주때를 굿게 가져라. 羅針盤업시 動하는 배가 헛일을하기가 쉬운것과 가치 사람도 亦是 주때가 업시 活動하면, 一生을 두고 活動해도 그活動은 徒勞에 歸하는수가 만타. 주때라는 意味는 네것 文字로 말하면 道 或은 立志에 該當할것이오, 只今말로하면 主義에 該當할것이다. 何如間, 한번주때를 세웟스면 그後부터는 利害를 度外視하고 冒險進就性 잇게, 積極的으로 꾸준히 그주때에 마추어 나가는 多數의 個人을 所有하고서야 그社會는 비로소 向上할것이다.

## 一九三五年

徐 椿

人類社會에 [illegible]잇은後, 今日까지 新年劈頭부터 어쩌는 危機의 해라고 牌를 부친 해는 업섯다. 그런데 新年, 一九三五年은 數年前부터 危機의 第一年이라는 牌를 부친 해다. 그 理由를 說明하는것이 이 拙稿의 目的이다. 이 問題에 對해서 첫재로 注意할것은 이해를 비록 危機의 해라고 假定할지라도 그 危機는 主로 日本의 立場으로 보아 危機라는 一點이다. 勿論 日本은 英米와 아울러 三大强國의 하나로서 世界全體에 對하야, 主要한 役割을 다하고 잇슴뿐만 아니라, 一九三五年이 日本에 對하야 危機가되는데는, 어느 强國이 日本에 對하야 敵對行爲를 取함을 要할것이니까 主로 日本의 立場으로 보아서의 危機는 同時에 世界全體로 보아서의 危機임을 免치못할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미치는 影響이 世界的이라는 點으로보아서 하는말이요, 다만直接關係되는點으로만 보면 一九三五年의危機는 主로日本의 危機요 世界的危機는 아니다. 『主로』라는말에 依하야 筆者는 一九三五年의 危機가온데는 다른나라의 危機도若干, 包含되엿다는뜻을 表現하고저 하는것이다. 고것은 무엇이냐? 하면 新春一月十三日에 行할 잘-의 人民投票가튼것을 指目해서 하는 말이다.

一九三五年이 主로 日本에 對한 危機라는 論據는어디잇느냐 하면, (一)華府條約廢棄 (二)國際聯盟脫退의 效力發生, (三)海軍軍縮問題等等에 잇다. 華府條約의 廢棄는 그것이 單獨으로 意味를 가진것이 아니라, 華府倫敦兩條約에 대신할 新海軍條約의 締結에 잇서서 日本의 主張을 有利히 展開식히려는 基礎工作이라는 點으로 보아 意味를 가진것이다. 다시 한번 이것을 裏面으로도 말하면 日本은 日本의 主張에 맛는 新海軍條約을 締結할수 업는 날이면 차라리 無條約狀態로 도라갈지언정 決코 比率主義에 依한華府倫敦兩條約은 此를 存[illegible]시킬수 업다는 굿은 決心을 보이기 爲하야, 華府條約을 廢棄한것이다. 그런데 廢棄通告를 한것은 昨年末, 一九三四年十二月二十九日에 하엿스나, 이 通告를 밧고나서의 列國의 態度如何는 一九三五年에 와서야 判明되도록 되여 잇다. 勿論, 이 問題는 新年中年안으로 開催될 海軍軍縮會議와 關聯이 되는問題이나 大體로 보아 깟닥, 잘못하면 列國이 條約廢棄의 責任을 日本에 轉嫁식힐 口實이 될 點도 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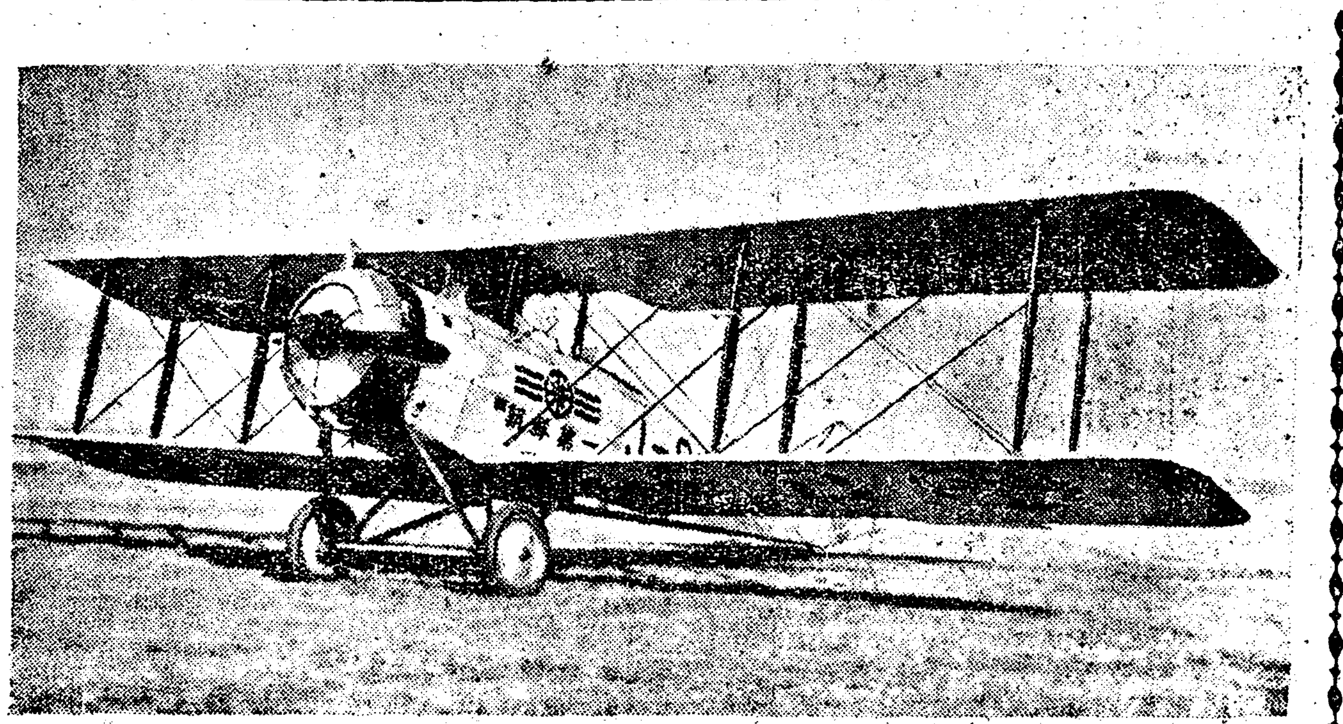
다음 日本은 一九三三年(昭和八年)三月廿七日에 國際聯盟으로부터 脫退를 通告햇다. 規約第一條第三項의 規定에 依하야 滿二年이 經過한 一九三五年三月二十七日은 日本의 聯盟脫退의 效力發生日이다. 卽, 이날부터 日本은 完全히 國際聯盟으로부터 脫退하야 聯盟의 一員으로서의 一切의 義務를 免脫하는 同時에, 一切의 權利를 喪失한다. 그런데 聯盟脫退의 效力發生日부터 한가지 問題가 되는것은 南洋委任統治問題다. 南洋委任統治諸島는 聯盟規約第二十二條에 依하야 形式上, 國際聯盟으로부터 委任을 바더 日本이 統治하는 形式으로 되어잇다. 그러나事實에잇어서는 世界大戰後, 獨逸의 植民地를 戰勝한 諸國이 分割領有하는데 잇어서 日本은 自己의 分으로 只今말하는 問題의 諸島를 마터서 統治하게 된것이다. 何如間, 聯盟脫退後에 잇어서의 問題의 諸島의 歸屬如何에 對해서는國際公法上, 諸說이 紛紛하야 歸一하는바를 모른다. 國際聯盟에 歸屬할것이라는 說도 잇고, 戰勝五强國(主要同盟及聯合國=日英米佛伊)의 共有에 歸屬할것이라는 說도잇고, 原領有國獨逸에 歸屬할것이라는 說도잇고, 또는 委任統治地住民自體에 歸屬할것이라는 說도잇다. 그러나 聯盟脫退後에도 如前히 日本이 繼續, 統治할것이라는 論據도 充分히 만타. 그러나 最後의 決定을 짓는것은 學說이 아니요, 實力이다. 日本의 立場으로 보면 [illegible]大陸의方面의 生命線이 [illegible]가 된다면 日本은 文字그대로의 一焦土外交도 不辭할것이다. 그러나 日本의 國民總意가 이러한데도 不拘하고, 어떤 나라가 要議를 强硬히 提唱한다면 이것은 日本의 危機인 同時에 要議提唱國의 危機요, 同時에 世界全體의 危機가 될수밧게 업다.

華府條約第二十三條第二項에 依하면 一國의 廢棄通告가 效力을 發生한날부터 一年內에 締約國全部는 會議를 開催한다고 되어잇는데, 日本의 廢棄通告는 昨年十二月二十九日에 效力을 發生햇스니까 이 點으로보아도, 海軍會議는, 今年十二月二十九日以內로잇서야 되고, 또, 倫敦條約第二十三條의 規定으로 보아도 今年內로 海軍會議를 開催하도록 되어잇다. 昨年末에 잇서서의 倫敦豫備會商은 三五年會議의 前提이엇던것이다. 勿論, 三五年의 海軍會議의 目的이 華府倫敦兩條約에 대신할 新海軍條約을 締結하자는데 잇는것은 勿論이다. 그러나 이新海軍條約에 依하야 圓滿한 成立이 甚히 困難하게 되여잇다. 日英米三國間의 主張對峙에 잇서서도 이미, 그對峙가 明瞭히 나타난바이어니와, 英國의 巡洋艦多數主義, 米國의 大艦巨砲主義, 日本의 軍備平等主義의 三者는 現下의 形勢로는 一致點을 發見하기가 困難할듯이 보인다. 英國은 世界에 뻣처 잇는 多數의 領地와 貿易航路를 가진關係로 그의 警備及保護를 爲하야 多數의巡洋艦을 要求하고잇다. 米國은 그의極東政策인 中國의領土保全과 門戶開放主義를 擁護하기爲하야 一旦, 有事時에는中國에까가운 西太平洋上에서 假想敵國과 一戰을決할것을 想定하고, 米國海軍論者의 所謂遼洋作戰主義에依하야 大艦巨砲主義를 가지게되는同時에, 日本에對해서는 어듸까지던지 現行華府倫敦兩條約의 比率만치의 優勢海軍을 가지려는것이다. 英米兩國의 이러한 海軍政策에 對하야 日本은 一、差等比率의 [illegible] 누리가 잇스니까, 將來를 豫言할수는 업지마는, 今日의 形勢로 보면, 서로 接近되는 三國의 主張은 아직가다서는 到底히 一致點을 發見하기가 困難할듯이 보인다. 萬若 一致點을 發見치못하는날이면 華府倫敦의 兩條約은 一九三六年末을限度로 廢棄되고, 主要列國은無條約狀態로 도라갈수밧게 업슬것이다. 無條約狀態로 드러간 以後에 이러날 狀態는 무엇이냐고하면 一、列國의 海軍擴張競爭이오, 二、假想敵에 對한 對策으로서의 合從連衡이다. 그런데 英米의 海軍擴張에 對한 日本의 對策은 大別하야 强點으로 보이는 點은 셋이잇스니 一은武器로 싸우는것보다 精神으로 싸우자 二、비싼主力艦의 來襲을 갑헐한 潛水艦으로 깨트리자 三、軍備比較上, 一國의 物及人의 支配力은 一國의 物及人의 支配力보다 크다 이三者가 即 그것이다.

他方, 合從連衡에 잇서서는 一九三五年의 海軍會議가 決裂되면 日本의 立場으로는 英米間의 海軍協定도 무섭고, 米國이 또한 蘇聯과 親近하고, 中國을 이끌려서 日本을 包圍하려는 情勢를 지우랴한다는것도 무섭다. 强한者는 내親類라는것을 모르고 하는 蘇聯邦, 遠交近攻에 事大主義를 兼해 信奉하는 中國의 兩國이 情勢如何에 잇서서는 米國의 麾下로 몰려들는지 모른다. 危機의 焦點은 여기잇다.

다시 視線을 歐羅巴로 돌리어 보면 거기도 亦是, 危機는 잇다. 첫재 今年一月十三日에 實施될 잘-의 人民投票問題는 獨佛을中心으로 한 歐羅巴는 論, 問題의 趨勢如何에 잇어서 [illegible] 잘-은 元來 [illegible] 大戰後 今日까지는 國際聯盟의 管理下에 잇섯으나, 今年一月十三日의 人民投票의 結果에 依하야 一, 獨逸에 復歸하느냐 二, 佛蘭西에 歸屬하느냐 三, 國際聯盟의 管理대로 그냥잇느냐를 決定하게 되엿다. 잘-은 鐵과 石炭을 生産하는 主되는 工業地帶라, 經濟上으로 보아도 兩國이 서로 다투는 地域이지마는, 住民의 大多數는 獨逸語를 常用하는 獨逸民族이다. 그럼으로 [illegible] 모든 經濟問題에 잇어서, 다 佛國에 對하야 讓步할 [illegible]가 잇으나 잘-의 歸屬問題에 對해서만은 到底히 讓步할수가업다고 햇다. 또한 이 投票의 結果가 獨逸에 不利하게 되면 이것은 나치쓰 따라서 히틀러의 體面에도 關係가되는것이니까, 獨逸은 잇는힘을 다하야 必勝之計를 取할것이오, 또 萬若 投票의 結果, 獨逸에 [illegible]하게되다고할지라도, 獨逸이 規定의 時價金을 못낸다고하면 [illegible]西는 十年前에 『루-르』을占領하드시 또 잘-을 占領하게될는지 모른다. 또한 이問題는 聯盟에서 選任한 一統治委員會의 投票干涉問題와도 關聯하야 複雜한 여러가지 難問題를 包藏한問題라고 할것이다. 둘재로는 昨年一年間을 두고 歐羅巴에 이러낫던 여러가지 重大問題中에는 그解決을今年으로 넘긴것이 만타. 따라서 이點으로 보아서도 亦是, 歐洲는危機에 잇다고할수가잇다.

以上을보면 알바와가치 危機의 地域的中心은 極東과 歐洲의 두군데에 잇다. 그러나 그所謂危機는 今年內로 곳 멧나라間에 戰爭이 爆發한다는것을 意味하는것이 아니라, 國與國間의 反目嫉視, 猜疑暗鬪의 激化, 合從連衡의 頻繁, 軍備擴張의 劇烈, 서, 第二次世界大戰을 誘發할 危險을 增加한다는 意味의 危機를 가르친다는말이다.



## 本社飛行機勇姿

이제本社機의 構造와 性能用途等을紹介하면 如左하다.
▲살무손式二ㅅ一型二百三十馬力▲複葉飛行機 一人乘▲時速百五十粁, 六時間航續力이有함▲用途新聞及原稿의 輸送, 寫眞撮影, 通信員의 出動▲安定性 八倍▲特色 이飛行機는 中型偵察機로 不時着에 便하고 高等飛行에 便하다
(寫眞은 本社機의勇姿)

## 通信戰線新武器

朝鮮日報가 朝鮮에서 처음으로 報道戰線에 飛行機를 利用하것은 昨夏三南水災時의 일로서 讀者의記憶에 아즉도 새로운事實일것이다. 그러나 本社로서는, 內外情勢의 緊迫과 뉴-스戰線의 多忙을 豫想할수잇는 新年을 마지함에際하야 어느때든지 自由로出動할수잇고 어느곳에든지 任意로 活躍할수잇는 本社常備飛行機를 購入하기로 決定하고 이미 數朔前부터 汝矣島朝鮮飛行學校에서 愼鏞頊飛行士의 監督下에 機體의 造成을急히하든바 數日前에 完成되얏슴으로, 今日新年元朝를期하야 滿天下讀者의압헤 이劃時期的喜報를 發表하는바이다.

本社는 現在 社屋을 新營中이오 諸般設備도 日新又日新의勢로 進行됨은 讀者 이미 高諒하는 事實이어니와 이번通信用飛行機의 購入은物質上으로 巨大한 犧牲이잇은 多言을費코자 안는바이오 實로 朝鮮新聞史上에 一大『에폭』을지는 일이라 할것이다.


謹賀新年
昭和十年一月一日
株式會社朝鮮日報社
朝鮮日報社員一同
朝鮮日報支分局一同

[illegible]新[illegible]

崔昌學

尹致昊

金季洙

韓相龍

朴榮喆

京城敦義洞
柳功茂

京城府黃金町一丁目一九二
高級タクシ
ライオン自動車商會
電話本局二二〇七番

京城南大門通一丁目九八番地
高級タクシ
亞細亞自動車部
電話光化門二五一七 二五一五番

建築設計工事監督
朴吉龍建築事務所
京城寶[illegible]洞一一九七
電話光一五六四番

180492

# 米、條約廢棄에對抗 極東問題上程乎

## 絕對容認못할일이라고 外務省當局警戒不怠

【電通東京電話】日本의華府條約廢棄로써 米國은새로운事態가發生되것이라고 看做하고잇슴으로此에對抗하는意味에서 明春再開할海軍豫備會談에 極東의政治問題를提議할는지도알수업고 現在過般米國代表데비스氏가 日本의松平代表에 對하야 非公式으로『日本側이 華府海軍條約을 廢棄通告를 하면 米國은 此에關聯하야 極東政治問題를 協議치안흐면안된다』는旨를말한 事實도잇슴으로 外務當局은 이點에關하야米國의 態度를 警戒하고잇다그리고 米國이極東問題를提議하려는 當面理由는 華府海軍條約은 大正十二年華府會議에서 九個國條約과同時調印된것으로 따라此의兩者는關聯性을가젓고잇는것이다라는見解를가지고잇는데 이點에對하야日本外務當局은 米國의見解를一蹴하고海軍豫備會談에 極東問題를提議할理由는秋毫도업다하고잇다

一、華府海軍條約과同國條約과는調印者도 다르고 또華府會議의時間的經過로보드라도 兩者는關聯된것이안이다

一、日本의 通告는새로운 軍縮協定에 到達하려는 目的에서나온것으로 極東政治問題를關聯식히려는것은 米國이 日本을 猜疑하고잇는데 不外한다

二、日本은 極東에잇서서何等九個國條約에 違反된것이업슬뿐더러 九個國條約을 尊重하고中國의門戶解放을 熱心支持하고잇다는것은 從來屢屢聲明하여왓슴으로 米國政府도이에理解할터이다

一、現存九個國條約을補强하고또는 此를再檢討하려하는 提案에對하여日本은欣然參加할것이나 中國問題를歐米諸國과論議하는것은 日本으로서는 絕對承認할수업다

# 條約廢棄는遺憾 米政府聲明發表

## 同時에軍縮方針宣明

米國務長官 코델·헐氏

【電通華府二十九日發】米國國務長官코델·헐氏는 齋藤駐米大使로부터 日本의華府條約廢棄通告를接受한後 米國政府의 軍縮方針을宣明한公式聲明書를 中外에發表하엿다 同聲明에잇서 헐長官은于先日本으로부터 廢棄通告를接受하엿다는旨를 宣言한後 各國은安全保障의均等權을 갓고잇스나 防禦的必要의相違를無視하고 兵力量의均等을 主張하는것은 平和를促進하는 所以가안이다 現存條約이 調印國間에 安全을 保障하고잇슴에도 不拘하고日本이此를廢棄하게되것은 遺憾이다 라고述하고 그러나條約이 失效되기까지는 二個年의 歲月이 잇슴으로這間에 相互滿足한 協定에到達할수잇는 希望이보히면 何時에나 米國은 交涉에應할 意思가잇다 고말하고 最後에『他國도 平和建設을爲하야 努力하여달나』고 結論하엿다 聲明書要旨는左와如하다

米國政府는 今日(卄九日)華府條約廢棄에 關한日本政府의通告를 接受하엿다 日本의이通告는現存諸條約이 調印國間의權利와 共通的利益을 保護하여오늘을信하는我等에對하여全然遺憾이다 今日까지 締結된諸條約中調印國의 主權을 侵害치안코 國家의 主權에對하여는 尊敬을拂하야 作成된것이다 今日其一部에 廢棄通告가實現되것은遺憾이다 그러나日本의廢棄通告에依하야 同條約이 通告日부터失效되지안코 條約의各規定은 一九三六年까지 有効하다 따라關係諸國에는海軍軍縮諸條約의 廢棄에依하야 齎來될事態를 考慮하기때문에 今後二個年의期間이殘存되여잇고 米國政府는關係國이相互間滿足한結論에到達할수잇는見解가 보일境遇에는何時에나欣然交涉에 參加할意思를 갓고잇다

# 宇垣總督年頭辭

予는朝鮮에서 新春을 맛기벌서四回가되나 日本은依然히重大時局의域을脫出치못하엿다 即此를國際情勢에비추어보건대 滿洲事變勃發以後 國際政局의推移는 遂者日本으로하여금 國際聯盟을 離脫케하엿고 또이제海軍軍備制限豫備會商에臨하야 世界平和에 對한確乎不動의方針으로 華府條約廢棄를通告하게되엿다 最近世界經濟界大勢는列國이相競하야 經濟뿔럭의對立、關稅引上、輸入制限等에 依하야 日本貿易의進展前途에 幾多의障碍를投하고잇다。 日印會商은어떠케協定을보와스나 日英協業民間協議會는 決裂되앗고 蘭印會商의前程은 아즉도樂觀不許의 狀態에잇다。 도리켜國內問題를보건대 農村의窮迫에 加하야 昨年全國各地의 風水、冷旱等의 稀有의災害로凶作을招來하엿고 社會思想은多少安定되엿스나 過渡不安的要素가一部에潛在하여잇다 上述한바와가티 內外情勢가 偸安을不許함으로 今後國民이크게努力하야 이難關을突破하여야할것이다 玆에乙亥新春을 마지함에 際하야 旣往의過程을 回顧檢討하야 光輝잇는將來를 展望하고 一層奮勵努力하기를 바라다

# 滿國開發의根幹 商租權大綱成立

【電通新京發】農業移民、企業經營等 日本人滿洲發展開發의根幹을이루는 商租權問題는 昨年來日本側齋藤良衛博士以下 滿洲國側의 法制局及民政部土地局으로부터 銳意研究中이든바 그後그大綱의決定을 보앗스니 即右商租權의大綱은

一、日本人은 全滿洲國領土內如何한地方에잇서서든지 土地를商租할수잇슴

二、商租期限은 三十個年으로하고 期限經過後는更新할수잇슴

三、商租의目的으로서 認定되는土地는 自由企業、許可企業、特許企業、公益上必要잇는土地宅地等一切로함

四、舊政權時代의것은 그權利明確한것에限하야 認定함

이라는等이다 滿洲國建國精神인門戶開放 機會均等의主旨에依한것으로 거의所有權과相等한것으로되야다 그런데그手續法으로되는 暫行商租權登記法이 六月五日國務院會議에上程되야 日本人에對한 商租辦法이講究되기로서되앗는데 그內容은如左하다

一、日本人의 土地商租는 地主와商租者로부터 商租契約書類를가저 各縣長을거치어 各省政府에提出하야 登記함

二、이境遇商租者로부터 商租額百分之五의契稅를徵收함

三、不正不當한 商租契約은 當該機關에잇서 極力取締하기로함

그리고 右商租辦法은 將來締結될 日滿通商條約滿洲國土地法의 基準이될것인바 그것을觀컨댄 舊政權時代에締結되앗든旣得權益二十一個條約을 確認하는同時 다시商租範圍를 擴大시킨것이라고한다

# 諒解成立에滿足 中國代表殷同氏談

【北平十四日發聯合】通郵問題에 關하야 十二月十四日最後會議를終了한中國代表殷同氏는會議會場인北平飯店에서左와如히말하엿다 幾次나決裂되려하엿스나 겨우成立되여 玆에安心하게되엿다 相互諒解를 本旨로成立된것임으로特別히말할것은업다 無論滿足하고잇다 二個月이나걸렷스나 非常히 석고러운 問題임으로 그리簡單히 解決되리라고는會議初부터 생각지못하엿다 따라오래걸렷다고도 생각지안는다 通車問題와 比較하면어떠냐고? 그것은 汽車와달라複雜한通信問題이만큼 技術的으로는자못困難하엿다

## ◇今日本紙重要記事

| | | | |
|---|---|---|---|
| ◇本紙 | 第一面 | 一九三五年 | 徐椿 |
| ◇新年號其二 | 第一面 | 極東政局의趨移 | 咸尙勳 |
| ◇同上 | 同 | 不安恐怖下의歐洲 | 洪陽明 |
| ◇同上 | 第二面 | 軍縮會議의展望 | 駿卿生 |
| ◇同上 | 同 | 日本의政治動向 | 成仁基 |
| ◇同上 | 第三面 | 南京統治의前途 | 李元坤 |
| ◇同上 | 同 | 比律賓獨立問題 | 韓曾容 |
| ◇同上其三 | 第一、二、三面 | 移民狀況 | |
| ◇同上其四 | 第一面 | 印度國民運動 | 咸尙勳 |
| ◇同上 | 同 | 朝鮮史上의乙亥年 | 文一平 |
| ◇同上其五 | 第二、三面 | 戰爭과軍備 | ＨＫ生 |
| ◇同上 | 同 | 大京城의새얼골 | |
| ◇同上其六 | 第一面 | 世界經濟展望 | 徐椿 |
| ◇同上 | 同 | 빨라經濟의動向 | 金洸鎭 |
| ◇同上 | 同 | 日本經濟의前途 | 申泰翊 |
| ◇同上 | 第二面 | 今年度米穀問題 | 耕山學人 |
| ◇同上 | 同 | 朝鮮產業의轉換期 | 月山生 |
| ◇同上 | 第三面 | 金本制의將來 | 李順鐸 |
| ◇同上 | 同 | 小作問題와農地令 | 朴容來 |
| ◇同上其七 | 第一面 | 朝鮮文學의再建設 | 諸氏 |
| ◇同上 | 第二面 | 新春世界文壇 | 諸氏 |
| ◇同上其八 | 第二、三面 | 幼稚園保姆座談會 | |
| ◇同上其九 | 第一面 | 朝鮮古典文學檢討 | 諸氏 |
| ◇同上 | 第二、三面 | 同 | 一步學人 |
| ◇同上其十 | 第二、三面 | 光明의朝鮮 | |
| ◇同上其十一 | 第一面 | 農地令實施後 | |
| ◇同上 | 第四面 | 우리學校의자랑 | |
| ◇同上其十二 | 第一、二、三面 | 스포츠朝鮮의全貌 | |
| ◇同上其十三 | 第一面 | 世界統計研究 | 李甲燮 |
| ◇同上 | 第二、三面 | 朝鮮資源의全貌 | 洪起文 |
| ◇同上其十四 | 第一面 | 豚譜 | 申鼎言 |

# 遷延에遷延되는 通郵問題遂解決

## 滿洲國政府正式發表

【新京三十一日發聯合】滿洲國政府는通郵問題에關하야十二月卅一日午前十一時左와如히發表하엿다

오랫동안 懸案으로되여잇든滿中間의郵便業務關係에關한問題도今回에드듸여 關東軍側及上海郵政總局과의間에서 圓滿解決되여 一月×日부터 普通郵便 그리고 二月一日부터 爲替、小包取扱을實施키로되엿다 此에伴하야 滿洲國側에서는 中國向郵便料金을 다음과가치決定하얏다

| | |
|---|---|
| 普通書狀 | 四仙 |
| 葉書 | 二仙 |
| 速達 | 八仙 |
| 書類 | 八仙 |

小包料、爲替料는未定

## 通郵協定內容

【新京三十一日發聯合】昭和九年十一月二十三日關東軍代表藤原保明氏 同參與官儀峨誠也氏 同栗山兼次郎氏及中華民國上海郵務局代表高世武氏 同余翔麟氏同參與官殷同氏 李擇一氏는北平에會同하야通郵에『滿洲國承認問題에抵觸치안흘것』이라는原則下에서左와如히 協議하엿다 (以下關東軍을甲 中華民國을乙로함)

一、通郵는 雙方郵政機關間에서行하기로함 此에依하야 山海關及古北口에交換機關을設置함

二、通郵에使用할甲의切手面에는滿洲國及滿洲라는文字를表示치안흘것 右切手는書狀、葉書、書留、速達에使用하는것을 적드라도 四種以上調製하야此를貼用할것

三、日附印은 甲에關하여는可及的現用歐文의것을使用함

四、郵便料金은郵政廳各自의決定에依함

五、通郵事務에關한文書는西曆을使用하고可及的滿洲國이라는文字를表示치안흘것

六、通郵實施期日은 明年一月×日로함 但小包爲替等은 二月一日부터此를實施함

七、西比利亞經由郵便物은 舊例에依하야 處理할것

八、本協定의變更은 相互協定을經由함

# 天皇陛下御感患

【電通東京電話】湯淺宮相謹話 天皇陛下께압서 去二十八日부터 御感患이심으로 同日夕刻부터 側近者가 御假床을奏請하얏는바 이미二十九日正午以後는 御平熱로 御氣分도자못御良好하압신듯하나 아즉御靜養을願키爲하야 四方拜新年拜賀의御儀、新年宴會等의 御儀御中止를奏請하얏슴니다 歲旦祭元始祭도御代拜로써 行하시게될듯함니다 四日의政治始에對하야는 宮內大臣이今後의御模樣을拜한後 御裁定을仰할豫定임니다

## 新年儀式中의 御中止의分

【電通東京電話】天皇陛下께압서 別項과如히 御靜養하압시기爲하야 三十日 宮內省告示로서 左와如히御吩咐하압시엿다

昭和十年度新年儀式中 左記諸儀는 御形便上行하시지안흠을御吩咐하압섯다

昭和九年十二月三十日 宮內大臣 湯淺倉平

一月一日、四方拜晴의御膳
一月二日、晴의御膳拜賀
一月三日、晴의御膳
一月五日、新年宴會有位華族에 賜饌

## 御代拜를御吩咐

【電通東京電話】天皇陛下御感患으로御靜養하압시기때문에三十日 左와如히御代拜를御吩咐하압섯다

來一月一日歲旦祭御代拜侍從 小出英經
來一月三日元始祭御代拜掌典長 公爵 三條公輝

昭和九年十二月三十日 式部職

# 新年空界展望

朝鮮飛行學校長 一等飛行士 二等航空士 愼鏞頊

朝鮮日報社가 新聞通信用으로飛行機를 常備하게된것은 實로劃時期的大事業으로서 航空에關係를가진 吾人뿐아니라 누구나그英斷과 그快擧에 感嘆치아니할수업슬것이다 吾人은 이機會에 乙亥新年의航空界를 展望하야 所感의一端을述함도 決코無益한일은아닐가한다

距今三十二年前 米國시골寒村에서 自轉車商店을 하는『라이트』兄弟의 大衆으로 人類가처음으로 鳥類와가티 大空을飛行하엿다는 記錄이 傳播가되자陸地나 水上만을征服한 世界人類는놀나지안할수업섯다 勿論『라이트』의飛行機發明은 各自專門家의見解가 달너할것이다 假令藝術家는古詩와갓흔 白雲上에想을라고神仙이되는氣分 또는政治家나軍人은 國家的生存競爭에戰鬪를생각하엿슬것이요 或은商業家나運輸業者는 十日의程을一日에短縮한다든가 우리人類生活에適切한必要品으로녀겻든것이 果然急速度의發達로 歐洲戰爭의戰鬪力을보아 世界各國은國防의第一線에航空을注力하지아니할수업섯다爾後歐米各國은航空機生產飛行士養成을促進하엿다 그리고航空機種類에는 飛行船 爆擊機 偵察機 戰鬪機 飛行艇 水上飛行機 商業飛行機 旅客飛行機 郵便飛行機 여러가지를두엇고 軍用飛行機와 民間飛行機二種으로分別하엿다 大凡軍用飛行機는 軍部에多量의飛行機를藏置하기는他國의誤解 又는飛行機의 壽命關係로 民間飛行에常備로두고 國家有事時에動員식히는意味로 民間飛行을絕對 奬勵하게되엿다 航空機의 [illegible]은戰爭에는 商船을 改造[illegible] 僅僅히 巡洋艦으로 使[illegible]엿슬뿐아지만은 民間航空機 旅客機는 爆擊 偵察機로 [illegible]使機는 戰鬪機로 適用하는까닭이다 그다음에는 地球를縮少하는 長距離飛行無着陸滯空飛行이 競爭되야、米國『린드벅』大佐의大西洋無着陸飛行과『노루웨』이國學者『암센』氏의南北極探險飛行이 米國『한다』兄弟의 空中給油二十一日 滯空飛行 米國『보스트』、게티』兩氏의 七日間世界一週飛行 米國『방크롱』『한돈』 兩氏의 太平洋 無着陸橫斷飛行 瑞西『비칼』博士의一萬六千米成層圈飛行等 超人間的飛行에大成功하엿다

甲戌年의 世界民間航空界 統計를보면

◇飛行機數

| | |
|---|---|
| 米國 | 七、三四五機 |
| 佛國 | 一、五七三 |
| 獨逸 | 一、〇七〇 |
| 英國 | 九八一 |
| 日本 | 一六七 |

◇飛行士人員數

| | |
|---|---|
| 米國 | 一八、五九四人 |
| 獨逸 | 二、五〇〇 |
| 英國 | 二、七六六 |
| 佛國 | 一、一一〇 |
| 日本 | 四九六 |

◇公共民間飛行場數

| | |
|---|---|
| 米國 | 二、〇四五 |
| 英國 | 三九七 |
| 獨逸 | 二三一 |
| 佛國 | 二一〇 |
| 日本 | 一二 |

이러한 數字를보아 우리는日常生活에도 航空事業이얼마나긴關係를가진것을 짐작할수잇슬것이다

歐米各國은 自國航空網을堅實히結束한뒤에는 甲戌年부터極東으로進出하게되엿다

乙亥年航空界는 特히 中國을中心삼고 獨逸伯林을 起點하여中國香港까지 定期郵便飛行、米國의 南中國定期輸送飛行과 아라스카海軍航空隊、日本의 福岡臺北間旅客輸送飛行 南洋委任統治地定期飛行實現時期인것이다 東京大連間七時間短縮飛行、大阪每日新聞『大阪新京』間五時間高速度飛行、東京朝日新聞社空中[illegible]1쓰等이잇슬것이오 朝鮮日報社第一號機의 活躍을보게될것임으로 乙亥年의航空界는 一大壯觀을이룰것이다 (寫眞은愼飛行士)

## 八面鋒

◇여러분 過歲 安寧히 하시엿슴니까。

◇今年은 亥年이라하니 猪突的으로 進就하실決心을 가즈시엇슴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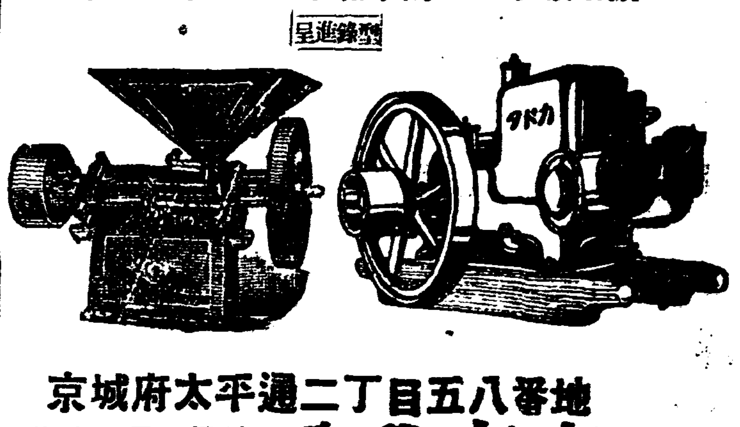
◇무엇보다도 勇氣가 必要합니다。돈보다도 智識보다도 健康보다도 機會보다도。

◇勇氣업는곳에 出發이업슬것이오 出發업는곳에 到達이업지안켓슴니까

◇元朝의 一年之計는『먼저勇氣를가지자』라는 一語으로부터始作합시다。

**今日本紙 六十面 그라비아畫報並入**

米國製エンゲルバルグ精米機 カドタ發動機




京城府太平通二丁目五八番地
會我商店
動力農具諸機械 直輸移出入商
電話本局長二一六八番
振替口座京城八九七番

京城書籍組合
大成書林 德興書林 博文書館 三文社 新舊書林 永昌書館 以文堂 太華書館 韓南書林 和光書林 活文社 滙東書館

京城府公平洞一一九
發明學會
理事長 李仁
專任理事 金容瓘
理事 朴吉龍
理事 玄得榮
理事 鄭寅寬
理事 朱鍾宜
理事 玄東完

京城府公平洞一一九
科學知識普及會
會長 尹致昊
副會長 李仁
專務理事 金容瓘
常務理事 朴吉龍
常務理事 玄得榮
幹事 鄭寅寬

京城府寬勳洞一二三番
東光堂書店
電話光化門三七〇番
振替京城一六二二一番

株式會社서울고무工社
合資會社京城고무工業所
大陸고무工業株式會社
中央商工株式會社
合資會社朝鮮고무工業所

京城府公平洞八十七番地
株式會社 大昌社
電話光化門二七三七番
電話光化門二七一二番

京城府清進洞一二九番地
中華料理 元興樓
電話光化門一六〇一番

京城西大門外阿峴里三〇三番地
穀物貿易 精米薪炭 委托賣買
協昌商會
吳鉉埈
長電話化門一一三番

태평레코-드
긔린레코-드
配給所 テーオ商會
京城府竹添町一ノ一八
電光三四八番

京城府南大門通二丁目
日本オーケー蓄音器商會
京城支店
社員 一同
藝術家 一同

京城府貞洞一三三番地
張電氣商會
主 張聖雲
長電話光二〇八九番

喪中缺禮
金基德

# 新春元日을期하야 本社機의初飛行
## 午前十一時汝矣島原頭에서
## 爆音勇壯할盛儀

신문사로서 가장귀중한 물산의련락과기다때를 따라여러방면에 리용코자본사에서 새로히 비행긔를 구입하얏다함은 본지 재일면사고에보도한바와 갓거니와 본사에서는이새로 구입한비행긔의 처녀비행(處女飛行)을 일일오전 열한시 여의도비행장(汝矣島飛行場)에서 일등비행사 이등항공사신용욱(一等飛行士二等航空士愼鏞頊)씨의 조종으로 성대히거행 할터인바이날우천이면연긔할터이다

조선에신문회사가수입된지반세긔 신문문화(新聞文化)가수입된지도 한반세긔에 아즉껏 우리네손으로 된문화긔관에 전속된 비행긔를어더볼수업든 남어지에 본사가미약한힘이나마 정성을다하야 사회와 문화를위하야 힘과충성을 다하고자하야 이번에사회각방의 후원을 어더조선최초의 신문사 비행긔구입과 도한처녀취항식이며 따라올해년년초의 비행식인만큼 실로이의의긴중과책임의중대함을스스로 깨닷는바이다

# 四百乘客滿載한 新羅丸暗中坐礁
## 今曉釜山港外五六島附近서
## 乘客만은全部救出

【釜山支局電話】과세하러그리운 고향으로 도라가는 남녀려객사백사명(남자삼백십륙명과녀자팔십팔명)을실고 삼십일일 오전령시 십삼분에 부산잔교를 떠나하관(下關)으로향행든하련락선신라환(新羅丸)(一二〇五噸)은출항한지 약사십분에 오륙도(五六島)밧등대(燈臺)부근의 암초(暗礁)에얹치어서 어두운현해탄바다에서 사람살리라는 아우성이 일제히일어나서소동을 일으켯다 이급보를바든문사철도국(門司鐵道局)부산출장소와 철도국부산운수 사무소와 부산수상경찰서(水上署)와조선기선회사에서는 즉시로 구제선을 내어현장으로 달려가서그조난승객사백사명전부를무사히구제하야삼십일일오전열한시반에부산서떠나는련락선창경환(昌慶丸)에 태워서 각기목적지로가게하였다

암초에 얹친신라환은 년말의려객이 격증하든판으로 림시로출항하게하엿든것인데 그날밤에 풍우가 심해서 항로를 그릇든모양인데 조난즉시로 문사철도국으로 급보하야 문사로부터 『살베이지』회사의 구조선이현장으로 출동하야삼십일일아침 여덟시의 만조(滿潮)될때를기다려서 리초작업(離礁作業)을하엿스나실패되엿다 배는 삼십일일정오까지에도 쏘다지는 풍우와밀려닥치는 험한풍랑에조오리가치흔들리고잇섯다부산수상경찰서에서는 그배의좌초된원인을 방금엄중히 조사중이다 부산하관사이의 련락선이 암초에 얹친것은 근래에처음 잇는드문사건이라한다

# "世界올림픽"에 柔道를加入?
## 歐洲柔道聯盟發奮

【뜨레스덴聯合經由】近年 歐洲의柔道熱은 旺盛하야 이미 獨逸、英國、伊太利、墺太利、匈牙利、波蘭、和蘭、체코、루ー마니아、瑞西의十個國으로된 歐洲柔道聯盟이組織되엿는데 同聯盟主催의 第一回歐洲柔道選手權大會는 지난 十一月三十日부터 三日間뜨레스덴市에서 開催하엿다 이에 參加한 選手는 獨逸十八名、匈牙利二名、체코二名、和蘭一名 合計二十四選手가 出場하야 柔道規則과가티 體重에 依하야 八階級에나노아서 試合時間은 一라운드三分、休息一分의三라운드試合을擧行한바 獨逸이斷然優勢하야 八階級에全勝하엿다 同試合이 終了되든日인十一月三日 뜨레스덴市에서行한同聯盟總會에서는 一九三六年伯林市에서 열리는第十一回世界올림픽大會의오픈·競技로 柔道選手權試合을 加入하도록 國際올림픽委員會에運動을 이르킬것을決議하고 벌서 手續을開始하얏다

### 全日本高專럭비 普專은中南과對峙

來一月二日부터 大阪花園球場에서 열리는 全日本高專럭비大會의 對陣은 다음과가티決定되엿다

◇第一日(一月二日)
A 滿洲工專…天理外語
B 普成專門…中南高校
C 九州醫專…京大醫門
◇第二日(一月四日)
D 臺北高商…山口高商
E 同志社豫科…北大豫科
ABC의勝者를抽籤으로配陣
◇第三日(一月六日)準決勝二試合
◇第四日(一月八日)決勝戰

### 奉天野球選手拘引

【電通奉天三十日發】奉天警察署에서는 二十九日奉天實業野球團選手水原茂(二六) 津山四郞(二七) 渡邊吉松(二五)大貫賢(二八)와밋 鐵路總局員宮川光毅(二三) 딴스홀플로리다麗人場榮世(二九)等六名을 拘引하고三十日六名의 取調를마치고 一件書類와함께領事館警察에 移送하엿다는데 그中渡邊은 明春入營을압두고잇슴으로特히考慮하야 釋放하엿다

大地를 淡粧식인 白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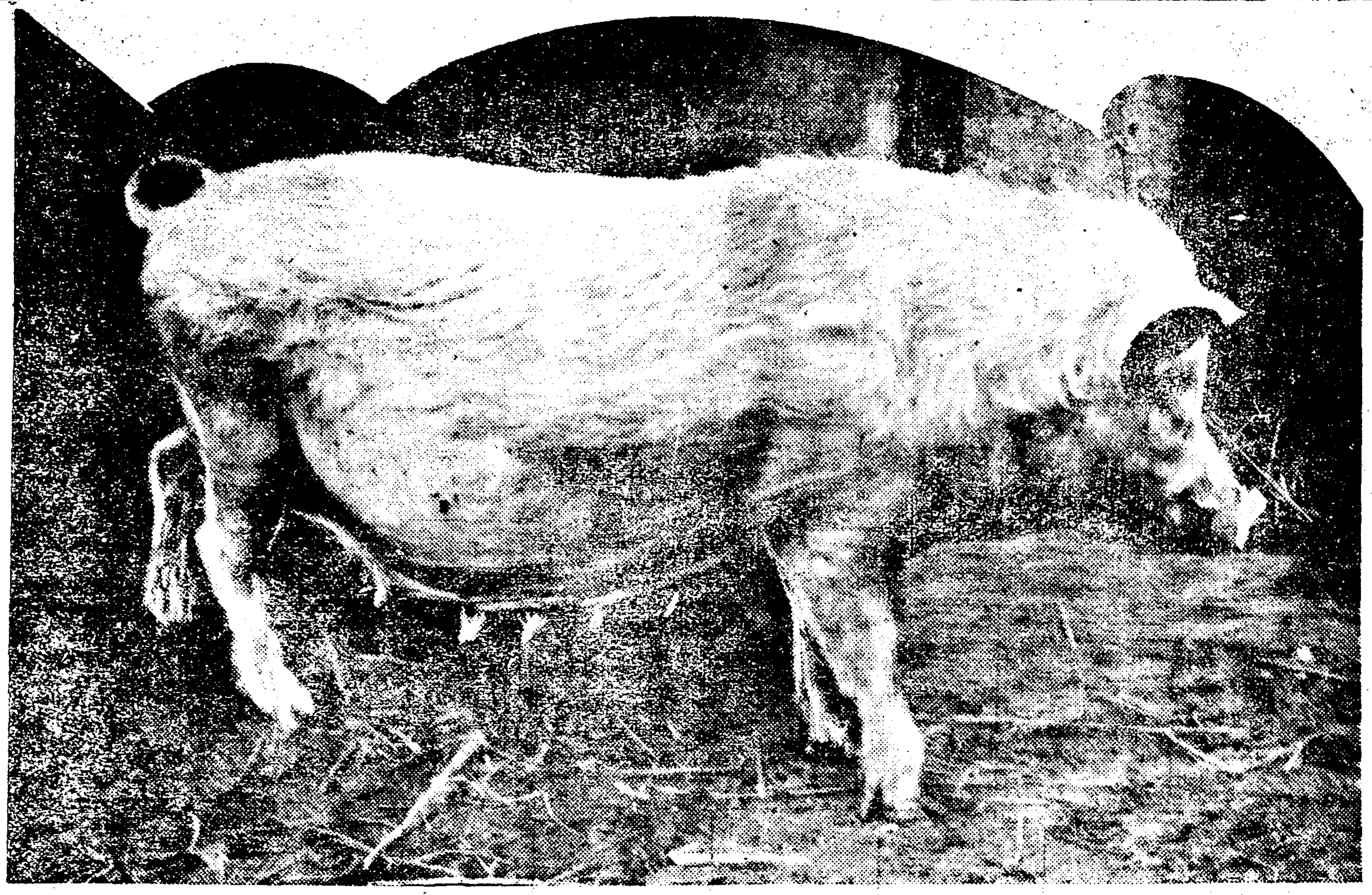
# 치위를뽀이콧한 大空、突然한異變
## ◇雨雪濃霧와强風卒寒이◇
## 十道沿岸을怒呼驅馳

이번겨울은 초겨울을 자버서부터 도대체로치위를『뽀이코트』하야서다가만만 한 겨울을 보내고잇섯는데이는 해마다 겨울추위의큰원인이 되는 만주와『시베리아』의 고기압(高氣壓)이 례년처럼 도모지발달하지아니한 까닭인데 삼십일밤부터 갑작이 칠백칠십팔『밀리』의 고기압이『시베리아』로부터 만주로 확대되기 시작하엿다이와반대로 칠백오십사『밀리』의저기압(低氣壓)은제주도(濟州島)부근에잇서서 북으로진행중이다

이로인하야 국경지방은 대체로흐리고잇고 그이남에는 북풍혹은동북풍 동풍이세게 부러와서 기온(氣溫)은나리고일천구백삼십사년의마지막 날은 눈개경성을중심으로진비로서신산한천후를이루엇다 제주도부근의 저기압은 조선해협을통과하야 일본해로 나갈모양인데 이로인하야그 부근은농무와눈이 나릴모양이고 경기이남의삼남각도와 황해함남강원의각도 연안은 혹은 폭풍의 방문을바들듯지도모르겟다삼십일일의기온은 대체로부산(釜山)목포(木浦)의파고도오 중강진(中江鎭)의 령하삼사도사하에잇다

### 天氣豫報
雪後晴
昨日最高 溫度 八度八
最低 零下一度四
今日正午 一度五

### 暴風警報
十二月三十一日午前八時仁川觀測所發表‖風이强하리라 低氣壓의中心은 濟州島附近에잇서서는 七五四미리를示하며 朝鮮海峽을通過하리라 濃霧 又는降雪이잇스리라 黃海、京畿、忠南、全北、全南、慶南、慶北、江原、咸南의各道沿岸을警戒한다



萬事가 뜻대로 돼지이다 (돼지의첫인사)

# 遼河岸下流에 萬三千朝鮮人村
## 故國을등지고떠나온僑民
## 汗血로된新天地

【營口】만주의대강료하(遼河)연안에는 녯날부터 조선인이이주하야 료하물을리용하야 훌륭한수전(水田)을 개척하여왓섯는데 만주사변이후에 영구(營口)현을 중심으로 료하연안일대에는 수전경작을목적하고 북만으로부터 남마각지로부터 흥은 북만주으로부터 모여들기시작하야 현재 영구시가지에 갓가운료하연안에만 륙백호 삼천명농가가 재주하며 다시영구로부터 조금상류연안에 오백여호 이천오백여명 농가가 잇서 금년에지은 농사는 만주전체가 흉작이엇슴에불구하고 이지방일대의 농가는상당히 조흔수확을어덧다한다 그들중에는 자긔가토지를 매수하야 소규모이나자작농을 경영하는자도잇스나 대부분료주인의 소작인이거나 또는일년또는 이년간의정조(定租)로비려서농사를짓고잇다한다 이외에세상에널리 알려진소위영구농촌 이라는것이 영구대안하북(河北)과 전장대(田庄臺)의 중간에잇는데 금년에 농사를지은농가는 륙백호 삼천명에불과하고 지난 십월이래수송한 삼남리재민들은 아즉 농사준비를 하고잇슬뿐이다 또 영구로 부터 동방약삼십리되는 지점에동척(東拓)농장이잇는데 이곳에조선이민 일백륙십호 약팔백명이잇다 한다 그럼으로 영구시가를 중심으로본 료하하류에 재류하는 조선농민은 삼천삼백이십륙호일만이천삼백여명이잇는데 영구시가지에서 상공업에 종사하는 백호오백명재주자를합하면일만삼천팔백명의조선인이 재류하는셈이라한다

### 平壤局의年賀狀 比昨年二割增

【平壤】평양우편국에서는홍수가 치밀려드는 년하우편으로 방금창드(倉島)국장이하 각과장이 총출동하야 종업원을 격려중인데이십팔일까지 취급한 년하우편은백사십사만여통、 전보도오십통을초과하여 작년보다 이할이상이나증가한상태이라한다

### 汗浦幼稚園曙光

【汗浦】황해도 한포에잇는 유치원은 설립이래선교부와 한포교를조합측의련합으로 경영하여 오든바 금번선교부에보조가 업서지게되야경비를관할방도가업서후원할수밧게업시 되엿든바 이것을유감으로생각한일반시민유지들은후원회를조직한후후원회비와곡물상조합에 긔부로 명년일월부터는설비까지 개선하야 계속경영케되엿다고이가리 동유치원이부흥케 된것은유지들의 열성과아울러 현보모김상곤(金相坤)씨의 로력이라하야일반은칭송이자자하다고한다


謹賀新年

京 西(其一)

京城府元町三丁目 朝鮮書籍印刷株式會社

京城府大島町三十二番地 澁谷工場 主 張仁植 電話龍山六四四番

京城府漢江通八番地 石田洋服店 電話龍山九八〇番

京城府外東幕上里一九二 京西醫院 醫師 金容

京城市外新孔德里一〇二番地 酒類製造 精米業及 穀物貿易委托販賣 大昌釀造場 鍾路支店 電話龍山一一七〇番 電話(光)二二八六番

京畿道高陽郡龍江面玄石里 海陸物産委托貿易業 京江物産株式會社 電話龍山八二三番 振替京城二七五六番

京城市外新孔德里五八 朝鮮酒類製造元 龍一釀造場 主 李敏寬 李雲燮 本店 電話龍山一七 振替京城一四二一 東部支店 電話光化門二〇四七番 西部支店 電話光化門三五八番

金剛化粧品製造本舖 金星堂 京城桃花洞一五六番地 振替京城二一七四一番

京城府岡崎町七一番地 各種機械木型製作 彫刻模型建築細工 ロクロ木工一式 京城木型製作所 主 朴熙寅 電話龍山一〇六二番

京城府青葉町二丁目一一四 青葉醫院 醫師 曹秉煥 産婆 崔英愛 電話龍山九四九番

最新無電池受信機各種改造及修理 明信ラヂオ蓄音機商會 京城府大島町四一 電話龍山一九五番

京城府麻浦洞一三三 穀物柴炭委托販賣業 閔春植 電話龍山五三九番

京光式精米機

京城府岡崎町七十一番地 李光淑鐵工所 京光社營業所 主 李光賢 木工部 京城青葉町 電話龍山九六二番 振替京城一三八一五番

東西藥種 有名賣藥 直輸移入 吉村萬歲堂藥品部 京城西大門局私書函十二號 振替口座京城七一二三番

京城市外東幕上里一八七 李學載

京城府外阿峴里一九一 穀物問屋 大陽精米所 姜炫 電話光化門九八七番

京城府麻浦洞 金溶德 電話龍山五一九九七番

高陽郡龍江面東幕下里五一五 穀物貿易委托販賣 東新精米所 主 朴容潤 電話龍山一七九番

京城府外東幕下里四七〇 朝鮮酒類製造元 東興釀造場 電龍一二五六番

京城府麻浦洞三〇〇 金南容

京城府元町一丁目二十八番地 建築金物諸機械類 大工具鐵工用具釜 焚口風爐各種其他 金物類一式販賣業 合資會社 金物商店 社員 高鳳燦

高陽郡龍江面玄石里 東興精米所 主 金東赫 電話龍山一〇三九番

京城府和泉町一番地 西大門精米所 電光一八一一番

京城府青葉町二丁目一二五 鍮器鑄物專門 高一權鑄作所 電話龍山七六番 電信略號(コ)又(コ)

京城市外東幕上里九七 沈禎澤 電話龍山五七六番

京城府青葉町二丁目一八〇 青葉式送風機製造元 青葉鐵工所 主 申貫萬 電話龍山一一七八番

高陽郡龍江面東幕上里一一五 寧東精米所 主 張寧鎬 電話龍山一二五五番

高陽郡龍江面玄石里一二九 海陸物産委托販賣業 우리商會 主 徐廷奉

京城府外玄石里 甲成精米所 主 張基萬 電話龍山九四一番

高陽郡龍江面玄石里 海陸物産委托販賣業 慶昌商會 主 朴來鐵 金點用 電話龍山一〇三九番

喪中欠禮 東幕 李溶晟 電話龍山一三八五番

龍山驛前 (三)京江運輸部 店主 朴蒼燮 電話龍山一六番

(十)十一運送部 本店東幕 朴龍錫 支店龍山驛前 電話龍山一三七番 振替京城三三一七番

京城府漢江通七番地 龍山工作株式會社

京城府外新水鐵里 海陸物産委托販賣業 李基周 電龍一一六六番

京城府麻浦洞一一四番地 許湲

京城府桃花洞 中島醫院長 洪濟軒

京城府麻浦洞一〇七 信一精米所 電話一〇八九番

京城府麻浦洞三番地 綢緞布木 雜貨紙物 石油鐵物 順興商會 主 池點龍 電話龍山一三七七番

京城府桃花洞一五六番地 人天教大本院

京城西大門外阿峴里一九四 朝鮮酒類製造販賣 元屋釀造所 主 元敬民 電話光化門一四六二番

京城府元町一丁目九三番地 精米機鑄鐵機械 穀擣機建築金物製造修理請負設計 京一鐵工所 主 吳今成 電話龍山一四四一番

京城府彌生町 朝鮮人遊廓 藝娼妓組合員一同

京城府外孔德里 無名氏

京城府龍山京町八番地 相信鑄物工場 主 金庚鎬 電話龍山一一九〇番

京城府古市町十四番地 ロクロ細工 諸車用材料 樫製材販賣 鄭昌熙 電話本局三一七四番 振替京城一六八九七番

京城府青葉町三丁目 京一精米所 主 梁在完 電話龍山一〇一〇番

朝陽川

京圖線朝陽川市 新京旅館 主 鄭金善 電十七番

間島朝陽川 李鍾石商店 電話五三番

朝陽川滿鐵指定醫院 濟東醫院 醫師 金河均 電話十三番

朝陽川二本町 穀物貿易商 電話三三番

間島朝陽川 安永七

瀛興商店

朝陽川 三南旅館 電十番

朝陽川三本町 唯興商店

間島朝陽川 信友商店

朝陽川四本町 東明商店

間島朝陽川 安永商店

間島朝陽川 間島冷麵家 電話五一番

間島藥品商會朝陽川支店

朝陽川市 布木雜貨고무靴 大同商店

朝陽川本町 東昌商店

間島延吉朝陽川市 松林商店

朝陽川二本町 三共商會

朝陽川市 綢緞布木 信合商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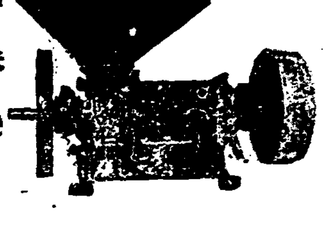
間島朝陽川市 綢緞布雜貨商 德盛泰

總領事館代書業 金學烈事務所

朝陽川本町 德興商店

間島朝陽川市 瀛鮮印章舖

間島朝陽川市 泰和屋 金順伊



賀正

쏠깁다朝鮮을祝福하세

朝鮮打鈴 姜弘植

日本콜럼비아蓄音器株式會社

映畫常設 桃花劇場 電話龍山一三三三番

活字、鉛版用地金 安母尼、生子鉛 半田バベツト、輪廓、印刷附屬品 地金卸問屋 姜善鎬商店 京城府竹添町三ノ三九 電話光化門二〇二三番

京城府鐘路二丁目四四番地 朝鮮鑛務所 李明世 電話(光)七八四番

京城府北米倉町市場內 辻本商店

北內商店 崔相珠 京城府本町一丁目 電話本局長一八二五番 振替口座京城一六四四番

京城銀行集會所 俱樂部會社團
東洋拓殖株式會社京城支店
京城電氣株式會社
三井物産株式會社京城支店
三菱商事株式會社京城支店
朝鮮鐵道株式會社
朝鮮郵船株式會社
金剛山電氣鐵道株式會社京城出張所
株式會社朝鮮取引所
朝鮮火災海上保險株式會社
不二興業株式會社
土地改良株式會社
朝鮮運送株式會社
南滿洲鐵道株式會社京城販賣事務所
朝鮮信託株式會社
住友合資會社京城販賣店

新長

廣州郡東部面新長里 廣昌釀造場 李昌夏

廣州郡東部面事務所 職員一同

廣州郡西部面 職員一同

廣州郡九川面 面長 魚瀞

廣州郡九川面上一里 上一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廣州郡東部面德豐里 金今南

廣州郡九川面上一里 上一公立普通學校長

廣州郡東部面豐山里 朴敬烈

廣州郡東部面新長里 松坂金融組合新長支所 職員一同

京東

京城東大門外淸凉里 第七日安息日耶蘇再臨敎朝鮮合會 時兆社

市外上往十里三六一 朝鮮硝子製造所 主 李昌根 支店 京城昌信洞三六八番地 電話本局三五四六番

京城東大門外安岩里 崇仁消防組第一部 組頭 金炳學

朝鮮運送株式會社淸凉里營業所 主任 中村福一 電話光化門一〇四九八番

京城東大門外安岩里 崇仁釀造場 電光一九二八番

京城府崇仁洞八四番地 白米雜穀柴炭 大盛商會 電光一八五三番

市外上往十里七〇八 永進木工場 主 李元龍

京元線往十里驛前 三成運送店 代表 崔弼成

京城府外下往十里九四〇 漢陽釀造所 主 崔龍浩 事務 趙聖寬 電本一四四四番

高陽郡漢芝面下往十里二四二ノ一七 晋成木工場 主 宋吉成

京城市外下往十里九三七 本店 誠信號典當舖 主任 梁鼎煥 支店 京城市外上往十里七七四

高陽郡漢芝面杏堂里 荷馬車組合

高陽郡崇仁面淸凉寺 住持 申慈英

京城東大門外崇仁洞一九九 兄弟酒店

京城市外下往十里七三 崔順天商店

京城市外下往十里九二六番地 廣東精米所 主 趙鎔協 電話本局二五七三番

京城市外下往十里八六六番地 東昌精米所 金東旭 電話本局三〇六二番

市外上往十里一〇二番地 裕常精米所 尹□哲

京城市外下往十里六〇一 東興商會 李在根 電話本局二三八〇番

高陽郡漢芝面馬場里五四〇 金華敬

市外下往十里六四二 順興精米所 韓順文 電話本局三七四七番

京城東大門外淸凉里驛前 淸凉タクシ

京城東大門外淸凉里驛前 金昌精米所 主 金應均

市外安岩里三八 安泰榮

京城市外新堂里三三五番地 玩具雜貨商 昭和商店 電話本四二三〇番

市外安岩里 開運寺

京城市外下往十里八三五 東一木工場主 朴永憲

市外下往十里 黃南圭

市外下往十里六〇二 盧助

市外新堂里一三九 張基駿

京城市外下往十里八〇〇 裕豐精米所主 崔明俊

京城市外上往十里二七九 嚴大云

京城組合銀行

京城鍾路 里門食堂 電光一四〇七 一四五〇 一七四二番

京城府公平洞七八番地 朝鮮料理 西洋料理 太西館 電話(光)一三四番 二〇五六番
別莊 漢江鐵橋越便龍鳳亭內 電話(龍)一三四一番

京城貫鐵洞一四〇 電光二八一二番 京城女子醫學講習所
神經科內科 漢城醫院 金鋅述 吉貞姬

京城府三角町一番地 咸錫泰齒科醫院 電光七九番

京城南大門市場 海陸物産委托販賣商 安慶春 長電話本局一一八三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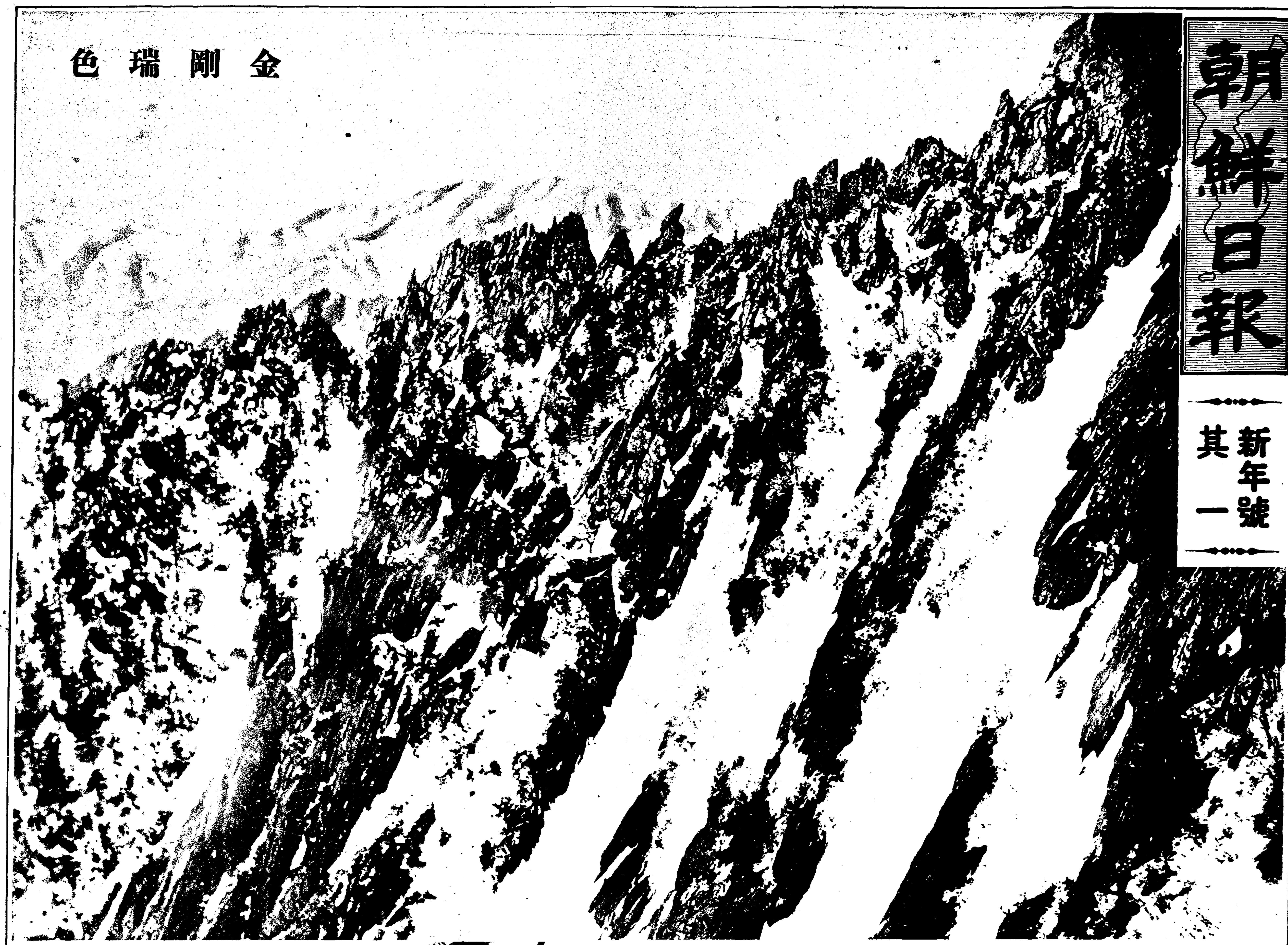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 株式會社三國商會 電光六一一八

朝鮮料理 天香園 京城府仁寺洞一二〇番地 電話光化門 八五八 八五九番 一〇六九
高陽郡崇仁面貞陵里 天香園別莊
開城府北本町 天香園支店 電話一三五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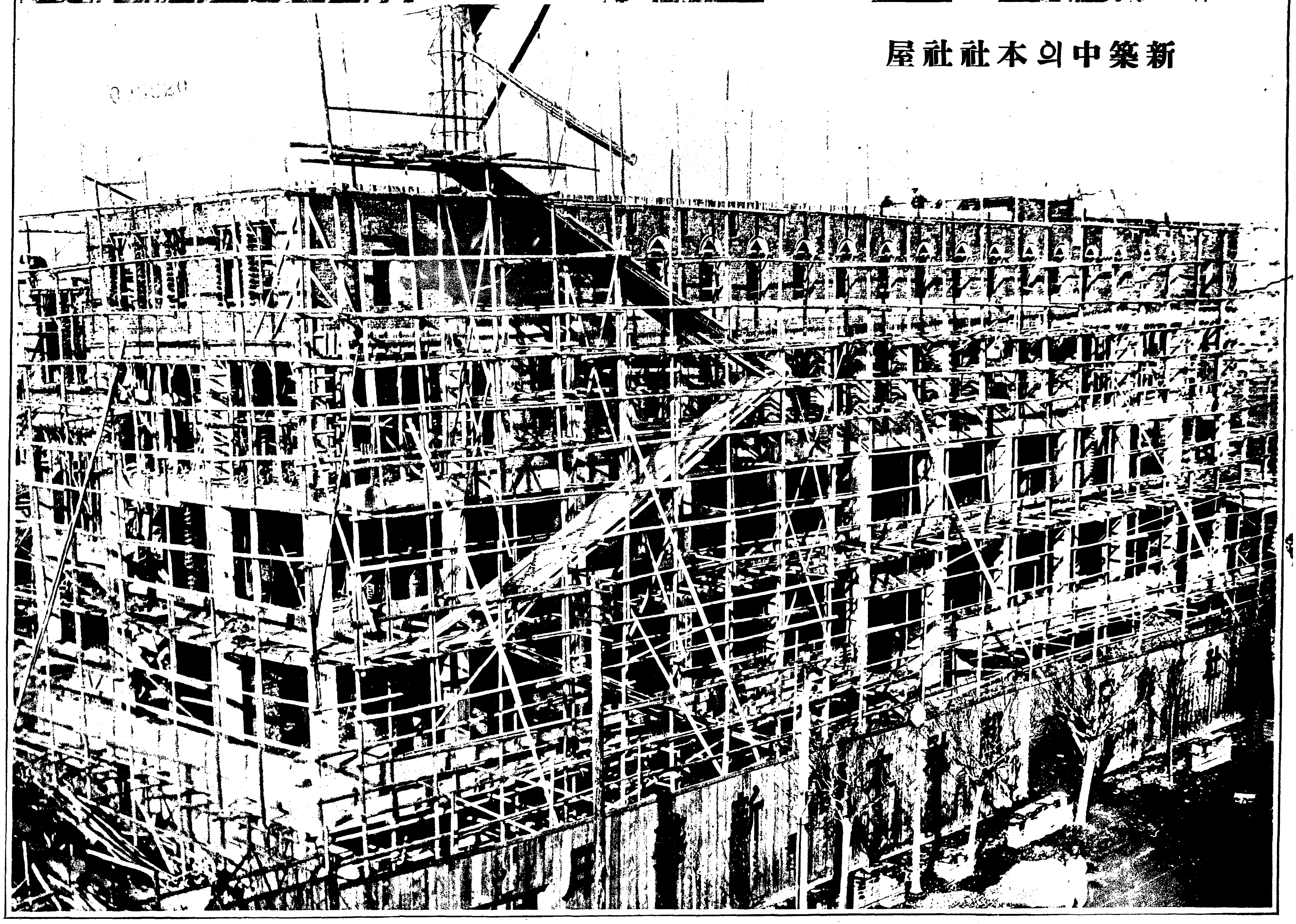
朝鮮料理界元祖 明月館 京城府敦義洞一四五番地 電話光化門 六四 八六二番 一五〇九

朝鮮日報

新年號 其一



金剛瑞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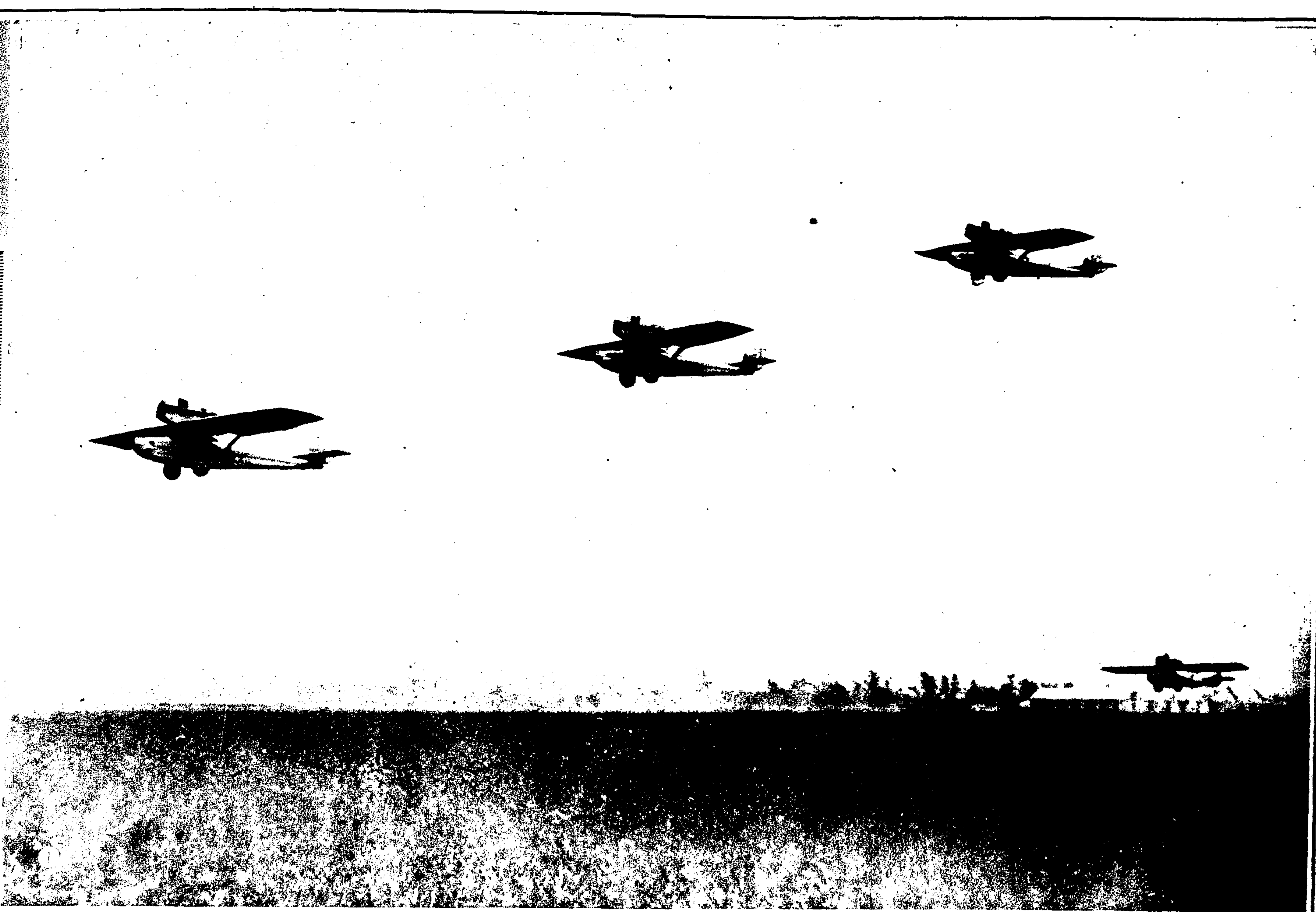


新築中의本社社屋

# 一九三五年

一九三五年은 華府條約과 倫敦條約이 滿期되는 一九三六年의 前年이오、倫敦條約에依하야 軍縮會議를 開催하는해다。이 軍縮會議에서 日英米三國의 軍縮協定이 成立될지、또 萬一 이 機會에 一九三五年이 日本의 聯盟脫退 滿二週年에 當하므로 그委任統治地인 南洋群島의返還을 要求하고、滿洲國에對한 日本軍의 撤退를要求하는等 政治問題가 이러나면 問題는 어찌될가。 他方 歐洲에서는 一月早早 잘地方의 歸屬問題로써 人民投票를 行할때인데 萬一 이것이 獨逸에 歸하게될때는 佛國은 그대로 唯唯諾諾할가。墺太利를中心한 獨伊葛藤은 露骨化하고 國體、政體上 容認치못할 蘇獨의對立은 日益尖銳化한다。果然 一九三五年은 무엇을 이르킬것인가。

寫眞은 今年에 世界舞臺에 登場할人物、軍機等으로서
（1）四萬×千八百馬力을가진日本最大의○○機（先頭）
（2）米國의最大飛行船에공號（航續力一[illegible]六、九○○[illegible]）



⑦

⑪

⑩

⑨

㉑

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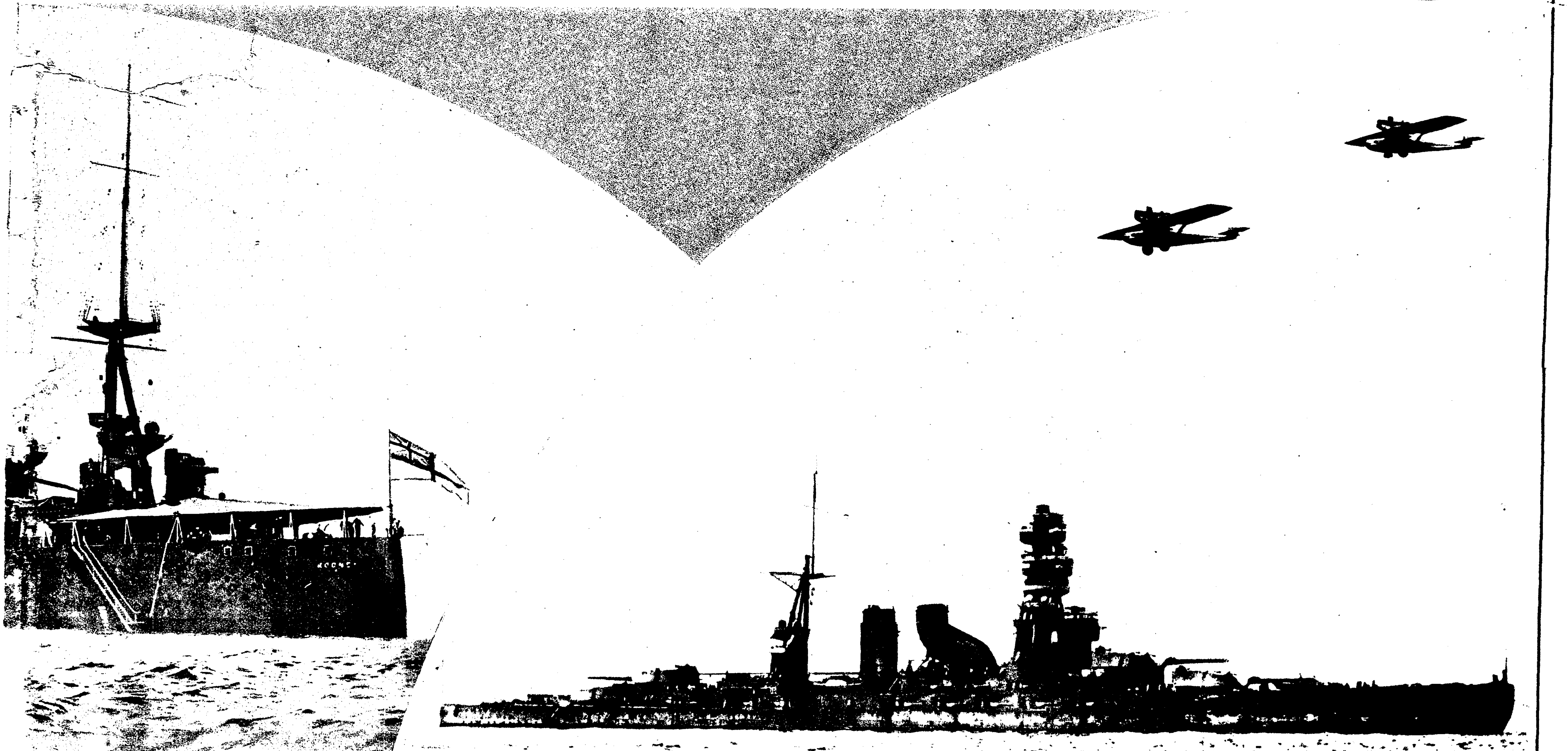
⑲

⑱

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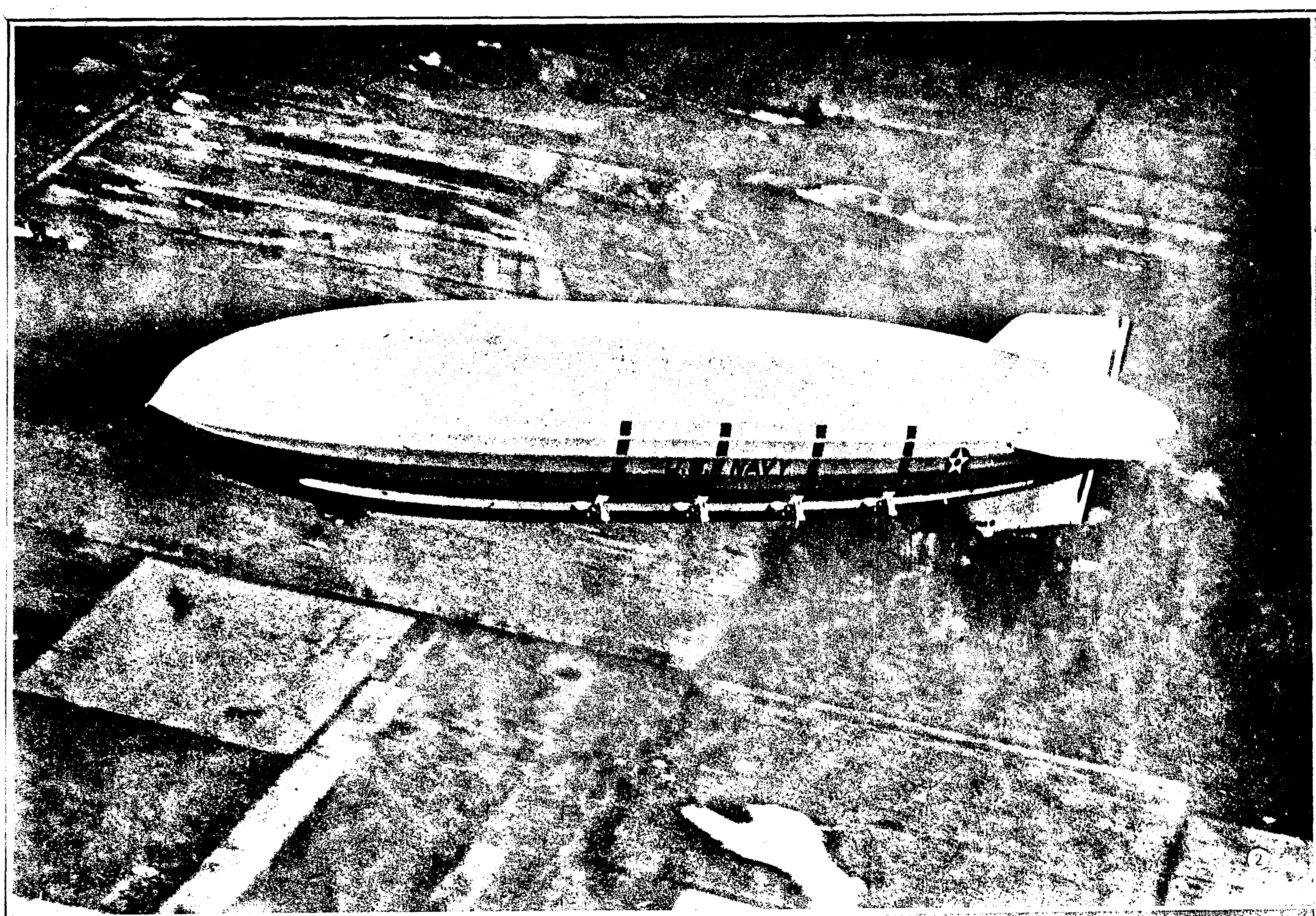
⑯

⑮


④ ③

# 世界의展望

(4) 英最大의 戰鬪艦 후드 (三二、九〇〇噸)
(5) 米國最大의戰鬪艦 웨스트 버지니아(三二、五〇〇噸)
(6) 岡田首相
(7) 맥도날드英首相
(8) 루즈벨트米大統領
(9) 프랑당佛首相
(10) 히틀러獨大統領
(11) 滿洲國首相鄭孝胥
(12) 國民政府最高執權者蔣介石
(13) 리트비노프蘇外相
(14) 뭇솔리니伊首相
(15) 廣田外相
(16) 林陸相
(17) 大角海相
(18) 싸이먼英外相
(19) 볼드윈英樞相
(20) 몬셀英海相
(21) 데·밸레라愛蘭大統領
(22) 헐米國務長官
(23) 스탄드레米海軍提督
(24) 스완슨米海相
(25) 데비스米軍縮代表
(26) 라발佛外相
(27) 베네슈·체코外相
(28) 슈슈닉墺首相



②

⑭

⑬

⑧

㉘

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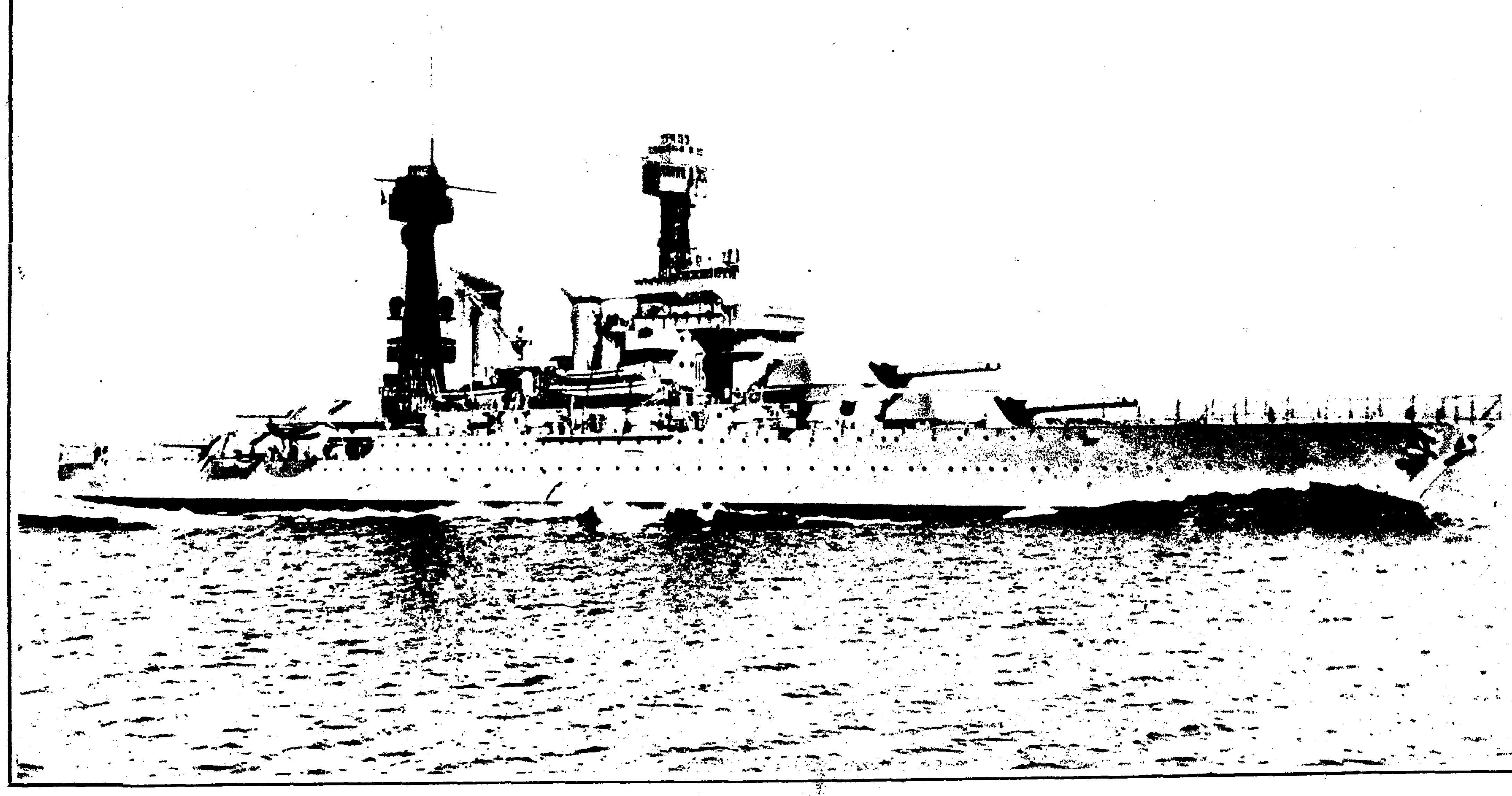
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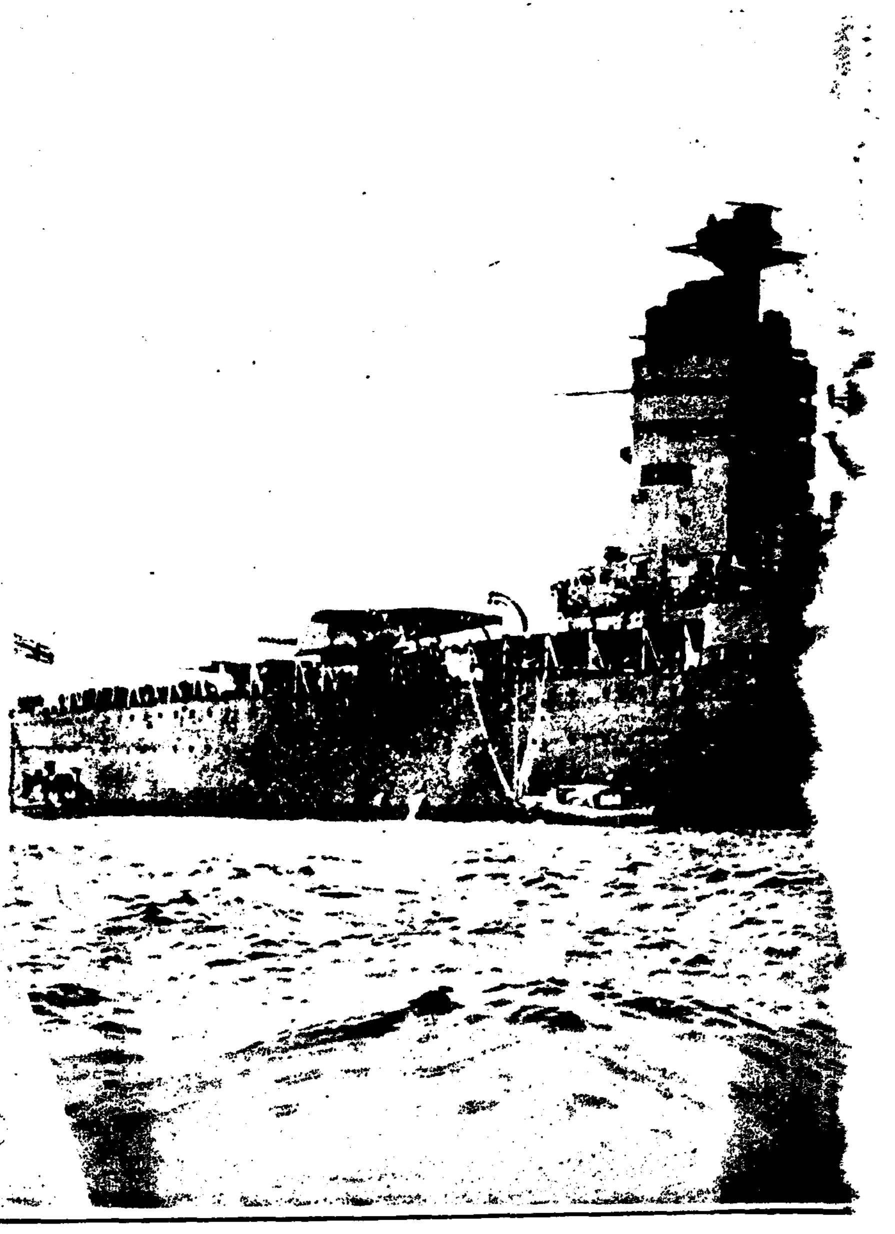
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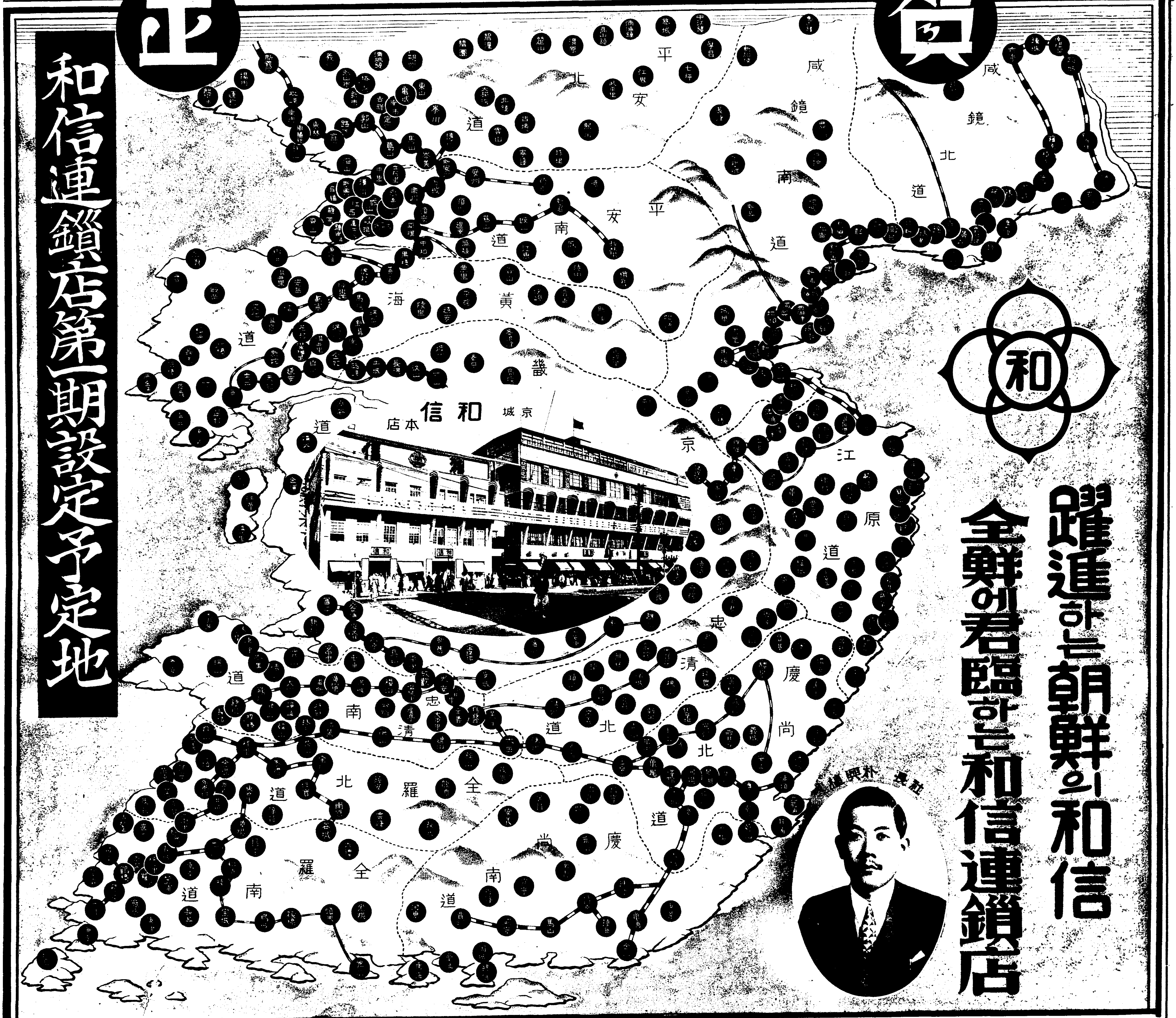
㉔

㉓

㉒


⑤







鮮一紙物株式會社

和洋諸紙都賣元
新聞捲取紙輸入元

京城府壽松洞二六

社長 朴興植
支配人 李奎載

電話 光化門 [illegible]

土地建物及農場經營

大同興業株式會社

社長 朴興植

(昭和九年十二月創立)

臨時事務所 和信內

各種印刷

鮮光印刷株式會社

社長 朴興植
支配人 洪麒植

京城府壽松洞二七
電話光化門 二〇九五番
二〇七五番

株式會社 和信

여러분의百貨店

京城・鍾路
代表電話二六八〇番

社長 朴興植
專務 李基衍

朝鮮日報

新年號 其二

# 極東外交의 趨移

## 西太平洋制覇爲한 日米蘇中의 角逐

咸尙勳

| | 面積 | 人口 |
|---|---|---|
| 日本(本土) | 三八二(千方粁) | 六七、九〇〇、〇〇〇 |
| 日本(全日本) | 六七九、四六〇 | 九〇、三九六、〇〇〇 |
| 米國(本土) | 七、八三九 | 一二三、四〇〇、〇〇〇 |
| 米國(全) | 九、六八四 | 一三七、〇〇八、〇〇〇 |
| 蘇聯 | 二一、一七六 | 一六〇、八〇〇、〇〇〇 |
| 中國 | 一一、〇八一 | 四五〇、〇〇〇、〇〇〇 |

(人口는 一九三〇年現在、蘇中은 一九三二年推算)

### 日蘇間의 危機 아즉도 未解消

極東政局은 昭和七年 九月十八日 滿洲事變에 依하야 緊張되얏다。 中國 錦州市를 攻擊하고 한省城을 占領할때마다 提起한 聯盟及 米國의 警告 抗議는 民主的인 幣原外交의 心胆에 사모치게 한바잇거니와 翌春 一月의 上海事變에 이르러서는 日米間의 危機까지 孕胎하얏섯다。 幸인지 不幸인지 『스팀슨』의 西太平洋制覇의 迷夢은 「스탄드레」海軍提督의 日米戰爭不可能說로 깨저거니와 그後 聯盟調査團의 來滿、聯盟總會及 諸調査委員會서의 日本의 孤立을 助長 乃至 幫助한 責任의 一部分은 켈로그不戰條約을 金科玉條로 神聖視하는 스팀슨原則의 延長이엇슴은 疑心할 餘地가 업다。 昭和八年二月 聯盟脫退로서 內田焦土外交、荒木積極國防主義는 使命을 다하얏다할지라도 蘇滿國境問題、北鐵讓渡問題、北中緩衝地帶問題는 廣田協和外交 林中庸國防主義로도 容易히 解決되지안엇다。 八年九月 北鐵從業員의 逮捕、十月蘇聯의 『日本陸軍當局의北鐵占領計劃』暴露로서 日蘇關係는 危機의 絕頂에 達하지안엇는가。 때마츰 루스벨트와 리트비노프間의 米蘇復交交涉이 進行되고 廣田外相의 協和外交가 奏効하야 僥倖히 危機를 脫出 하얏다고는 하나 極東西伯利亞及 滿洲一帶에 低迷하는 妖雲은 언제 消去할런지 모를 形勢에잇다。 林陸相의 議會에서의 答辯을 들으라、蘇聯은 東部西伯利亞國境에 三十萬의 軍隊를 集中하고 數千의飛行機、軍艦를 準備했건만 日本은 不過十萬의 陸軍과 少數의 飛行機가 備置되어잇다하지안엇스며、蘇聯의 極東軍司令官 불루헬將軍은 林陸相과 正反對의 數字를들어 日本軍에 侵略的意思잇슴을 煽動하지안는냐。 北鐵賣買價格이 一億五千萬元으로 協定되얏고 餘條 枝葉的 讓渡方法問題가 善히 解決되다 하드래도 共產主義、國際革命主義를 모토로하고、東洋에가거라、中國과印度에!하고 웨친 레닌의 遺言을 自家의 國是로삼는 蘇聯과、極東의 覇者가 되고 極東大陸의 모로主義를 내세우는 日本과가 서로 虎視耽耽하는것은 누구든지의 눈으로 보리라는것은 누구나 想像키 不難하다。 特히 蘇聯은 一九三三年으로부터 始作되는 第二五個年計劃이 一九三五年으로서 그軍需工業의 大部分을 完成하고 日本은 그完成以前의 作戰上의 有利한 핸드캡을 維持하라는 心臟이잇다하니 今年 — 昭和十年을 또亦是 無難히 消過할수가잇슬가。

協和外交의 廣田外相

### 軍縮本會議와 極東政治問題

昭和十年의 日蘇關係 보다도 昭和十年의 日本乃至 日英米關係는 一層 複雜性을 가질것다。 一九三五年은 倫敦條約에 依하야 軍縮會議를 開催하는해다。 昨年六月로부터 七月、十月로부터 十二月에 이르는 前後 三四個月間에 豫備會商의 再開與否、時日、場所도 決定치못햇지만、如何한形式으로나 軍縮會議가 開催될것은 既定的事實이다。 그런데 이軍縮會議가 單純히 日本서 主張하는것과가튼 軍縮問題만을 取扱하고、政治問題는 全然 取扱하지아니할가。 또政治問題는 取扱하지안코 軍縮問題만 討議되다고하면 日英米等 三國의 艦數의 三割式 減縮하자는 米國과의 間隔은 確히 妥協할 餘地가 적지만는、日英專門家和協試案이란 所謂 折衝的妥協案도 米國은 勿論이오、日英政府조차 다 引거하지안흐니 언제 協定을볼수잇스랴。 戰爭을 假定하고、不安을 想像하고 協議하는 軍縮會議가 圓滿히 結末을 지울것이로는 생각되지안는다。 그러니만치 軍縮會議는 政治問題와 分離해 생각키 어렵고 今年의 軍縮會議는 政治問題를 自然히 討議하게되리라 觀測되는 所以이다。

### 日英米三國의 太平洋爭覇戰

아닌게아니라 今番 軍縮會議에는 日英米佛伊의 五個國은 勿論이어니와 蘇聯、獨逸까지도 招請하리라한다。 一般軍縮會議를 脫退한 獨逸이 이에 參加할가하는것은 別問題로 상고라도 海軍國으로서 그다지 存在가업는 蘇、獨까지도 이會議에 招請하자는說이 有力하야진것은 이會議를 軍縮問題에 그치지안코 政治問題에까지 論鋒을 옮기자는 意圖가 잇슴을 엿볼수잇지 안흔가。

政治問題로서 提起될만치 蠢然視되는것은 日本軍의 滿洲撤退問題、滿洲國承認問題、南洋委任統治地問題、中國의領土保全問題、比島永世中立國問題等일것이다 米國、獨逸及 聯盟加入國은 滿洲國을 獨立國으로 認定하지안는다。 그러므로 日本에 滿洲國承認을 다시 勸告하도록 慫遏할지모르며 따라 日本軍의 滿鐵附屬地에의 撤退도 勸誘할지 모른다。 그러나 滿洲國을 承認한지 이미 二週年、滿洲國과 攻守同盟을 맷고、滿洲國의 帝政實施에 絕對의 後援者가된 日本이 그國策을 버리고 이에 唯唯諾諾지 안흘것은 贅言을 不要한다。 그러니만치 米國及聯盟加入國은 聯盟脫退의 理由로써 日本에 南洋委任統治地 返還을 要求하고 獨逸로하야금 남의德에 舊領土의 恢復을 提言할機會를주지 모른다。 그러나 日本이 또한 이에 應諾치 안흘것은 그의 軍事的 重要性은 別問題로하고라도 政治的威信上으로 想像할수잇다。 이리되면 日本對 米國及聯盟加入國、特히 英米의 對日共同戰線이 成立되고 日英米의 衝突이 잇슬지 모른다。

蘇滿國境

### 胴體뿐의 中國 以夷制夷外交

그러나 日本의 對滿現勢를 固執하며 英國이 政治問題를 고집어 내어 軍縮協定까지 破綻시키라고는 생각지안흘것이다。 한다면 米國이 日本과 共然 軍縮에 協定할 餘地를 안가지것으로 생각하는만큼 軍備擴張競爭을 覺悟하고서라도 日本을 牽制하라는 意思를 가질지모르니 스탄드레提督以下 米海軍이 거이다 意思의 所有者요 스팀슨이 비록 在野한다하드래도 國務省內는 엉지 스팀슨原則에 好意를 갖고잇는 現下에 잇서서는 全然 想像할바도아니다。 滿洲問題、委任統治問題外에라도 比律賓의 軍備撤廢를 條件으로 日本의 軍備減縮、對中領土保全問題를 이러한것은 想像키 不難하다。

이와가티 列國의 注目이 日本에 集中되고、中國의 領土問題 比島永世中立國問題가 이러나면 北中停戰協定以來 沈默을 守하고 오즉 內政問題解決과 將來할 危機에 備할 航空機充實에 餘念이 업는 中國國民政府로하야금 다시 外交的策動의 機會를 주지안흘리라 믿기 어려우니 現在도 親日派미테 獨逸해잇든 親蘇、親米、親歐等 온갓 政策을 두르고잇슴에랴。 이리하야 西南派와 北中將領으로부터 永年의 宿怨의的이되어잇든 蔣介石政府는 民衆의 反抗心에 비위를 마치고저 自然外交的策動을 하지아니치못할것이다。 이리하야 中國은 頭部와 手足을 잘라버리고 胴體만을 가지고서라도 沈默을 守하려는 自重主義를 버리고 外交的 軍事的 活躍할 機會를 맨들지 아니할가。

### 極東危機四點 東京、華府、南京、莫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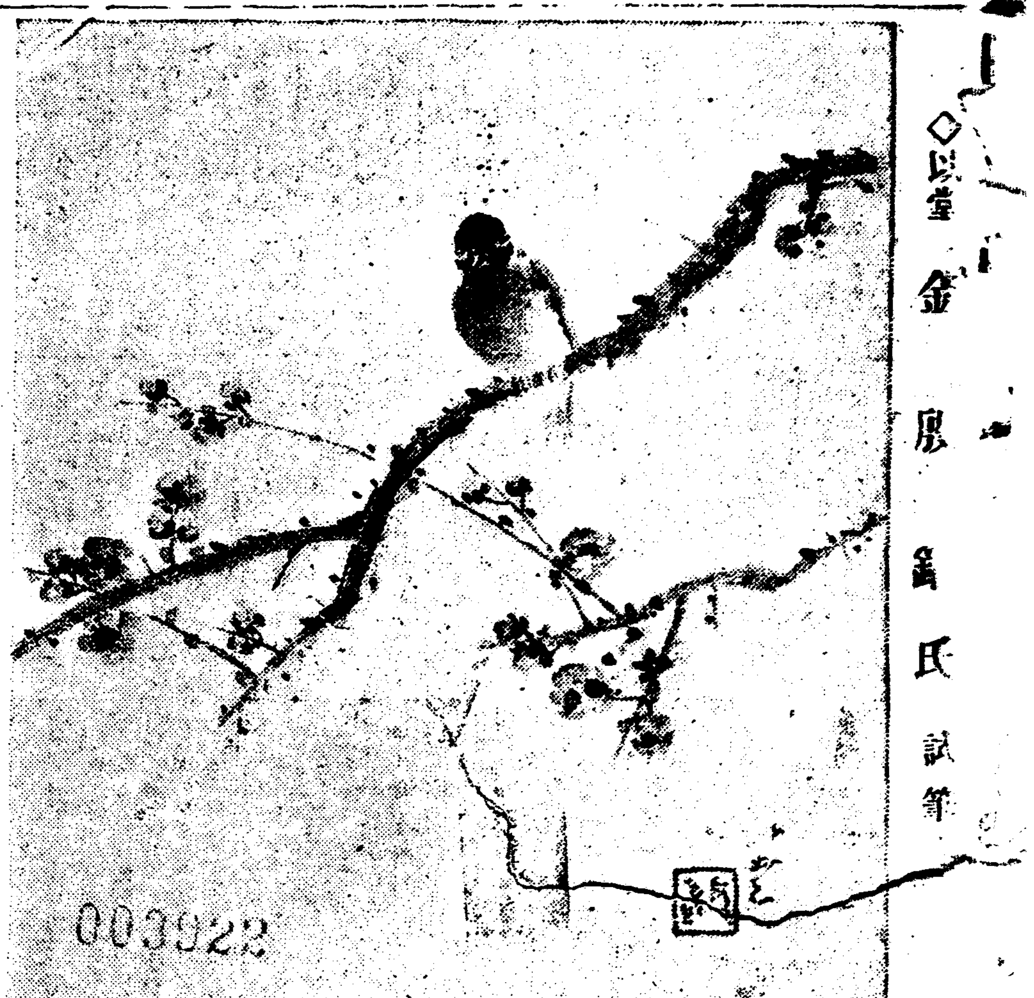
이와가티 三昨年 九月十八日 奉天一點에 던저진 一石은 波紋을 지어 極東을 휩쓸고 太平洋과 亞細亞大陸을 橫斷하야 米國及 歐洲諸國에 波紋을 傳하고 다시 그波紋은 本源인 極東에 도라왓거니와 果然 極東은 世界의 大部分의 輿論이 指稱하는것과가티 爆發性을 가진 火藥의 倉庫일가。

危險性은 到處에 充分하다。 蘇聯이 北鐵을 滿洲國에 賣却할것을 提議하고도 五億金留(十二億五千萬元)이란 誇大한 呼價에서 一億五千萬元이란 賣價로 떨어트린것이 裡面에 伏在한 딴理由가 잇다할지라도、그들의 極東政策上 一大挫折을 보게한것만은 事實이니、그들이 機會를 엿보아 그의 抱負의 一端이라도 實現해보랴할것은 推測키 不難하다。 그러니만치 蘇滿國境은 恒常 緊張한 對立狀態를 呈하지안흘수업슬지며 衝突의 危機는 언제 解消될지 모른다。

둘재 米國과 英國은 極東에 對하야 重大한 通商上、領土上 利害關係를 가젓다。 日本이 西太平洋岸에서 完全히 制海權을 잡고 英米의 介入을 不許한다면 米國은 그 領土인 比律賓과 對中貿易上及 財政上 莫大한 威脅을 感하고 英國은 그領土인 濠洲 馬來半島 香港等은 勿論이오 長江一帶의 貿易及 其他經濟上 莫大한 威脅을 感한다。 그러므로 軍縮會議에서는 絕對로 日本에게 西太平洋 制海權을 附與하랴안흘지니 利害의 相反은 畢竟 決裂을 招來하고 決裂은 結局 海軍擴張競爭을 招致하야 마츰내 實力으로써 무엇을 解決할랴는 時期가 올 可能性이잇다。

다음은 中國의 對日感情이다 滿洲가 自由的으로 獨立을 宣言하얏다하드래도 中國은 滿洲의 獨立을 自國領土의 喪失로 看做하고 日本을 假想敵視하나니 只今은 臥薪嘗膽 拒輸에 不過하므로 自重主義로 隱忍하고잇스나 그들中에는 自力의 養成을 待하야 이에 報하랴는者잇고 또는 英米蘇等 他列強의 勢力에 追逐하야 宿怨을 풀랴하는者잇스니 이感情의 解消라할수업다。 果然 今年의 極東政局은 어떠한 事變을 現出할것이냐 注目할 資料다 (完)

(헐 米國務卿)



◇以堂 金殷鎬氏試筆

# 不安恐怖下의 歐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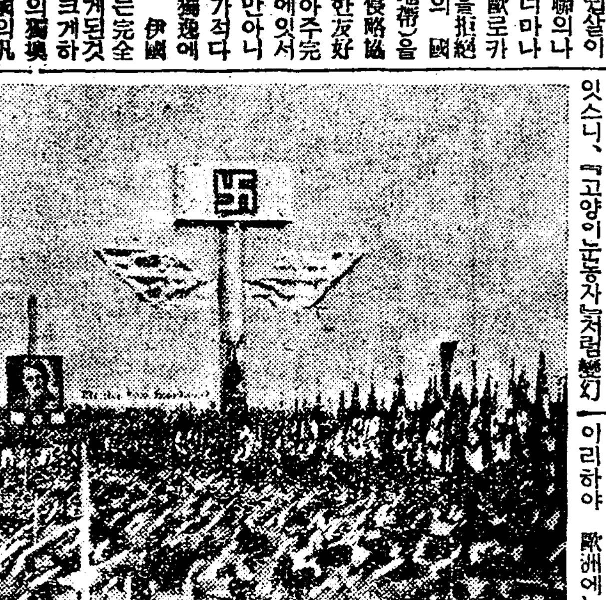
## 同盟外交의 再現 ❶

洪陽明

不絕하는 暴動과、暗殺과 離合無變한 連衡外交의 再興과 等等。 歐洲의 一九三四年은 大戰後二十年에 어떠한 달은해보담도、가장 激動하는 歷史의 振子! 高速度로 昇降하는 『바로메터』에 依하야 一九三五年으로 推進된다。 戰爭과 平和에 對한 두細胞을 貸借關係로 明示한 『밸런스·쉬트』에 比한다면 一九三四年의 歐洲는 戰爭에 對한 借方記錄으로서 全幅을 채운셈이다。 勿論 平和에 對한 『貸方』도 업는것은 아니다。 이것이도! ●지업섯드면 歐洲는 발서 破産! 나는 이제 여기에 一九三四年의 歐洲戰爭記錄을 써야할것이다。 뭇소리니 獨裁首相의 말을 빌어한다면 『友好關係도 아니오、戰爭狀態도 아닌것처럼 國際關係를 不安케하는것은 업다』하얏거니와 實로 一九三四年의 歐洲는 不安과 不安! 일족이업는 不安恐怖의 一年이엇다。

### 노ー딕狂想曲

一九三四年은 파시스트狂想曲으로 突進하려는 『히틀러』獨裁首相과 이國民主義의 演奏을 合縱連衡外交의 防波堤로써 包圍하려한 『바르투』佛外相의 流線型外交에 依하야 歐洲의 形勢는 大戰直前의 英佛露協商對 獨墺伊三國同盟對立과 가튼 狀態를 再現하게되엿다。 오즉 나치스獨逸만은 後者에게서 脫落되야 大戰結果 分立된 匈牙利가 이에 代位되고、『차ー르』露西亞가 『社會主義聯邦國』으로서 變形되야 새로히 歐洲政局의 一中堅으로서 登場한것이다。 그러나 두外交 『블라ー크』는 그어느것이나 나치스獨逸의 脅威에 依하야 그結成이 促進되얏다는것을 생각한다며는 특히 히틀러는 同盟外交의 産婆役노릇을 단단히 한셈이다。 日獨兩國의 脫退로 因하야 聯盟의 威信이 損毀된 國際聯盟의 베르사이條約維持機關으로서의 地位를 強化하려는 佛國의 補强工作에 蘇聯이 쉽살이 有力한 材料가된것은 蘇聯의 나치스獨逸에 對한 反感이 너마나 큰것이엿기 때문이다。 東歐로카ー노條約에 加入하는 것을 拒絕한 結果 獨逸은 東部波蘭의 國境改訂(포ー센地方即廻廊地帶)을 十年間 斷念(獨波十年間 不侵略協定)하는 代價로 波蘭과 唯一한 友好關係를 맷는 以外에는 이해에 아주 完全히 孤立되고 마럿다。 그中에 잇서도 『파시즘』의 先輩일뿐만아니라 베르사이條約에 對한 分配가 적다는 不滿으로 過去 나치스獨逸에 對한 唯一한 同情者이든 伊國이 一九三四年에 이르러서는 完全히 獨逸과 反對方向에 서게된것은 獨逸의 孤獨感을 더욱 크게하얏다할것이다 나치스獨逸의 獨墺알슐르스(合併)運動이 伊國의 汎伊政策과 衝突된 까닭임은 말할것도업다。 나치스의 墺國合併을 阻止하기 爲하야 墺匈二國으로 더부러 伊墺匈三國 經濟協定을 맨드는데 『뭇소리니』의 副役을 마터본 『돌푸스』墺首相이 七月二十五日 『나치스』의 强襲에 依하야 暗殺되자 뭇소리니는 아주 머리를 左右로 내흔들럿다 『파시스트』 四寸間에도 利害앞에는 아모것도업다 『聯盟排擊』에서 『聯盟加入』으로 急角度의 政策上 方向轉換을 하는것도 自國의 安全保障上 利點이잇스면 斷行한 蘇聯이잇스니、『고양이눈동자』처럼 變幻無變한 오늘의 歐洲政局에 그리 異常한일도아니다。



(宗敎化하는나치스샐룻)

### 汎伊太利政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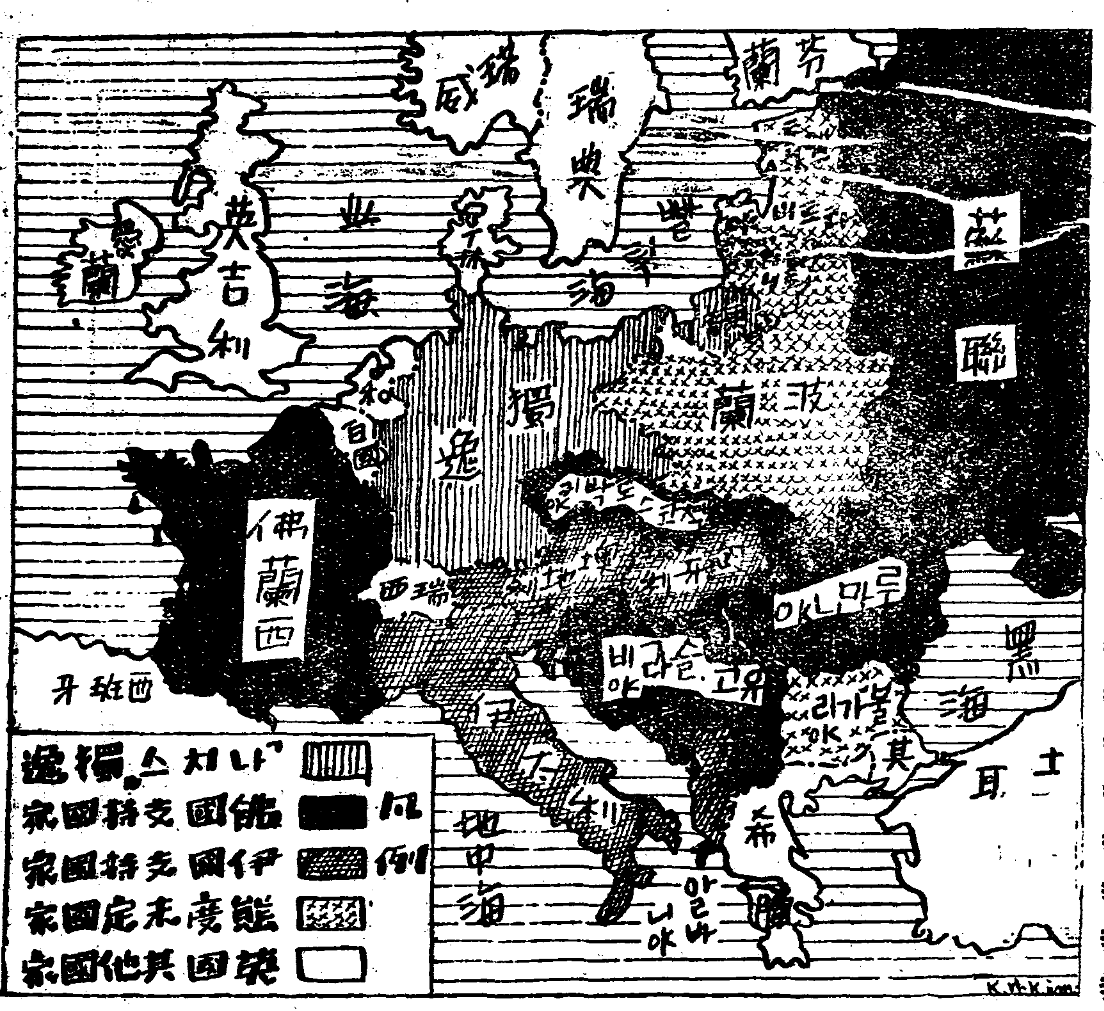
이에 조금 詳細히 伊國의 汎伊政策이란것을 歷史的으로 觀察하건대 伊國은 周知하는바와가치 大戰當時 巴爾幹半島의 아드리아틱對岸進出 近東及亞弗利加獨領에의 進出을 條件으로 獨墺伊三國同盟에서 約變하야 英佛協商國側에 加擔하얏든것은 亦是 當時 巴爾幹과 近東에 乘涎하고잇는 汎獨主義와 또 汎슬라브主義를 牽制하는 機會를 짓기 爲한것이엿다 그리하야 大戰이 끗난 結果 前記 汎獨、汎슬라브 兩大勢力이 退却한 틈을 타서 伊國은 汎伊政策에 着手 그第一步로 一九二七年十一月 『알바니아』와 攻守同盟을 締結하야 그保護國化하고 墺匈兩國과 提携하야 漸次 佛國의 衛星國인 小協商國(유고슬라비아、루마니아)의 三個國과 角逐하야 巴爾幹半島에 覇權을 確立하려는 途程에 잇섯든것이다 그런데 나치스獨逸이 이제 墺國을 合倂하야 汎獨的勢力이 南下케되는것은 八千萬人口의 强力한 汎獨國家가 隣接形成되야 國境을 脅威하는것일뿐아니라 大戰에 依하야 割譲받은 獨逸系 住民 二十萬이 사는 『티롤』地方의 不安을 增大하는 點에 잇서서도 伊國으로서는 默視할수업는 大問題라고 아니할수업다。 伊國이 一九三三年爾來 꾸준히 伊墺合倂에 反對하는 示威로서는 『티롤』地方에 軍隊를 集中하고 法理上의 방패로는 墺國의 獨立保障에 對한 共同宣言을 英佛兩國으로 더부러 再確認케하기 爲하야 神通치안케 생각하는 베르사이條約、산제르만條約까지를 내두른것은 이러한 事情에 基因한것이다 伊墺匈三國協定은 佛國小協商國의 巴爾幹半島를 中心으로한 連繫에 均衡을 保持하는 一方에 汎獨勢力의 南下를 阻止하는 點에서 出來된 一九三四年에 特記할 新外交 『뿔락』의 形成이다。

### 三大外交뿔락

이리하야 歐洲에는 復讐의 精神 [illegible] 나치스獨逸의 反擊을 制止하고 經濟的으로는 互惠協調할것을 內容으로한 佛蘇兩國及 小協商國連繫의 優勢한 大外交뿔락과 一方에 될수잇는대로는 聯盟機構內에서 國際 … 서도 떼로는 佛國의 强大한 勢力을 누르려고도하고 獨逸의 再軍備를 容認하자고도하면서 歐洲大陸의 勢力均衡化를 外交政策의 指導原理로하고잇든 英國과 잇다시 義和國獨逸에 中立國을 一聯으로한 中立勢力 『뿔락』과 伊墺匈의 『뿔락』과의 三大 『뿔락』이 出現한셈이다 그러나 獨伊墺匈 『뿔락』과 『佛蘇뿔락』은 勢力均衡을 企圖하면서도 一方에 協調와 連繫를 併行하고 英國中心의 中立勢力은 그保守的勢力의 代辯者 現任相 『싸이몬』氏가 七月의 上院演說에서 『英國의 國境은 라인河畔까지 擴大되엿다』고 絕叫하야 英國은 歐洲平和維持에 責任이잇고 超然할수가업다는것을 指摘한것과 이에 이어서 十月九日 마르세이事變의 『여운용이』에 不意作放한 바르투佛外相의 倫敦訪問의 成功된 結果에 依하야 英國政府로써 公式으로 佛蘇뿔락三國을 中心으로하고 獨波西國이 加入을 反對하는 東歐로카ー노條約成立을 贊成하는 言明을 하게한것을 參酌하야 보면 이 『뿔락』도 亦是 『佛蘇뿔락』과는 友好關係를 保持하고 잇는것으로 確認할수가잇다。 이러한 能態은 또한 逆으로 뭇소리니로하야금 東歐로카ー노條約 締結을 贊同케하는 原因이 되엿다。

### 獨逸包圍政策

東歐로카ー노條約이란 조케 말하면 라인以西의 安全保障을 再確認한 『로카ー노』條約에 對應하야 라인以東의 安全保障을 再確認하는 同時에 나아가서는 安全保障에 對한 破壞行爲를 締結國間의 兵力輸送에 依한 相互援助에 依하야 積極的으로 確保하자는것이오 조치못하게 말한다면 恐獨病(所謂 Germanophobia)의 佛國이 亦是 恐獨病과 他方에 極東에 잇서서의 日本과의 緊張한 對立을 그西部國境安全保障確保로써 牽制하려고하고잇는 蘇聯을 聯盟加入斡旋의 『미기』로써 끄러다가 獨逸包圍陣(所謂 Encerclement)을 形成한것이라 할것이나 어떠튼 그것이 歐洲의 現狀維持를 企圖하는 點에서 運行된것은 獨逸의 『베르사이體制』改訂으로써 現狀破壞를 하려는 國民的衝動을 너머 誇大評價한데서 나온 程度넘은 防禦工作이라고 할는지도 모르지마는 科學과 技術이 卓越한 나치스獨逸이 언제 엇더한 物的環境을 뚤너 突進할는지 알수업는일이오 더욱이 現在 獨逸은 그聯盟脫退에 依하야 軍事役를 크게 增大하야 自主的으로 高度軍備를 急行하고잇는 狀態임으로 大戰爭時 『베르단』의 猛殺과 그 『쳅펠린』機空襲과 그潛航艇의 破壞工作과 그化學戰의 쓰라린 經驗을 가진 佛國으로서는 이제 이르러 聯盟外交의 花形 『뿌리앙』과 社會民主黨 獨逸의 協調的外相 『스트레제만』의 『사랑』도 죽고 그의 『精神』의 遺產인 『로카ー노』精神이 『나치스』突進面에 依하야 完全히 消滅되고 잇는만큼 이러케까지 警戒하고잇는것도 無理는 아닐것이다。 이리하야 一九三四年의 歐洲外交舞臺는 뿌리앙死後의 名外交家 『바르투』佛外相과 『리트비노프』蘇聯外交人民委員長의 共同主役으로써 『스타투스、코』(Status quo 即現狀維持)劇이 일족이업는 맛쇼反맛쇼騷亂과 『데로』와 『飢餓』과 『失業』의 一聯의 社會不安中에서 演出되여 『발런스、쉬ー트』의 貸方을 印刷한셈이다。 그러나 英國中心의 中立 『뿔락』이 不即不離의 態度에서 나아가 『스타투스、코』劇에 助演이 되엿다는것은 『나치스』獨逸의 切齒腐心할 일이엇다。 孤立에서 孤立에! 나치스獨逸에게 남은것은 오즉 『孤獨』그것이엿다。 現狀에 對한 破壞와 維持의 衝動은 戰爭과 平和의 兩個伏線으로써 表示할수잇는 오늘의 複雜한 歐洲政局에 잇서 『베르사이』條約은 一九三五年에도 나치스獨逸의 國民社會主義의 咀呪하고도 남음없는 課外가 될것이다 (繼續)




上揭地圖는 歐洲의 各國外交關係圖

楊口

楊口土曜會

朝鮮料理 春楊館 主 金鈴紅 技藝 車松竹 同 金菊姬 同 金弄玉 同 朴連月 同 金貞心 同 池山紅

楊口郡敎育會

合資會社 楊口酒類釀造商會 代表 崔防鉉

百貨問屋 太應善支店 主任 金寬煥

楊口郡南面 職員一同

楊口面事務所

方山面職員一同

楊口儒林一同

方山面長坪里 田寬富

孫徽在

楊口森林保護區 村松忠治 李昌林

楊口金融組合 長坪支所 朴東燮

方山面協議會員 孫潤在

江原道水入森林保護區 職員一同

水入面事務所 面長 朴瓚洙 書記 李善載 同 李燦濬 同 黃德珍 同 李憙根 同 金錫範 同 朴秉文 技手 尹興洛

水入面協議會員 朴昌洙

水入面冶里 有志 朴漢洙

楊口郡文登里 絹紬石油雜貨木物 松田商店

江原道楊口邑上里 楊口商會 主 [illegible]東洙

北面事務所 職員一同

楊口面 協議會員 趙麟默

濟衆醫院 院長 朴敏植

深谷寺 住持 嚴枕松

傳道婦人 李淑鍾 保姆 崔孝敬 牧師 鄭基鍾

江原道楊口 玉慶植醫院

亥安 醫生 李文卿

楊口郡亥安面 職員一同

中華料理 東亞園 主 宋吉才

內鮮旅館 主 安榮植

第一商會 主 金聲鎭

絹紬布木 貨泉商店 朴萬善

亥安市場 絹紬布木 金憲植商店

雜貨商 旅館 平田與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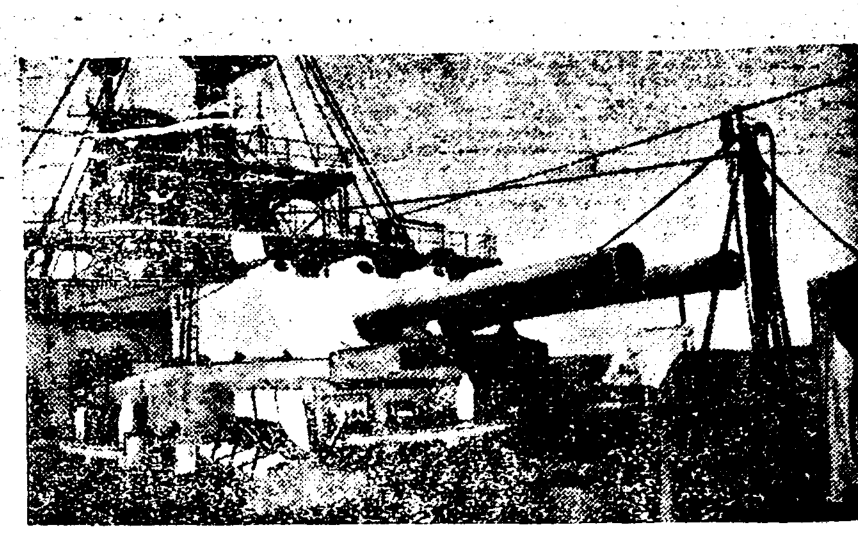
江原産業物 委託販賣 江原商會 主 張碩圻

行政司法代書人 文相龍

東面林塘里 東濟醫院 院長 申瑞永

楊口北面三巨里 新興商店

楊口郡方山面 土田正藏



# 軍縮會議의展望

## 軍備의特異性·그制限方法

駿鄕生

### 軍備完全撤廢 全然히無可望

現下各國의政治家나 外交家가 妥協을善心하고잇는가? 입과붓을모아 平和를부르짓고잇건만 엇재서各國은 軍備를必要로하는가?

(一) 國內로人民府各의支配가 발뜻이 順調로울것이아니라治安의維持를爲하야 軍備를要하는것

(二) 國外로權益의擁護와國勢의伸長이또한容易할것이아니라 諸國과의對立的 見地로보아서도 軍備를要하는것

이와가티 對內對外로軍備는要方의巨大한意義를 가지고잇스니 오늘날에잇서 그完全한撤廢란到底히가망도업는일이다。要컨대現下의政治外交家가부르짓는平和도 萬一그實現의努力을떠난僞善的言辭가아니라면結局軍備의 存在를前提로한暫定的平和에지나지못한다。

그런데이미各國은 軍備를必要로하는것이 事實이어니 왜또軍備의縮少를爲하야 五相의折衝과

(一) 軍備의對內的意義로볼때에는 어느程度까지로充分하다고認定되는同時 곳그以上의擴張이所用업스나 그對外的意義로볼때에는 五相의比較로서그優劣의形勢가들어나는것

(二) 自國과他國의 軍備를比較하게됨에딸아 五相擴張의競爭이玆地되지안는다면 五相縮少의協定을 마지못하는것

軍事家의말을드르면 外交는곳平時의 戰略이라고하니本來부터軍備縮少의協定이란平時戰略에依한軍備의競爭이다。要컨대他國의軍備를 自國의軍備보담더만흔優勢으로縮少시기고 더不利한條件으로 縮少시기는그것이 軍縮會議에對한各國의態度인즉 結局自國의軍備를 他國의軍備보담 더만흔優勢으로擴張시기고 더有利한條件으로擴張시키려는그것과 조금도다름이업다고볼수잇다。

### 陸軍軍備縮少 不能三個理由

그러나海軍에잇서서는 일즉이華府條約 倫敦條約等을 가저어느程度의 縮少協定을 實現하고잇건만 陸軍에잇서서는 왜何等의縮少協定을 實現시키지못하고잇는가? 華府會議當時 陸軍縮少에對하야도 決코討議를 더하지안한것이아닐뿐더러 國際聯盟도 그規約第八條의 規定으로써 一切軍備의 最低限度縮少를主唱하고잇슴에不拘코 陸軍縮少는왜何等의 成果를거두지못하고말앗는가?

(一) 軍備는大槪機材、人員、經費의세部門으로區別할것이나 이세部門을通하야모다現實軍備와潛在軍備가잇는것。即첫재機材로보아 現實軍用機材以外豫備貯藏도 할수잇고 民間使用에 맛기어두엇다가 臨時徵發로 쓸수도잇고 그各機材의材料와生産工場을 만히맨들어가지고 應急需要에提供할수잇스며 둘재人員으로보아 現役軍人以前 豫備役도잇고後備役도잇고 其他다른方法으로訓練을 시키어서 有事的의充當을꾀할수도잇스며 셋재經費로보아도 直接軍費以外 各種의補助金、獎勵金等의形式으로도 支出할수잇는것

(二) 潛在軍備를 除外하고現實軍備만을制限한다는것은 無意味한날이로되 潛在軍備의縮少는 어느程度까지 어떠한方法으로 制限하랴가困難한問題에屬하는것。即다음날 軍用機材로轉化시킬수 잇다고하더라도 方今民間使用의機材를制限한다는것도問題요 또다음날戰時를 準備하는것이라고하더라도 그各機材의 材料나生産工場을 制限한다는것도 問題요 그뿐아니라 그本意가軍備에잇다는것을 明確히斷定한다 손잡드라도 各種補助金 獎勵金의支出까지를 制限한다는것도 問題이것。

(三) 現實軍備와 潛在軍備의 關係가 가장複雜한것은 陸軍 그다음이空軍 그다음이海軍으로써 陸空兩軍보담 그制限이 比較的簡單한것。即첫재로海軍의 艦船은 平時의 保管이곳바끼들어나서 豫備貯藏도 할수업고 民間使用의 商船을가지고 代用하는것도 어떠한種類와 어느程度에 局限되고艦船의材料를 準備해두는것도 그製造에 다시相當한 時間을要하게되며 둘재로 海軍의兵員은目下艦船에 타고잇는 數와 그補充上必要한 數以外그以上所用이업스며 또셋재로 海軍의經費는 商船의 補造維持等을爲한以外 補助金과 獎勵金을使用할方途도 別로이잇지안타。

그와가티 海軍의 縮少는艦船만制限하면 人員、經費의 制限이自然히 伴隨되야 그制限의目標도 簡單커니와 艦船은潛在軍備의準備가 極히困難한만큼 그制限方法도 比較的容易하다 陸軍의縮少가 實現되지못하고海軍의縮少만이 成立되데 對하야오즉이한가지의 原因을 唯一의原因으로드는것은 아니겟지만 그것이 그重大한 原因된을일치안는다고 斷定하야도無妨하다。

### 海軍軍備의 三大縮少方法

그러나그艦船을 制限하는데는 種種의 方法이잇슬것이아니겟는가? 大體어떠한 標準으로써 그方法을區別하는가?

(一) 量的制限 艦船의噸數를 制限하는것이니 그中에는 各種艦船을合하야 總噸數만을制限하는것 各種艦船을區別하야 다각각의 噸數를制限하는것이 두가지를併用하야 總噸數를制限하는同時 다시그各個의噸數까지를制限하는것等의세가지方法이잇는것

(二) 質的制限 艦船의性能即攻擊力으로서의 武力과 航續力과 그攻擊力으로서의 速力 氣力 力 飛行機搭載力과 또는그防禦力으로서의 裝甲等을制限하는것이니 各種艦船을通하야同一한制限과艦種別로 하는制限의두가지方法이잇는것

(三) 綜合制限 即質量兩方面을한께參酌하야行하는制限이것

上述으로써 아미우리가軍備의軍縮의意義 乃至海軍의特徵으로因한海軍制限의 容易性과海軍制限의各方法을 多少究明한바이 잇스나 우리는다시 또한가지의重大한疑問에 逢着하게된다 그重大한 疑問이란 곳華府倫敦兩會議에서이미協定하야노흔海軍縮少條約의持續이왜 이제이르러困難케되느냐그點으로써 나는다시거기對한若干의檢討를더하지아니치못한다。

(一)大戰以後歐洲各國은 戰爭의結果로因한 財政的窮乏을避하고여러가지關係에依한國內人心의動搖도安定시키기 爲하야는相對的 安定을 全力케는때軍縮條約을 成立시키기에이르렷스나 現下에잇서多年의恐慌이緩和되지안코 뿔럭經濟가強化케됨에딸아 各國의尖銳한對立은 危機의前夜를意味하게된것。

(二) 그두條約아래不利한協定을맛게된나라들은 그當時의事情으로 平時戰略의敗北을當하야왓스나 이機會에잇서그改定을부르짓게되는것

華府倫敦兩條約의締結은 決코어느나라의 外交家가能熟하엿다든어느나라의 外交家가短見이엇다는것만으로 基因한는것이 아니거기에는그보담도 그當時의世界情勢가 움죽이어잇다는것을 알지안하면안된다。萬一 그러타고본다면 世界情勢가 變해진오늘에이르러 그두條約의 持續이問題삼게될것이 必然한歸結이라고認定할수잇다。(계속)

◇華府條約固持者、스탠드레와데비스◇

# 日本의政治動向

成仁基

非常時니 危機니하는말은對內的보다도 對外的을意味하는것이다 一九三五年即昭和十年은 日本이 聯盟脫退通告後滿二個年의期間이 終了되는해임에딸아 自然委任統治問題가 登場될것이며 連하야 日本의防守同盟國인 滿洲國을 中心으로한 極東의風雲險惡도 全然度外視할수업는一方 倫敦條約에依하야 同條約參加國은 海軍軍縮問題를 論議코저會議를 開催하여야될해인즉 海軍軍縮問題가 各國間에圓滿히解決된다면 己어니와 不然하면列國間의 建艦競爭이展開될것은必然한情勢이다 또一九三六年에는 華府條約도 滿期되는터로 萬若이條約에代할 新海軍協定이締結되지안코 全然無條約狀態에 陷入하[...]로 어느때에는곳에서 一世界大戰이 惹起되지[...]는現狀이다 一方 貿易關係에 잇서서도 金輸出禁止後爲替低落에 依하야 一時飛躍的發展을 繼續하든商品은마침내 輸出國의敵愾心을 招致하야 方今에는 四面楚歌인狀態로서 印度에서 이러하며 英國海峽殖民地에서 이러하며 蘭領印度에서도 이러한터로 日印會商日英會商 日蘭會商을開催하야極力貿易關係好轉을 꾀하엿고 또꾀하고잇다 岡田內閣은『內로外侮를 밧지안할만큼 軍備를忠實히하고 外로積極的平和工作을 進行한다』는 所謂廣田外交政策에依하야 一方軍備를充實히하기를 겨울이안는同時에 一方으로平和外交工作을 繼續하야 倫敦海軍軍縮豫備會談에對하여는 그 確乎不變하는 根本方針을貫徹코저努力하고잇스며 오래도록交涉만 繼續하다 中止하다하야 一時에는 日蘇戰爭必至說까지 喧傳케하든 北鐵讓渡交涉에 關하여도 如一꾸준히 斡旋하고잇다

後者에잇서서는 이미主要原則은 大槪意見이 一致되고 只今에는다만細目協定交涉만 남엇슬뿐임으로外交事라 豫測키는어려우나不遠間에 말성만튼極東의癌的存在이든北鐵도 日蘇滿間의 手中에歸屬하게될結局滿洲國의 手中에歸屬하게될 듯이觀測된다 그러나海軍豫備會商은 昨年六月에開始되야七月에 一時休會되엿다가十月에再開되야今까지 일으도록長久한時日을消費하엿스나 아즉도日米의對立이如前하야 決裂이나妥協이나하는것까지 豫測할수업는 한狀態를支續하고잇다。日本의要點은 結局現狀打破냐現狀維持냐하는데 歸着되는터로 即日本이

가、國防平等主義를 確立하야各自의國民으로하여금 國防에對한脅威感을업게함 딸아此主義에反하는 比率主義인現行華府倫敦兩條約을廢棄함

나、이에代하야 새로締結할海軍軍備制限條約은、攻擊하기에不足하고 防禦하기에足한程度로 一律總噸數主義에依할것

다、攻擊的武器인 主力艦、大航空母艦을撤廢하는것

이라는 所謂三大原則을貫徹하려는데對하야

**米**國은 어데까지 現存比率主義原則 維持를 固執하야 조곰도서로讓步하지안코 對峙하고잇다 英國은居其中和協試案을提示하야 日米兩國의對立緩和에努力을 繼續하나日本은 名目만으로平等權을認하고實質로劣等한 海軍力을强要하는妥協案에는 同意할수업다고固執하며 米國은名目으로라도 平等權을 許與함은不當하다하야 이亦會談決裂、建艦競爭도不辭한다는 强硬한態度를表明하야會談은全然進展되지안코 드리혀停頓狀態에 빠지게되엿다 이와가티서로겨고는中에 日本政府가十二月二十二日에 華府條約廢棄通告를發表할事情을 聲明하얏다는報道가 傳하자米國代表部는더會商을 繼續하여도收穫이업슬것이니 日本政府의 華府條約廢棄通告를 契機로會談을中止할것이라는旨를 表示하야會談中止의責任을日本政府에轉嫁식히려하매

**英**國은 萬若이것을契機로 會談을中止한다면 다시 會談을 繼續할可望이 稀薄하겟슴에 鑑하야 英政府는日本政府에게될수잇는 限廢棄通告期日을一九三四年內에잇서 延期하기를希望하는同時에 米國代表部에게 對하여는 日本政府의廢棄通告가 잇기前에 休會하자고 提議하엿다 이提議에對하야 米代表部는 一時同意하엿섯스나 本國政府의 回訓을바든後 約變休會에同意할수 업다는旨를 通告하여왓다 日本側도 休會의責任을지기를 질가지안할뿐더러 來春에다시續會할 日字를定해두지 안하면 언제續會가 될지또는永永中止가 될지알수업슴으로日字確定을主張하야 休會의口實을압헤두고 三國間에猛烈한 責任回避戰을繼續하다가 結局妥協이成立되야 無期休會키로 決定되엿다 이豫備會談의 決裂은今年의本會議開催까지 左右할것으로 今後豫備會談이 華府條約廢棄通告에依하야 如何한形式으로 再開되야如何한 成果를 어들까는只今全世界關心者의 注目하는焦點이되여잇다

非常時內閣의首班

岡田總理大臣

### 變態內閣繼續

五、一五事變以來 政黨內閣을 一擲하고 成立되엿든齋藤超然內閣은 그럭저럭 四五次나 閣僚의椅子를가러가며 約二個年假量버티여오다가 大藏省瀆職事件이라는상서롭지못한 陋名을쓰고 掛冠되고 말엇스나 一般이꿈에도 생각지안튼岡田海軍大將을 首班으로한超然內閣이 들어섯다 齋藤內閣은 비록超然內閣이엇스나마 政友會及民政黨의支持를바더 어느程度까지의 協力內閣이엇슴에反하야 岡田內閣은 組閣方法의拙劣함에依하야 最大政黨인

**政**友會에 閣僚派遣及內閣支持를 要請하다가 一言之下에 完全히퇴짜를맛고겨우民政黨과政友會 脫黨組인床次派의支援만을 비들뿐으로 內閣의 樞要한椅子에는 官僚出의次官級을 登用하야 宛然官僚內閣인 感을주고잇다 이岡田內閣은 이미 組閣하지 六個月餘나 되나이內閣의 斷行한 政策은 삿삭치 차저보아도 그다지 보잘것이업다 이內閣의內政上斷行한것으로는在滿機構改革問題決定、臨時議會召集等을 손곱을수잇는데不過한터로 在滿機構改革問題에잇서서는拓務省案을 全然無視하고軍部案과 外務省案과를折衷採用한結果 맛츰내拓務省官吏及現地官憲、警察官들의猛烈한反對에逢着하야 畢竟軍部側과現地警察官側과의尖銳한 對立을招致하는一方 政府가原案을變更치안는限如何한不祥事를 惹起할지도모를狀態를呈하엿섯다 結局政府는 平面低身諒解運動을繼續하야 原案대로可決하엿스나 未曾有의官紀弛緩의前例를남기여 이內閣이 政綱中第一次에 揭揚한綱紀肅正問題를自殺하여버렷다 臨時議會召集도政友會로부터、屢次召集要求가잇섯스나(農村對策 米穀問題로)恒常組閣初라 아직成案을엇지못하엿다는것을 口實로방때하여온바

**不**意에 捲變한關西大風水災에依하야 不得已臨時議會를召集하고 災害豫算及在滿機構改革豫算等의 協贊을求하엿다 그러나軍部의豫算에눌리여너머나 災害豫算이少額인것이導火線이되여 드듸여政友會의所謂爆彈的動議를만나一時政府는政友會가讓步치안는限 議會解散도不辭한다는 强硬한態度를取하게되엇스나 政友會의態度軟化로災害豫算은政府原案대로 通過되엿다 그러나政友會의動議는豫算編成에잇서너머나 軍部에만偏重하고災害地及農村救濟에 薄한것을理由로政府는來通常議會에一億八千萬圓의 追加豫算을提出하겟다는言明을해야 政府가提出한災害豫算案에贊成하겟다는 것이엇다 이動議가提出되자 岡田首相은政府는緊急不得已하다고認定되는對策을講究함에는 조곰도躊躇치안켓다는言明의諒解言明을 行하엿는데政友會는 이言明이自黨의動議를 容認한것이라고 解釋하고잇스나 萬若政府가 來通常議會에 追加豫算案을提出치안는다고하면 其時에는政府對政友會의 正面衝突은 未免할것이다

**如**何튼 一部農村에는旱害、水害、冷害等으로 因하야 極度의窮乏에빠저 바야흐로 飢餓線上에서 彷徨하고잇는터로 飢寒民들은 草根木皮로 連命하여오다가그것도어들수업스면愛之重之養育하든딸을借金때問에賣喫하는現狀임으로이런情狀을目睹하는農村地方出身代議士들이 政府에災害地方을 匡救치안코도 軍備만充實히하면國防이安全하냐고肉迫하야 徹底한農村救濟實施를 要求함은 當然中當然한일이다 이에因함인지政府는救濟策의一로 食糧속에서꼼명이는피우게할지언정 내노치안튼政府所有米를 災害地元氏에게施給하야 一便으로窮乏을救濟하는同時에 一便으로人心安定思想善導를꾀하는一石二鳥策인 政府米臨時交付案을 臨時議會에提出通過식혓다

**또** 政府는 組閣初부터어떠케던지 政友會의支持를밧기爲하야努力하든남어지所謂國策審議會라는機關을設置하고 그委員에政府會의幹部를參加식혀 일홈만이나마 政黨의一切支援을 어드랴하엿스나 政友會가一次委員을派遣치안켓다고言明하자 有耶無耶中에決定을보지못하고 于今것끌고 내려오는 反面에잇서 政黨은 또政黨끼리 聯繫運動을 進行하야 重要政策을 中心으로立憲政治擁護、政黨信用恢復을 꾀하여 오든바 臨時議會席上에서의 政友會의 爆彈的動議로말미암아 政民連繫運動은一時停頓되는 同時에政友會內에 內紛이생기여旣成政黨은바야흐로崩解作用을 繼續하고잇는現狀이다 不信任案提出이나 하는政戰이開幕될것은 必然之勢이다選擧民은果然政府를 支持할것인가政黨을支持할것인가?

### 內外多事多難과 軍事費의膨大

이와가티內治外交에잇서 文字그대로 多事多難한이지음의 財政狀態는如何한가! 滿洲事變을契機로 豫算이 極度로膨脹되엿는데또다시海軍軍備充實豫算이 덧부처 그야말로 豫算編成은 二三年以來軍事豫算中心主義를繼續하여왓다 이리하야 歲入總額이겨우十四億에 不過하는터에 陸海軍豫算만이 經常部臨時部合하야十億圓을超過하는 現狀으로每年不足되는分은 全部赤字公債에 그財源을求하여왓다

**赤**字公債도 그럭저럭 約百億圓에 達하매 그利子만도 年五千萬圓式은 支拂하여야만 하는터로 公債라고 주머니끈을 풀러노코 마음대로 增發할수 업는터이다 이리하야 約四十五日동안에 局長으로부터 次官에 次官으로부터 現內閣의 大藏大臣의 자리를 시하게된 藤井前藏相은 健全財政主義를旗幟로 公債漸減政策을 固執하야 軍部及農林內務其他 各省要求에 大斧鉞을加하다가 猛烈한 再要求(特히軍部)에 逢着하야 豫算編成難에 빠저 折衝만거듭하여오다가 最後에臨時利得稅라는 增稅案(三千萬圓假量)까지斷行하고서 겨우十一月二十四日에야豫算案決定을지어 豫算編成史上에新記錄을作成하엿다 削減에또削減하고 또公債漸減政策을 固執하여왓스나 結局豫算總額은廿一億九千餘萬圓에 達하야 公債七億五千餘萬圓을發行하게되엿다 豫算中陸軍豫算이 約四億九千萬圓

**海**軍豫算이約五億三千萬圓으로陸海軍을合한 軍部豫算이 約十億圓을超過하야全豫算額의 折半에達하고잇다 이와가티 非常時를口實로軍部에 厚히한反比例로 臨時議會까지 召集하야協贊을 求하게된災害豫算(九、十、十一年度에亘하야 二億一千三百餘萬圓)에薄하게한 關係上 前述한바와가티政府는政友會의爆彈的動議를받게된것이다 渾身努力하여 豫算編成을마춘藤井氏는 過勞로 因한發病에依하야辭職한뒤에萬年藏相의卓號가잇는高橋氏가또다시藏相의印綬를띄고非常時財政難局에當하게되엿다 勿論그도即時에應非財政을버리지안흘터이나 穩健인풀레이의名歡者인만큼 그는必要에應하야 公債를增發할것은識者臨時議會席上에서 그가言明한바에依하여도推測할수잇다 果然그는今後에 다처올財政難局을 克復키에如何한政策을施行하려는지?

**以**上에서 略述한바와가티 現下日本의政治情勢는참으로 多事多難하다 辭府에서四二對一의 苦杯를마신後 勇敢히聯盟脫退를斷行한지 約二個年이되려는이때에또다시今番에는 華府條約廢棄通告를斷行하야、日의確乎不拔한對外方針을表示하는一方 國內에잇서서는 從來의政黨者流의 容喙를不許하고 五相會議와가튼 一部重要閣僚들의 意思를尊重히하야軍備充實思想善導等 온갓將來할危機에對한 準備를敢行하고잇다그리하야 英國이무엇이며 米國이무엇이야라하는 態度를取하야 無條約狀態下에 建艦競爭을開始한다하더라도 財政上秋毫도 痛痒함이 가아니라고말하고잇다 (커트는 協調外交 政黨、軍部의三側面)

無號 李漢福氏 試筆


# 恭賀新春

北平

泰昌洋行 崔元植 電話東局七六五號

亞東公司 矢後雄平

朝鮮人會會長 高岡 電話東局二八七一號

朝鮮民會評議員 崔用大 電話東局三五九號

大昌洋行 主李昇彦 電話東局七五六號

北平朝鮮人會朝鮮人會委員 北平朝鮮人會副會長 宋百憲 東電四四五三

朴文斗 南局四〇二六號

吳東起 吳秀煥 電話南局二二八二

北平崇文門內船板胡同五十號 高麗淸心丸代理店 柳石山 電話東局二七三五

北平洋行 主文炳龍 東局一二四三

學務委員 金淳民 電話南局三三〇一

北平朝鮮人會第一區區長 金敬哉 電話東局四二八六號

北平朝鮮人基督敎會 金思牧

金記洋行 主金鶴圭 朝鮮民會三區區長 電話東局二六一四號

北平西城護國寺棉花胡同卅二 三成洋行 主安基廷

石岩驛鐵道官舍 山田通治

石岩驛前金星商會 主金寶鎬

京義線石岩驛前 順和醫院 醫師尹奎瑞

金孝滿 電話東局五八七

東單二條胡同五號 智得成

東岩面長 金潤一

京義線石岩驛前 黃海旅館 主黃金祚

金殷民 電話東局一四六七號

朝鮮料理店 主金景波 北平東城三元菴二號 電話東局一二三四號

李智用 東局二二八八

誠壹洋行 李永浩 東局三八〇三

淸亭 平北定州郡馬山面淸亭洞

定州納淸亭鍮器株式會社

定州郡馬山面 淸亭公普通學校

無名氏

金城洋行 主金良鐸 電話東局二六九三

三登

江東郡三登市 宮公署用達 增田商店

定州郡馬山面淸亭洞 日鮮中華料理 淸亭舘 主金昌元 妓生 鄭海月 同 金杏花 同 朴玉珠

定州郡馬山面淸亭市 至誠醫院 東京醫學士 金玉錫

江東郡三登市 布木商 金基淑

安東洋行 主崔聖道 電話東局二五一四

江東郡三登市 穀物商 韓應龜

淸亭燒酎釀造所

定州郡馬山面淸亭郵便所 所長 大期與次郎

喪中이옵기年賀를缺禮하옵나이다

定州郡馬山面 淸亭金融組合職員一同

泰明洋行 吳元基 電話東局二五七九

江東郡三登市 司法代書人 金龍性

定州郡馬山面淸亭洞 司法代書人 崔致恒

定州郡馬山面淸亭洞 司法代書人 朴夏徵

同記號 趙承玉 電話東局四一四七番

石岩

京義線石岩驛前 光明旅館 信明相元

定州郡馬山面淸亭洞 新義州電氣株式會社淸亭營業所 林鐵俊

定州郡馬山面淸亭洞 中華料理 雙興園

# 蔣介石獨裁政權과 南京統治의前途

## 統一에의陣痛과反蔣陣營

李元坤

### 五全大會가 延期된眞因

國民黨의 獨裁政權을 解消하고 新憲法을發表하야 全國民에게政權解放을 約束한 國民黨第五次全國代表大會는 黨規에依하면 再昨年秋에 開催키로되엿스나 南京에依하야 昨年으로延期되엿든것이다 所期의十一月十二日에는 大會를召集하리라고 一般은期待하엿스나 南京政府中央政治會議는 突然態度를一變하야 中央執監委員全體會議에서 五全大會의開會日字와議題等을 決定키로되엿다는旨를發表하엿다 五全大會를 再次延期케된 理由는 『剿匪部隊의 將領中에서 多數將領들이大會에 出席케하는것은 剿匪軍事에 莫大한支障을招來할것임으로 大會를延期하라』는 蔣介石의電請에依함이라하나共軍討伐을 憑藉하는것은 表面上理由로 實相은 그것이안이라 西南派의反蔣態度와 北中諸將領과의安協이 意外로 圓滿치못하엿든까닭이다

五全大會의 中心議題는 憲法草案審議다 일즉 立法院憲法起草委員會에서 作成한 憲法草案中에는 孫文逝去後 故孫總理에對하야 敬意를 表하는 意味에서 于今空席으로 두엇든『總統』制를復活하야 總統을 國家의元首로하고 同時에 政府의首長으로하야 行政 立法 司法 監察 考試等五院을總轄하며도 各院部長을直接任免하고 陸海空軍을統率한다』는條項이揷入되여잇다 비록法律로는規定되여잇지안트라도 蔣介石의 實際上權能에잇서서는 總統의 그것과 조곰도다름이업다 現國民政府主席 林森老人은 一個의[illegible]에 지나지못하며 行政院長汪精衛도 모든 問題를 實行하기前에 먼저 蔣介石의同意를 求하고잇다 現在南昌行營의 諸否가 中國의 動向을決定하고 잇스며 諸問題의最後의解決權을 掌握하고 잇는以上 蔣介石으로보면구타여 五全大會를 開催하고 憲法問題를決定할 必要를늣기지안흘것이다 萬一五全大會를開催케되면 그代表는 北中 西南等南京政府의 實權이直接밋치지못하는 地域으로부터서도 오게된다 即反蔣派의代表도 參席케될것이다 그러케 되다고하면 모처럼 蔣介石의獨裁政權을 合法化하려는 大會가意外의逆襲을當치안흐리라고도 保障할수업게된다 여기에 곳蔣介石의 焦燥가잇는것이다

### 政戰의豫備를爲한休戰

五全大會를압두고 中央派의準備工作은 實로猛烈하엿다 十一月十日에는王寵惠가 同三十日에는 王寵惠,孫科兩氏가 香港에胡漢民과 廣東에陳濟棠等西南派의要人을訪問하고 說服하기에努力하엿스며 十月上旬에는 蔣介石이親히 武漢으로赴하야 兩湖將領과會見한後河南 陝西 甘肅 山東等各省을巡廻하고 北平을거처綏遠 山西를歷訪하면서華北政界要人들과會談하엿다 蔣氏去般北中歷訪은 身病治療와討共에對한軍事上協力을 憑藉하엿스나其主要目標는 첫재로 五全大會를압두고 反蔣氣運이濃厚한 西南派와의呼應을 防止키爲한 豫備的手段이엿스며 둘째로 北中諸要人과의關係를緊密히하야 五全大會가開催될때 自己의 立場을有利케하기 爲하엿슴이며 셋재로 西南派에對한 協威策으로 北中方面과의 關係를強化키爲함이엿다

上述한諸準備工作이 어느點까지奏效되엿슴인지『中央對西南派의武力衝突』까지 念慮되든西南派의反蔣的態度도 얼마큼緩和되여 胡漢民의入京까지는 實現되지못하엿다 할지라도 十二月十日南京에서 開催된 五中全會議에西南派도 代表를列席케 하엿다 그리하야 五中全會議는 全委員一百 六十七名中 一百三十餘名의 出席 이라는 好成績으로開會 되엿스며 議事도 順調로進行되여 主要議題인 五全大會의開會日字는 明年十一月十二日로決定하고 十五日에無事閉會하엿다 그러나五中全會議가無事히閉會되엿다는 事實은 決코西南派의反蔣態度解消를 意味하는것이안이다 그것은對中央의一時的政戰休止라기보다 明年에開催될 五全大會를압두고各派의『政戰準備를爲한政戰休止』라고보는것이 妥當한觀察일는지도모른다그리하야 蔣介石一派는 憲法草案에規定된 總統制問題를 來五全大會에잇서서 自派에有利하도록解決케하기에努力할것이며 反蔣派는 同問題가藍衣社其他蔣介石一派의뜻대로 進展되는것을쩌리고 反蔣派의陣營擴大強化에 注力할것이다 그리기에西南派가 南京政府에 提出한五全大會의 議題에反對하야『一, 獨裁를 匡正하고 憲政時期의軍政當局을 保障할것 二, 社會를 混亂케하고 黨國에危害를 及케하는 逆賊을 嚴罰에 處할것等』條項을 提出한것은 國內輿論을煽動하야 反蔣氣運을 促成하야 써 滿洲事變과 對日屈辱外交에잇서서 蔣汪兩人의責任을糾彈하고 憲法問題를決定할것이라는 我田引水策에서나온詭計에不過하는것이다

### 反蔣運動의 歷史的由來

反蔣陣營을 展望하기前에먼저 反蔣運動은 어데서 생겻는가를 述하여보자 中國은古今을通하야 誰何를不問하고 權力者가出現하야 王座에오르게되면 傍觀者는 決코 默過치안허왓다 반드시機會를엿보다가 끌어나리는것이例事다 辛亥革命後 帝政을廢止하고 共和制를實施하엿스나 今日까지『完全한統一國家로서의 中華民國』은 理想主義的政客의한갓空想에不過하여왓다 封建的色彩가濃厚한大小軍閥은 依然群雄割據式으로 嚴然한存在를갓고政權爭奪과地盤獲得戰을일삼어왓다 그리하야武力만잇스면天下는내것이라는것이 今日까지나려온軍閥間의 共通된心理다 그러나蔣介石에잇서서는 單純히 이것뿐이안이다 反蔣派의입을비러말하면『그는叛逆者다』北伐에同道한共產黨을 上海占領時에 [illegible]와가티 버서버렷다 그뿐안이라殺戮逮捕酷歷으로 對하엿다 다음에 陳友仁 徐謙 張發奎等武漢派와國民革命의『第一線에서 辛酸을가리한 李宗仁 白崇禧 李濟琛等廣西派가 中央으로부터떠여낫고 다음에馮玉祥 閻錫山 그리고胡漢民派에잇서 [illegible]을가진陳銘樞까지도 同一한運命을當하엿다 即蔣介石의 直系가아닌者는 國民黨이건 辛酸을가리지안코 革命同志이건誰何를 莫論하고 容赦업시中央으로부터모라내엿다 그러나自己心腹에對하여는 어데까지寬厚하다 蔣介石이이런 派閥性이一面에 忠實한 部下를어든反對로 他面에잇서 多數한政敵을만드러 今日에反蔣勢力을釀成한 原因의하나이되엿다

福建事變後 反蔣陣營은 자못寂寥하야 江西共匪를除하고는中央政權에對하야 正面에서 拮抗을試할世이업섯다 그러나最近五全大會를明年에압두고 反蔣陣營은또다시 活氣를띠게되여 十二月十三日通信에 依하면 胡漢民 陳濟棠 李宗仁 等西南派要人과 馮玉祥 蔣鼎文等 北中將領二十七名은 連名으로 通電을發하야 擧者蔣汪兩人이 全國和平統一을爲하야 全國에協力을 求한데對하야『蔣汪이 입으로만平和統一과 均權을說하면서 國民의總意를蹂躪하고 國務를壟斷하는것은 國民을欺瞞하는것이며 孫文의英靈을모독케하는것이다』라고痛烈한駁擊을加한것은 五全大會를압두고 反蔣派의中央에對한態度가 如何하다는것을 如實히말하는것이다

### 反蔣諸勢力의陣容一瞥

이제反蔣陣營을一瞥하면 第一에西南派 第二에共產軍 第三에北中諸勢力 第四로邊彊諸省을擧할수잇다

西南派의反中央的態度는 其淵源이相當히깁흐나 그것은決코主義上對立이안이다 西南派도 中央과가티孫文主義를 信奉하며따라國民黨을 唯一政黨으로承認할뿐더러 그들과同一한國民黨의黨堂한黨員이다 다만反對하는것은 蔣介石의 軍事獨裁와 對內對外的諸般政策에잇서서는 그리고西南派는 主義統一된勢力이안이라 다만反蔣觀念에서 結合된 諸勢力의協同戰線이다 거기에는廣東財閥을背景으로한 陳濟棠等의實力派와 胡漢民 鄒魯 蕭佛成等의文治派와 李宗仁 白崇禧等의廣西派가合流되여잇다 現在西南政權은 南京政府로부터 完全獨立을식혀 西南聯盟結成을 畫策하고잇다하나 其內情을 考察하면 陳濟棠은 南京으로부터每月[illegible]共費의其他로 九十萬元을밧고잇는關係上 그의態度는자못模糊하다 그리고胡漢民도近日에와서는實際政治에 그리熱意를가지안는感이잇다 香港의[illegible]에서 南派의自然과 벗하는것으로보아 그의心境如何를 推測키어렵지안타 그럼으로中央은 歷次代表를南下식혀 陳濟棠을說服하는一方胡漢民의外遊를慫慂하야 其勢力分解에努力하고잇는것이다 그러나白崇禧 李濟琛 李宗仁은 歷史的으로蔣介石과合流할수업게되엿다 西南派의主導勢力은 現今後方에蟄居하야 廣西建設에沒頭하고잇는廣西派다

### 蔣政權의強敵인共產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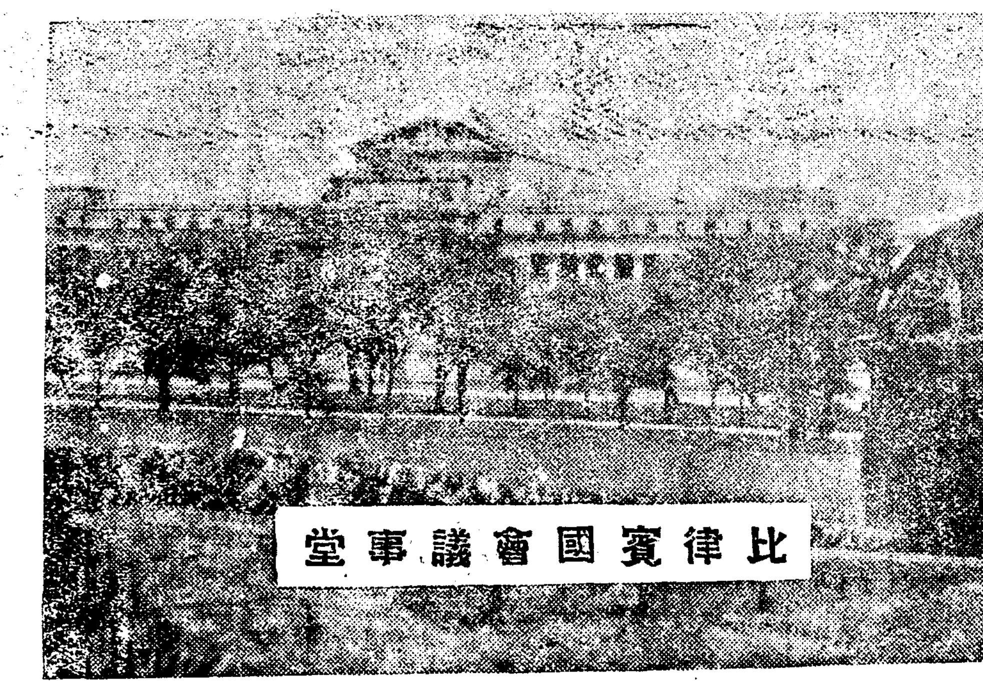
蔣介石獨裁勢力에對한 强敵은 무엇보다도共產軍이다 勿論蔣介石의現勢力을倒潰할만한 實力은 업다할지라도 그러나 蔣介石의힘으로는 到底히 討伐할수도업는存在이다 비록現在는 江西省의 地盤을放棄하고 西遷途中에 잇스나 萬一 그들의計畫이 實現되여 四川의共軍과合勢된다고하면 압흐로 中央政權에對하여는 從來以上脅威가될것이다 現在共軍이갓고잇는二十萬의赤軍그것이問題가안이다 軍閥의收奪과 土豪劣紳의無理로부터오는 農村의窮乏과 都市의失業群等 이모든社會的條件은 物質的으로 共軍發展의素地를提供하는것이며國民黨의官僚化와 蔣介石一派의맛쇼化等諸事實은 精神的으로中國의赤化를助長하고잇는것이다 西南派와는思想上特別한差異가업슴으로 妥協할餘地도잇스며 北中軍閥은武力으로써라도解決할수잇스나 中國現社會的條件으로부터오는 共軍은 軍閥과土豪가 存續하는限 엇지할수업는勢力이다

北中에잇서서는 閻錫山과韓復榘를처음에擧치안흘수업다 閻錫山은 山西에雄據하야 [illegible]를固守하고잇고 馮玉祥은 政治圈外에잇스나 舊部下間에서 隱然하고잇스나 그들의蔣에對한舊仇心은 오직機會만을 엿보고잇다 其外에 吳光新 陳文運等段祺瑞派 王揖唐等의 安福派 于學忠 王以哲 何國柱等의舊東北軍等等 비록現在는 蔣氏獨裁勢力미테서 微微한存在를持續하고잇스나 이것이中國政界의地平線우에서浮動하면서 蔣介石獨裁코-스에亂影을던지고잇는暗雲의片片인것만은 事實이다

最後로 西藏 雲南 新疆 蒙古等邊境諸省은 種族的 敎化的 또는地理的으로中央政權에合流되지못한다기보다도問題는 共背後에숨어잇는列强이다

### 統一運動과 蔣政權前途

中國의『깜리발지』로期待되든 蔣介石이가 北伐을宣言한지八有餘年에 아직도統一을完成치못하고 또는獨裁者로서의威令을完全히行使치못하는것은 첫재로 그는中國現在의政治經濟機構에 何等改革의手段을 나리지 못하고 다만在來의機構우에 武力과財力을 基礎한强力政治를 行하고잇는까닭이다 그는自己地盤을 擁護하는데잇서서는 누구보다도勇敢하다 그러나 列强과財閥앞헤는어린羊이다 이러한意味에서그는在來軍閥과 조곰도다른點이업다할수잇다 둘재로 列强의觸手가諸反蔣勢力의 背後에서움즉이고잇는것과갓치 蔣介石自體의背後에도 그것이잇는까닭이다 그리하야 蔣介石自派內에도 엇지나意見이 統一되지못하는 現狀이다 歐米派의意見을 尊重하자니 親日派가辭職으로서 威脅하고 國民의總意를 背하자니 對外的關係가 憂慮되는것이 오날에 蔣介石이가 當着한 디렘마이다



比律賓國會議事堂

# 比律賓獨立과 中立國化問題 (一)

韓普容

요즈음『一九三五、六年危機!』라는말이 流行된다. 그러나 一九三四年도 確實히 非常時的氣分에 싸여갓다. 日本에잇서서만 그러할뿐안이라 全世界를通하야서도 亦然하엿다. 웨? 『非常時』이며 『非常時』란 무엇을意味하는냐? 하는 說明은 여긔서 論議할배가안임으로 여러분의 解釋에맛기려한다. 그런데 이『非常時』一九三四年中에 『非非常時的』 政治的 큰産物이잇섯다면 그것은 누구나 躊躇치안코 比律賓獨立法案通過의事實을 指摘할것이다. 이것은 米比關係에잇서서만 큰事實이안이라 東洋的으로보와 乃至 世界的으로보와 한個의 큰 政治的事實로 볼수잇다. 比島獨立法案通過를 무삼理由로 『非非常時的』政治的産物로 보는나한은 뒤에 明瞭하여질것으로 밋거니와 東洋에생긴 이가튼 큰事實에對하야 新年劈頭에 이問題의 表裡縱橫을 吟味討究함이 無意味한일이 아닌것을밋고 比律賓獨立問題라는 漠然한 題材미테 獨立法案成立까지의 經過及그裏面相, 아메리카의 比島에對한傳統的政策, 永世中立國問題를包含한 獨立後의比律賓問題等을 簡單히討究한다.

### 獨立案成立經過

比律賓獨立法案은 去三月十九日及 同二十二日 米國下院及上院을 通過하얏고 同二十四日루-스벨트大統領의『싸인』을 어더米國側의 法的手續이 完了되엿슬뿐아니라 米西戰爭의 勝戰記念日인 五月一日을 期하야 比島議會도 同法案을 受諾하엿스므로 어예 比律賓獨立法案의完成을보게되엿다.

完成된 比島獨立法案은 第二回째의것이다. 第一回 比島獨立法案即 호-스=캇팅案은 再昨年一月 米國下院에서 贊成二百七十四, 反對九十四로 上院에서 六十六, 反對二十六의 三分之二以上의多數로써 上下院을 再通過하야 當時大統領 후-버氏의 否認을無效케하엿스나 獨立法案의完成條件으로 比島議會의贊成이 必要하던바 同法案은 再昨年十月十七日에 比島立法部에서 否決된關係上 못처럼 米上下院을 壓倒的多數로通過한 比律賓獨立法案도 一片의 無用的文書로 남게되엿섯다.

그러면 所謂第一回 比島獨立法案의內容은 어떠하며 후-버大統領의『싸인』拒絶의 理由는 어데잇스며 또 못처럼 獨立식혀주겟다는 米國의好意를 헌신짝가티 밧차버리는 比島議會의獨立法案否決理由는 大體 무엇인가? 便宜上 于先 후-버大統領의 獨立法案拒否理由를 簡單히 要約하면

(一) 同法案은 米國國民에對하야 比島島民에對하야 乃至世界에 對하야 米國이지고잇는責任을다하는 所以가안이다.

(二) 比島解放은 十五年乃至二十年後에 比島民一般投票에依할것이다.

(三) 同法案은 不安한世界를더混亂케한다.

(四) 同法案은 米國과의貿易에依하는 島民經濟生活을 威脅한다.

(五) 人口過剩 物資缺乏에苦悶하는 隣邦의 壓迫이잇슬念慮가잇다.

(六) 獨立後의 比島는 帝國主義的侵略의 標的이될 憂慮가잇다.

等을 列擧할수잇는데 此에對한批判은 뒤으로밀고 第一回獨立法案內容을 一瞥하면 다음과갓다

(一) 比島에 聯邦政府를 樹立하고 十年後에 獨立을許할일.

(二) 比島中立條約을 列國과締結할 權能을 大統領에게賦與할일.

(三) 軍用地保留.

(四) 獨立까지의 過渡期에 米國에無稅輸入品을 精糖五萬噸 粗糖八萬噸十 椰子油 二十萬噸 大麻三百萬噸에 制限할일.

(五) 以上物品에對하야 比島는 獨立法執行後 六年만에五分 그後漸增하야 十年後에는二割五分의 輸出稅를課할일.

(六) 比島移民의 米國入國配定은 十個年間過渡期에는 年五十人, 獨立後에는 此를禁止할일.

以上 獨立案內容에依하야 比島民이 웨? 獨立法案에 反對하엿는지를 알수잇는 同時에 한거름더나가 아메리카에서 웨? 比律賓을獨立식히려하는지 그裡面的 事情도 넉넉히 推測할수잇스며 他面에잇서 후-버大統領이 獨立法案에『싸인』하지안흔 理由는 視角을달리한다면 그亦是 無難히 看破할수잇슬것이다.

(寫眞 左는 比島愛國者 리잘-의銅像)

### 獨立法案의背景

후-버大統領의 獨立案拒絶理由를 一言으로 要約하면『아메리카帝國主義的立場에서 比島를 拋棄하고싶지안타』는것이다. 다시말하면 이主張을『美國』게 表現하기爲하야 米國式 人道主義를말하엿고 日本帝國主義의 跋扈的危險性을 指摘하엿슬뿐이다.

그러나 米國사람들이라고 모다후-버氏와가튼 思想의 所有者는안이다. 目的에 잇서서는 후-버氏와 同一 하드래도 그手段方法에 잇서서는 正反對의方面을 主張하는者가만타. 다시말하면 資本主義가 極度로 發達된米國國民들이니만치 利益을 取하되 가장 進步된 巧妙한 手段으로 自利를 圖謀하려한다. 領土慾을버리고 實利主義로 나간다는말이다.

比島獨立法案成立의 背後에는 敎會一部人士들에依한 人道主義的 엘레멘트도 全然無視할수는 업지마는 그보다도 더크게活動하고잇는것은 그와正反對인 人種的差別感에依한 比島人入國禁止의事實이라할것이다. 이것은獨立法案에 露骨的으로表示되엿스므로 煩言을要치안는다. 그러나 이것도 亦是枝葉問題다. 人類社會의 모든關係는 經濟的으로 說明할수잇스며, 經濟的利害關係로 決定되여가는것이어니와, 比島獨立法案成立에잇서서도 그主的役割은 經濟的엘레멘트에 求하지안흘수업다. 米國社會에서 比島獨立問題가 힘잇게討議되기는 一九三○年頃 호-레=슴무-트關稅法出現이 可望視되든 그때부터이다. 그리하야 未久에未曾有의 高率的關稅法이實施되어 一九三二年以來 큐바糖은 米國市場에서 驅逐을當하고 同一領土內라는美名下에 比島砂糖이 關稅업시 米本國市場에 飛躍하게되엿다. 그러나 其實은큐바糖의 實際的所有者는 米國財閥이므로 比律賓의存在는 반갑게녀기지안케되엿스며, 이傾向은漸次 比島獨立促進運動으로 轉化하게되엿다. 一九三○年以來 經濟恐慌이深刻하여은 아메리카의 經濟恐慌은 特히 中西部農民層에 尤甚한打擊을주엇다.『大統領選擧는 中西部農民層에依하야 決定된다』는 이 米國社會에 流行되거니와, 이것은 凶歉이적어 凶年이들면 中西部農民들은 政府黨에反對하고 在野黨에投票하며、明年이마치 豊年이들면 그反對로 投票한다는것이다. 다시말하면 中西部農民들은 어만치 目前利害에 關心한다는것이어니와, 農業恐慌이 極에達한 이때에 糖業者、椰子油業者 其他農産者保護를 슬로-간으로 比島獨立을 政綱에걸고 出馬한 루-스벨트의所行이 決코 偶然이안이엿든것도 여게서 明白히 되는것이다. 따러서 루大統領은 就任卽時로 議會에 敎書를 보내여 比律賓人의 非難에讓步한 妥協的比島獨立法案制定을 慫慂하야 結局 맥다픠=타이딩스案의成立을보왓스나 이 第二回의讓步的獨立法案에잇서서도 陸軍根據地保留를 拋棄하엿슬뿐이오, 經濟的條項及移民條項에는 큰變動이업시 그대로 收錄되여잇다.

(比島上院長퀘슨氏)

### 米傳統的政策

比律賓은 約一千八十三個의島嶼로成立된 群島로서, 總面積은 十一萬四千四百平方哩요, 人口는 一千三百萬假量된다. 比島土人의 太古史는 알길이업스나 東洋大陸에서 그다지遼隔하지안헛스니만치 土人歷史도 相當히길것으로 推測된다. 그러나 比島가世上에알리기는 一五二一年 西班牙 필립二世때에 마젤란이라는 사람에依하야 發見되여서 부터이다. 同群島를 比律賓(Philippine)群島라고 부르게된것도 勿論 當時 西班牙王 Philip 에서 따온것일것이다. 比島가 마젤란에依하야 發見된 二十一年後에 西班牙는 此를占領하엿다. 그리하야 約三百五十年間 比島人은 西班牙의虐政에 呻吟하여 왓던것이다. 이리하여오다가 一八九八年 米西戰爭에 依하야(巴里條約의結果) 同島는다시 양키國民을 새主人으로 맛게되것이다.

米西戰爭當時에 比律賓內에는 西班牙의虐政에反抗하는 革命黨의勢力이 相當히컷섯다. 리살-、루-나、리칼테、아기날드 等의革命黨은 當時上海에臨時政府를樹立하고 볼만한活動을 繼續하여섯다. 그리하야 一八九八年五月一日 듀위提督이 마닐라港의 西班牙艦隊를 擊破할때이든가 同年八月十三日 메리트將軍이 마닐라市를 占領하던때의 比島革命軍의助力은 相當하엿섯다. 양키들은 比島獨立을 約束하고革命軍의助力에依하야 西班牙軍을 擊退하엿슴에不拘하고 占領後에 態度를一變하야 西班牙의代로 比島에 君臨하게되엿다.

그러나 米國政界에는 當時맥킨리大統領의 帝國主義的政策에 對하야 反對한者도 적지안헛섯다. 그러한當時情勢에 影響되엿슴인지 맥킨리大統領自身까지도『比律賓은 獨立할資格이생기기까지 米國이保護하는데 不過하다』고宣言하엿슴으로 比島獨立問題는 처음부터 時間問題로 되여잇는것이다. 他面에잇서 當時在野黨이엿든 民主黨은 獨立賦與를主張하야 一九一六年 윌손大統領時代에 所謂 죤스法案으로 獨立의基礎工作을 樹立하엿스며 이番에다시 民主黨天下가實現됨에際하야 比島獨立法案의 完成을보게된것이다.(계속)


枇峴 京義線枇峴驛前 枇峴農民共生組合 玉蜀黍皮籠紙物貿易、食糧雜貨、各種石油、日用雜貨 專務 趙鳳祥 貿易部 林籌成

枇峴 白敬蘇

燒酒製造業 穀物貿易 永泉商會

枇峴金融組合 森博志

京義線枇峴驛前 枇峴公立普通學校職員一同

枇峴面事務所職員一同

京義線枇峴驛前 綿絲布 고무靴 朴興龍商店

枇峴 李成根

京義線枇峴驛前 光惠醫院長 朴寧欽

京義線枇峴驛前 穀物貿易 鹹海產物製造 海產物各種 紙物片栗、肥料 六合商會

京義線枇峴驛前 海陸物產穀物貿易 運送業石炭肥料 ㋪枇峴商事株式會社 代表者 金志文

月華面長 崔錫恒

龍川 東上公立普通學校職員一同

龍川郡東上面 面事務所職員一同

枇峴 世昌館 主崔貞鳳

京義線枇峴驛前 丸星精米所 振替口座京城一〇四八五番

京義線枇峴驛前 枇峴[illegible]店 主朴龍允

京義線枇峴驛前 信義寫眞館 申鳳國

京義線枇峴驛前 綢緞布木 各種肥料商 張枝用

京義線枇峴驛前 枇峴旅館 主朴瑞允

京義線枇峴驛前 綿絲布 綢緞雜貨 朴亨欽商店

南陽醫院 洪鍵五

義州郡月華面 金建河

枇峴 金載栒

義州郡月華公立普通學校 校長 大原義見

義州郡月華面雲峰市 申聖希商店

義州郡月華面月下洞 李恒根

義州郡月華面亭山洞 面會議員 白景清

枇峴 白仁細

枇峴芝山木工所 主崔官青

雲田

玄米製造 雜穀貿易 三合精米所雲田支店

米穀商 金善日

穀物貿易 玄米製造 雲南商會

朝鮮料理 明月館 主金光允

第一精米所 金明鉉

同仁水利組合

京義線雲田驛 ⊙朝鮮運送株式會社 代行者 營業所 金鎔[illegible]

穀物貿易 興龍商會

大田面事務所 林朴安韓金 [illegible]

雜貨商 安光七

枇峴木工所 主金時用

京義線枇峴驛前 支那料理業 宋世鉉

義州郡月華面 朴亨植

新昌商店 主白元裕

枇峴 朴鼎謙商店

枇峴 廣岩鐵工所 主白敬恒

枇峴郵便所

枇峴道[illegible] 朴鍊一

枇峴 趙鳳喆商店

月華面雲峰洞 申鳳周

京義線枇峴驛前 衆樂館 梁海雲

㋒西鮮運送店 主任 承基孝 事務 李聖發

司法代書人 崔俊三

金秉傑

日用雜貨及木材商 吉運生

金在灌

玄米製造 穀物貿易 義信商會

鄭允信

金周任

李國珪

[illegible]醫院出張所 張[illegible]東

雲田驛前 天華堂時計店

朴昌洛

金[illegible]

大昌商店 朴昌洙

李晶均

日用雜貨商 金明熙

雜貨商 金仁稷

方文鍵

[illegible]利丸

# 恭賀新春

## 江西

江西邑內 穀物貿易 肥料材木 貨物自動車運輸業 福山商會 主任 金與五

月仙、英月釀造元 大平釀造株式會社 取締役社長 晉藤久太郎 支配人 本庄又兵衛

江西邑內 江西申合會

水山面農民共生組合長 姜有興

東亞日報社江西支局長 朴潤亨

三井燒酎一手販賣 習林面特約店 主任 金丙昇

三井物産株式會社京城支店 平壤派出員

江西邑內三昌商會 精米所主任 李炳燮

江西邑內 有志 金・榮根

江西邑內 新谷政一

江西邑內 穀物貿易 貨物取扱 自家用自動車 主任 魯有臣

江西郡邑內 江西農民共生組合職員一同

江西郡班石面班二里 三井燒酎面特約店 金鉉珏

江西邑內 新聞販賣店 旅館營業 主任 金尾久吉

江西邑內朝日釀造所 主任 崔錫龍

江西邑內 三井燒酎江西郡一圓特約店 雜貨、食料品 金信商會 主任 金丙旿 代理 金丙瞰 代理 高致玩 崔用鉉

平壤府西城里 金暎旭

食料雜貨商店 主 朴聖奉

日用雜貨 康濟豊

江西邑內 朝鮮料理店 主 黃仁德

江西邑內 有志 金澤一

江西邑內 農家道具一切、肥料販賣 燒酎卸賣、カメ卸賣 主任 後藤兼三

江西邑內 亞細亞寫眞館 主任 金致殷

江西邑內 公醫 朴昇洛

江西邑內 料理屋主任 金鐘植

江西郡雙龍面基里 三井燒酎面特約店主 金基鼎

穀物貿易主 李希化

江西郡水山面古觀里 金東漢

江西邑內 宗前清正

江西邑內 倉持森作

江西邑內 鈴屋作右衛門

江西郡邑內 雜貨食料 大永社

江西邑內江西稿屋 主 朴宗學

江西郡邑內江西材木商會 主任 張文福

朝鮮料理 舞鶴館 主 鄭觀信

江西郡邑內 燒酒製造業 肥料販賣 穀物貿易 精仕上工場 主任 桂泰酉

江西郡邑內 司法代書人 鄭秀浹

江西邑內 江西邑電氣會社 主任 朴致景

西一旅館 主 吳■九

江西郡邑內 紳士 高■德

江西邑內 平安洋靴店主 李槇銘

江西邑內 中華料理 楊壽南

江西郡邑內 崔長元 金物店

江西邑內 司法代書人 朴晋燮

江西郡邑內 濟生局長 朴奎燮

江西郡邑內 司法代書人 崔榮仲

江西郡水山面佳興里 姜再興

水山面長 金萬成

江西邑內 金永福

江西邑內自轉車商店 主 洪羲謨

江西邑內 宋金三

江西邑內齒科 韓基伍

江西郡邑內ブリキヤ商店 主 金錫實

江西郡邑內金物商店 主 李孝會

江西郡邑內 秋葉屋主 秋永達

平南江西郡邑內 司法行政代書 高益杜事務所

江西邑內 加藤勇

江西郡邑內醫信商店 主 韓仁根

江西邑內 山本嘉重

江西邑內 崔槇燮

江西邑內 盧景遜

江西邑內 韓興德

江西面 朴潤柱

朝鮮日報社江西支局長 金丙旿
同 總務 高致玩
同 記者 康世晋
同 集金係 金丙瞰
同 集金員 金用澤

## 岐陽

朝鮮日報社岐陽分局長 金明洙
記者 高仁鎭
寫眞班 任炳淳
集金員 金根瑞

和洋諸雜貨 內外食料品 諸油 各種 石灰セメント 卸商 平壤府西門通 朴聖奉商店 電話一七二七番

江西郡雙龍面文洞市 江西郡雙龍面職員一同

江西郡雙龍面區長一同

平壤府南門通二丁目 諸雜貨 卸商 金兌煥商店 振替口座京城一四八九二番

平南線岐陽驛前 農民共生組合 監査 鄭■淋

平南線岐陽驛前 岐陽農民共生組合 組合長 朴■述

平南線岐陽驛前 岐陽農民共生組合職員一同

平南線岐陽驛前 春泉釀造場 役員 林濟用 同 朴述鎬 同 李鎬謹

平南線岐陽驛前 穀物貿易 釀造元 春泉商會 代表 林濟用 會計 朴述鎬 支配人 李鎬謹

江西郡普林面觀浦里 岐陽農民共生組合觀浦支部 支部長 趙有涣

朝鮮平南線岐陽驛前 岐陽醫院 院長 張浩用

岐陽 更生會

江西郡江西面■■里 區長 金明洙

平南線岐陽驛前 肥料 穀物商 新浩彬

岐陽市 梁在淳

岐陽 岐西醫院 醫師 申來鎬

岐陽市 朝日理髮館

岐陽市 金禮燮商店

東洋商事務所 李鏞根

平南線岐陽驛前 平山齒科分院 李■■

岐陽商工會社 張石岡

岐陽 共信精米所

東洋商岐陽里 金澄模

東洋商事務所 朴錫澄

岐陽市 洪鏞宇

東洋商事務所 鄭鏞濟

## 開原

滿洲國開原金華街 高粱 糯白米 機械精粱業 米雜穀輸出業 貿易 益信商會
開原郵便局私書函第十三號 長電話五三七〇二番 電略 發「シ」又ハ「シン」 受カイゲンシンエキ
高粱工場 金華街 電話四三二番
精粱工場 慶福街 電話五二七番
委託部 福昌街 電話三七〇番
支店 平壤府里門里 電話一九七三番
出張所 昌圖驛前 電話三番
取引銀行 朝鮮銀行開原支店 橫濱正金銀行奉天支店

開原驛前 特產 貿易 精米業 開原公司 電三八三番

特產 貿易 東亞精米所 電五四四 金雲瑞 陳容道 吳世熙 李同熙

滿洲國開原附屬地 三益精機 電三七〇 鄭晃桓 李奉柱 鮮于淑

開原金融會 理事 電三六〇 金輜衡 金貞泰 李承國 李晩馥 朴應禹 李旭哲 白亨澈 李春成 朴鎭燁

滿洲國開原大街四九番地 特產貿易 米精米業 朝鮮商會 電話長三九七番 發電(チ)又ハ(チウ) 私書函開原局十七號

開原附屬地 冷麵 飲食店 韓日旅館 電二九五

開原附屬地 信興號 任■道

開原附屬地 特產 貿易 東泰合精米所 電七二

南滿洲開原驛前 特產物 諸委託 精米業 一進精米所 長電話一九一番 電略(一〇)又ハ(一シン)

開原附屬地 開原殖產公司 電話六番

開原附屬地 開原朝鮮人會 電話二五三番

開原 李■鎬

開原附屬地 區長 李尙植

開原驛前 高級洋服調進 五大洋服店

開原驛前 祝鄕友 大成旅館 主 具錫書

開原驛前 大信旅館

滿洲國開原附屬地 金呂華

南滿洲開原私書函開原局二二號 滿洲開原拘鹿大街 特產貿易 米精米業 委託賣買 開安公司 電話長一〇九商・三九一 電略 發(カ)又ハ(カア番) 受カイゲンカイアン 出張員駐在地新京朝日通リ安坂新京支店 電話三八四八番 取引銀行 滿洲銀行 正隆銀行

滿洲國開原附屬地拘鹿大街一四一番地 綢緞布木、和洋雜貨、學生校服、化粧品各種 ゴム靴等、委托賣買 義信商會 電話二八一番 電略(ギ)又ハ(シン) 支店 洮南縣富文街一五五

滿洲國開原驛前拘鹿大街一五九番 特產貿易 精米精穀業 各種雜穀 永昌公司 電話長六六番 發電略(エ)又ハ(エイ) 受信カイゲントウロクタイカイ 電略エイショコンス

南滿洲開原驛前慶福街 特產物 貿易商 精米業 同信精米所 長電話四四二番 電略(トシ)

開原驛前 朝鮮料理元祖 萬歲樓

南滿鐵道開原寶山街二八番地 特產貿易 公益商會 電話九八番 電略(コウ)又ハ(コ)

開原朝鮮人靑年會 會長 文鳳德 副會長 李善珩

開原附屬地 開原理髮館

開原大街 龍玉館 韓貴實

開原 朴曙夢

開原 李昌萬

開原驛前 奉天朝鮮人小學校東 朝鮮藥局

奉天商埠地田口純男法律事務所員 開原駐在 金山德次郎 (電略)

滿洲開原福昌街 穀物貿易 委托賣買 精米業及特產物 大同公司 電話長一〇七番 電略(タイ)又ハタイト

南滿洲開原驛前 特產貿易 委托賣買 精米業 東盛商會 主 李萬長 電話二八〇七番 電略(〇セ)又ハ(〇セ) 取引銀行 正隆銀行 朝鮮銀行

開原驛前 綢緞布木 和洋雜貨 化粧品 南鮮商店 咸性益

滿洲國開原驛前 洋服洋品 第一洋服店 電略(タイチ)

開原附屬地 大成館

開原 文鳳守

## 長箭

江原道長箭港 醬油肥料製造業 崔燦鉉

江原道長箭港 穀物貿易 食鹽石油 三益商會

江原道長箭港 綢緞布木 和洋雜貨 永益商會 電話一八番

江原道長箭港 第一朝日丸 第二朝日丸 漁業 黃雲天商店 電話二一番 振替京城二〇九一九番

江原道長箭港 醬油肥料製造 鮪丸巾着業 李德議

江原道長箭港 公醫 崔圭河 濟東醫院 電話二三番

江原道長箭港 藥酒 濁酒 製造 長箭酒造組合 電話一四番

江原道長箭 新北面職員一同

江原道長箭港 鄭民澤醫院

江原道長箭港 三洋水產長箭工場

江原道長箭港 燒酒製造 金剛釀酒所

江原道長箭港 時計、眼鏡 蓄音器 レコード 大興時計店

江原道長箭港 玄乃順

江原道長箭港 永信洋靴店 主 安秉彥

江原道長箭港 醬油肥料製造業 李相鎬

江原道長箭港 醬油肥料製造業 朴萬年

江原道長箭港 綢緞布木 日用雜貨 德源永

江原道長箭港 綢緞布木 日用雜貨 洪順敬商店

綢緞布木 日用雜貨 元山商店

江原道長箭港 綢緞布木 和洋雜貨 永和商會 主 黃永禧

江原道長箭港 ㊒運送店 主 崔金龍

外金剛長箭港 朝鮮料理 元山館 主 田雲龍

江原道長箭港 醬油肥料製造業 朴淳香

江原道長箭港 醬油肥料製造業 朴行植

江原道長箭港 醬油肥料製造業 趙元明

江原道長箭港 綢緞布木 和洋雜貨 振泰永

東海北部線長箭驛前 ㈡陸海運送組 代表者 曾根五郎

江原道長箭港 綢緞布木 和洋雜貨 日光商會

江原道長箭港 醬油肥料製造業 裵相孝

江原道長箭港 醬油肥料製造業 金泰洙

江原道長箭港 自轉車及ペンキ看板 池成自轉車店 主 池炳斗

江原道長箭港 醬油肥料製造業 權昇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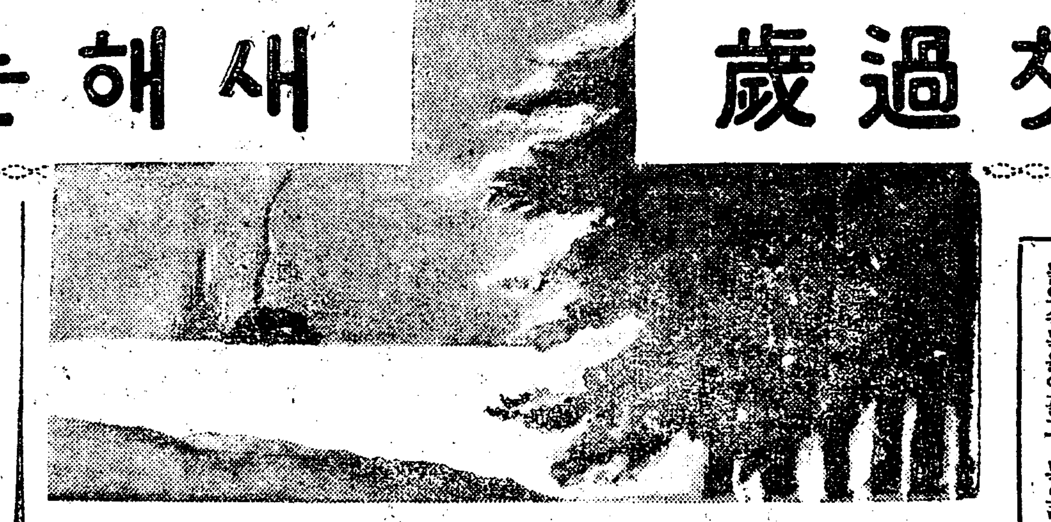
江原道長箭港 醬油肥料製造業 韓順鍾

朝鮮日報

新年號 其三

# 새해는移民村에도

# 異域寒窓의첫過歲



## 敗北者의集團部落 遼河岸六千移民

### 渺漠無際地平線에서 떠오는 新旦曙色은그窓에도

잔뼈를굵게길러준 내고장을향하야 침을배앗흘자누구뇨。이몸의 피와살을북돋든내땅을할세할자 누구뇨。모도가비단보료를 물리치고 아버지의 무덤우를 더듬어찾는 그들이더라。

외롭고고달픈 나그내길을 즐겨밟을자가누구뇨。『오랑캐』땅에서 부러오는 눈바람을 그리워마지 할자누구뇨。

모도가 어머니의두섯꼭지를 만지고도만저 지리한꿈을 모르든그들이더라。

가벼운갓옷으로 몸치장을하고 살진말을채직질하야 노리ㅅ길을떠나는 그행차에도 호강스러운눈들이오고 가거든하물며 내할아버지들에게 손수물려바든 피와땀으로 밧숙된 그땅을 저주스러운홍수의아가리에 집어넛코 부서진살림ㅅ조각을 이고진채 어린것들의손목을이끌고 북으로향하야 발길을돌린그들이랴。

그러나자연(自然)은 속이 굿더라。새해의 아침햇발은 이역의그농장에도 북국의 그란항에도 칙칙한 창문에 복스러운 우슴을던저주엇다。

이역에서 첫과세(過歲)!

가여운 그형제들은 무슨차림을하고 어떤정경에서 이해를 맛는가。

이민(移民)은 사회와 자연으로부터저주바든 약자(弱者)이다 흉작 수해기타의 원인에 의하야 경제적으로 큰압박을당하게되면 그들은 부득이 정든린 고향에서 남과가티 살수가없슬뿐아니라 입을옷과 먹을량식과 몸붙칠 집에 곤난을당하게되자 삶길을차저서 두주먹을 부르쥐고 새로운 터전을 구하지안흐면 안되는 지경에빠진 사회의 약자라할수잇다 그러나이민은 결단코 기민(棄民)은 아니다 그러니 당국자가 이에대한 충분한 알선과 지도를 함은 사회정책상으로본든지 인민보호상으로본든지 당연한 일일것이다

대체 조선사람이 만주로 이주하게된것은 오륙십년전부터 자유이민이 만히잇게되엿스나 그후로집단이민이되기는 지금으로부터 삼십여년전에 함경북도와 평안남북도에 큰흉작이잇섯슬때에 그지방주민들이 압록강과 두만강을건너 멀리 만주벌판에가서 살게되엇다 한다 그리하야 그들은가족권솔을 다리고 만주벌판에가서는 오즉두주먹을 부르쥐고 그곳에논들밭을 어버를시무고 방울가려 여러가지곡식을심어살길을 몸소개척하기 시작하엿다한다

그러나 전귀다수의주자를 비롯하야 그후다수조선인이 만주로건너간것은 합병전후로 이것은소위자유이민이라하야 정부의 계획적이민은아니다

그리하야 일한합병이후에 총독부당국에서는 대륙정책상으로 보든지 여러가지의미에서 조선인이 만주의긔후와 풍토에적당하다하야 여러번 이민계획을세웟스나 만주사변전까지의 만주는정치상관계로 또는재만조선인의 치안공작이 곤난한관계등으로 이민계획이 구체화되지못하엿섯다

그런데 만주사변이후에는 만주국이생기게되자 국가적 대이민계획은물론 조선인의 대이민계획도점차구체화하야 내외의주목을 끄을잇는터인데 참담한금년 여름의 삼남수해에 못살게된 수십만리재민의구제를하고저 서북조선 로동시장에 국내이민을하는일방 만주에도 이민을하게되아 재작년부터 계획실시중이든 만주조선인 안전농촌을중심으로 금년부터 실시하게되엿다

그리하야 총독부 에서는소화팔년도부터장래에조선인이민의중심농촌이될소위안전농촌을영구(營口)철령(鐵嶺)하동(河東)유화(綏化)에설치하고그해 구월십일일에 전조선 보병대출신 재향군인사십호일백팔십일인을 영구농촌으로 수송하엿스니 이것이 총독부에서 실시한 최초의이민이요 동시에대이민계획에대한 시험이민 이라하겟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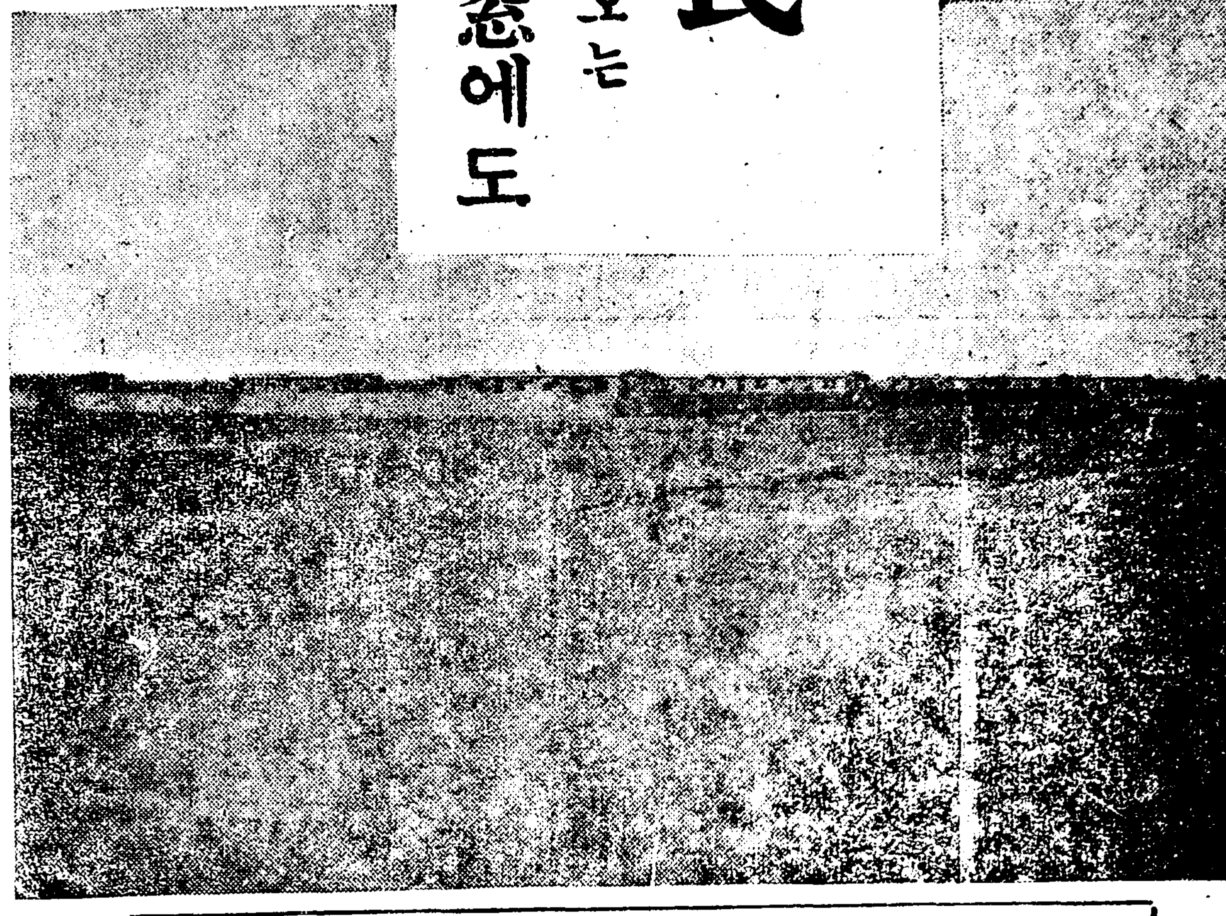
그후지난 십일월에 삼남리재민오백호 이천륙백오십오명을 영구농촌에보낸것까지 합하야 작년중에 총독부에서 만주에 수송한시험이민은 오백사십호 이천팔백삼십오명에달한다

이것외에 총독부사회과의 알선으로여서 삼남리재민을 서북조선광산이십여개소에 천오백여명을 수송하엿다

이와가티 총독부에서 조선내의로동이민과 만주농업이민을 단행한 그결과를보면 만주농업이민은 대체에잇서 성공이라하겟지만 조선내의 로동이민은 그간부차보도한바와가치 대게실패하야 이민정책상에대수정을 하지안흐면안되게된것이다

그러나압흐로 대이민계획이 잇슬것과함께 금번의영구이민 정책의 성불은 장래이민계획에 중대한영향을 줄것임에따라 조흔토지와 풍부하게유리한 조건아래서의 이곳이성공을 못할때는압날의 계획에 큰장해가 될것임에따라 진실로이민보위의 사업을복귀치 안으면안될것이다

따라서현재 영구집단농장에수용되여잇는이민은 전후하야 일천륙십호 오천팔백삼십이명이 멀리끗업는지평선넘어로 고향을바라다보며 닥처올운명이갈주인새해를 맛게되는것이다



地平線上의點—點—土屋(營口)

## 漆暗中에瑞色마지 炭坑移民三千八百

### 耕田而食은지나깐꿈자최 鑿山而飽難可期!

지나간해 칠월 이십일을 전후하야 남부조선 경상남북도(慶尙南北道) 전라남북도(全羅南北道)충청남북도(忠淸南北道)의 조선에서도 인구조밀하고 땅이기름진 여섯도가『노아의대홍수』를 회상할마큼 참담한 수재의엄습을 바든것은 날이갈수록 그스라린기억이 새롭거니와 그와가튼홍수의 해를입어 일조에 집과양식과구밧게 가진바 모든재산부치는물론유일한 생활근거이든 농토까지송두리채 물에쓰ㅅ겨내려보내고는 생사에 직면한수만의 농민이몰풍지난후 휘돌려 쓰러진흘포기와가티 황량한 폐허의지최에 남겨지게되엇섯든것도우리의 기억에서 영원히사라지지아니하는상처다

그들은 맛치그들이 살고잇는쓰러저가는 납작한초가에서 때를마추지못하고 소사오르는 연기와가티 한심한생활을 해와슨마큼일단 홍폭한 대자연의 크나큰 발작적엄습을 바든다음에는 일허버린토지와재산을 그곳에 다시차즐힘이 업서든것이다 그들은 그마큼시쳐고 그들의두팔은 그마큼연약하엿섯든것이다

그들이 사라오든 루백대를두고 그들의조상으로부터 대바더밧가려 농사짓고 우숨파서 물기러먹든 고토(故土)다 그들의뼈와살에는 그흙냄새가져잇고 그들의관에는 락동강(洛東江)이 그대로흐르고잇슬것이다

그러나 일조에밥가숭이가 천수만명의리재민은 무참히 짓밟힌흙바닥에서 로숙에 풍찬이나마길게게속치못하고 이리저리 허러가고마렷다 혹은동경대판에로 갈수나잇슬가해서 부산부두로 혹은단리농토를차저 타도로 그런중에일부분인 수천명은 일대비약(!)을하야 탄광의 광부가되려고 서북조선으로 집단이민이되어갓다

금년첫녀를부터 시작하야 당국의 알선으로 관서지방인 평안남북도 각탄광과 관북지방함경남북도로 합하야 삼천팔백명——그들은오늘도 악마의그림자 가튼식컴한산속에서 지난악몽(惡夢)을 몸서리치면서 이해를마지하고잇다

暮—煙—에—잠—김—鷄—林—炭—鑛

## 失敗된勞働移民 可觀할農業移民

### 今年水災移民만二千八百

### 當局移民實施經過

그러면 작년중에총독부 당국에서알선하야 실시한 이민수송상태와이민후의 현상에대하야 개괄적으로보면다음과가다 첫재로 만주이민실시 상황을보면 영구의안전농촌에 소화팔년사월에 북만과남만예산재한 피난조선인 륙백호를영구에 이주식힌후 농촌을듬겨하는바만군에 대한방비책으로 전조선보병대출신 재향군인을 사십호일백팔십일명을팔년구월십일일에영구로 수송하야농촌에수용 하엿다

그리고다시 시월십팔일에는 삼남리재민중 경남각군에서 모집한이백호일천칠십팔명을 수송하고다시십일월 이일에는경북안동(安東)달성(達城)칠곡(漆谷)선산(善山) 레천(醴泉)등지에서 모집한 리재민일백륙십호 구백칠십명을 또 십일월오일에는 마즈막 으로 전남북과 충남북에서 일백사십호 륙백칠십명을각각 수송하야 영구 농촌에 수용하엿다 그리고조선내의 로동이민는삼남리재민 이천오백명을 함경남북도와 평안남북도 황해도등오개도의 십팔개소탄광에 십일월중에 이십여차례에 나노워 전부수송하엿는데 최초총독부 당국자가청부업자와 고용주와 협정할때와는입금도 수십전차이가 잇슬뿐아니라 숙사 위생설비기타의 불비로굴만을품고 고향으로 도망하는자와다른광장으로 옴마가는자가 속출하야조선내의 로동이민은 전연실패하엿다하여도과언이아니라하겟는바이것은농민을 광산노동등공사장가튼방면에 이주식키는게로 그러한 로동에숙련치는못한데다가 약속한임금조차 주지안키때문에 중도에서도망하는자가 속출한셈이다

◇

농업이민인 영구와 로동이민인 서북탄광으로간 이민수자의 세별을보이면 다음과갓다

현재 영구농촌에는 소화팔년봉에안동(安東)무순(撫順)봉천(奉天)심양(瀋陽)해룡(海龍)개로(開原)영구(營口)연태(煙台)등지의만주사변당시 피난조선인 약륙백호 삼천여명을 이주수용하고그해구월에는 조선안에서 처음이민으로 전조선보병대를 신재향군인 사십호 일백팔십일명을 수용하엿다 그리고 지난시월、십일월두달에 전후세차례에난호여 삼남리재민오백호 삼천팔백삼십오인을 수송하야 십이월중순까지에 전부수용하엿는데 십이월말현재 영구농촌의호구는 일천륙십호 오천팔백삼십이명이라한다

그리고 작년중에는 만주각지에서 이주하여온농민중에서 십팔호는그농촌에 분가를식히어 역시한호의농가로독립식히어다한다

**各地炭坑別移民**

| | |
|---|---|
| 【咸北】 | |
| 明川炭鑛 | 三八〇名 |
| 龍興同 | 一〇〇 |
| 遊仙同 | 七九九 |
| 鷄林同 | 三〇〇 |
| 阿吾地同 | 三一五 |
| 青鶴同 | 三一七 |
| 古乾原同 | 二九〇 |
| 吉州同 | 一八〇 |
| 【咸南】 | |
| 文川炭鑛 | 二〇名 |
| 咸興同 | 五〇〇 |
| 大成同 | 一〇〇 |
| 【平南】 | |
| 安州炭鑛 | 三五〇名 |
| 龍潭同 | 五〇 |
| 三神同 | 二〇五 |
| 大成鑛山 | 二〇〇 |
| 其他江東 貞栢 大文川等炭鑛 | 一八〇 |
| 合計 | 三一八二 |

## 十年間繼續 大移民計劃

### 第一第二營口豫想

장차총독부당국에서는 장차실시할 만주대이민계획에 대한시험이민으로 영구에 오백여호를보내든비 성적도매우 량호할뿐아니라일본내지에서도 대이민 계획이구체화하고 잇슴으로 이와병행하야래년도부터 조선인을 대량적으로북만주에 이주식히고저 그계획안이구체화하고잇다

그계획안의 내용을보면 우선새해에는대이민 계획의전조(前兆)로 삼남농민중에서 이천호 일만명을 선택하야 북만으로 이주식히게되야그경비 이백만원중에 오십만원은국고보조를 하고남어지 일백오십만원은 총독부의 이민대행과관인동아권업공사(東亞勸業公司)에서만철회사(滿鐵會社)로부터저리자금을어더이것에충당하게되엇다는데 이것은 영구이민농촌과가티 래년부터 실시한다는대이민계획의 시금석(試金石)이니만치그결과는 비상히 주목된다

그리고 래년부터 실시할대이민계획이라는것은 자본금 오천만원의 반관반민적이민회사를 창립하야 경성에 본점을두고 십개년내지십오개년간에 이십만호 백만명을만주로 이민하되 일년에 이만호약십만명을 이주 식히자는것이라한다

그런대 이이민계획에잇서 주목할것은 만주이민은 대부분 수전을 경영케하며 한호에 수전이정사단(段)식을 빌려주어 매년 농장관리비와 토지매수비의리자와 변부금(年賦金)을 납입식히어 약십년후에는 이정사단의 자작농가가되도록 지도한다는 것이라한다

그—들—은—무—엇—을—冥—想—하—나—(營口農村全景)

全鮮代表的 映畫殿堂

電光九五九番

京城授恩洞 團成社

朝鮮劇場

第一劇場

시에론蓄音機商會

大橋次郎 今井赴夫 李瑞求

京城 丁子屋

京城府本町壹丁目 株式會社 三越京城支店

朝鮮金融組合聯合會長 矢鍋永三郎

石川登盛

伊達四雄

# 遼東벌七百里雪路·朔風차라예가營口

## 營口移民村을차저서

本社特派員 金麟伊 記

# 天涯漠漠大曠野에 點綴한十四部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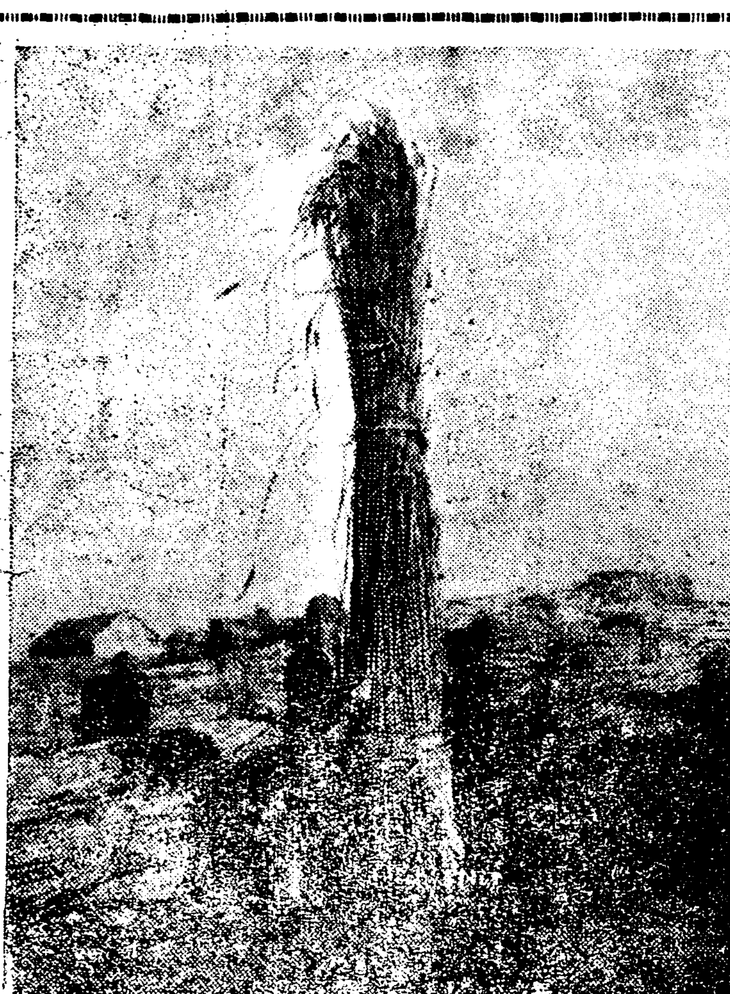
## 胡酒一杯에어우러진우슴 異色진滿洲式土屋

총독부의 대이민 계획에대한시험이민으로 또삼남 리재민오백여호를 수용한것으로 세상에널리알려진 이민촌이다 소위영구농촌이라하는것은 영구시가지에서 배를타고만주의 대표적장강(長江)료하(遼河)를 건너가면 그대안에하북(河北)이라는 시가지가 잇스니 이것이 일주장학량(張學良) 정권시대에 만철의영구항에 대항하야 봉천(奉天)북경(北京)간철도의 중간인 구방자(溝幇子)로 부터 하북까지 철도를부설하고 이곳에 대규모의 축항을하야 대련(大連)항에도대 항하려든 유명한곳이니 봉산선(奉山線) 구방자(溝幇子)로부터 영구 대안인하북(河北)까지 철도가 통하야잇서 이것이 봉산철도영구지선이다 하북과 전장대(田庄臺)의 파중간되는 지점에 영구농촌때문에생긴간이 정거장이 잇는데 여기서 차를내리면 일직선으로 탄탄한대로가 벌려저 전개되어잇스니 이것이 바로 농촌중앙을 관통하는 간선도로와 가른널비를 가춘신작로이다 정거장에 내려서몬저눈에띄이는것은 괴마경관이 농촌으로오락가락하야 평화스럽온 이민촌에도 한줄기찬기운을 뵈여준다농촌사무소에는 농민에게서 납입식히벼를 사자리로 우리를하야저장한것이 괴를가리면십개가 벌려서이곳에처음발길을드려놋는자로하여금 주의를끄을게한다 하나에오륙백석식 저장된는 노적으로이것은 농민들자신의 벼를 저장한것이아니고 회사의것이라는데는 듯는자로하여금 섭섭한늣김을 주게한다 농촌사무소부근에는 봄날가리 따듯한 (만주도금번의 번래귀후로 십이월말에도 조선가리 따듯하엿섯다) 해빗을쪼이면서헌옷을입은 동포를 볼때에 긔자는 고향을차저온듯한늣김이잇섯다

사무소문을열고 들어서니 좁은방에 농민들이가득히모여 사무원에게 애원하드시 무엇을부탁하고잇섯다 이것은 바로변말관계로 빗쟁이에게 몰려회사에 빗을엇고저 교섭하는 장면이엿다

이농촌의 경비를 하기위하야사무소옆에 삼층루로 망루(望樓)를 만든것이 잇슴으로 그곳에올나가 전농촌을 한꺼번에 내려다보니망망무제하야 하늘과맛닷이 마조대인듯을 어람으로하고 구획이재대로정연한 논과사이를달린 도로와 조선서는 보지못하든 만주식주택이 십사개 부락에정연하게서잇다 농민의 집은 만주풍토에 적합하다하야 만주식으로 집을을 경사가 여게넙적하게하고 한채의 널비가십간 길이가 삼간인데 한채는 소위량중거리 집으로 네호씩들엇는바 두집에서부여은 하나를난호아쓰고잇다 벼은두레가 두자나되게하야 가장치운때라도 치위를막을수잇게되어잇다 기자는 그중에도삼남서 옮겨온이민들의 멋집을방문하여보니 방안과 부엌은상당히청결한데 부엌이나 방을드려다보아도 농장을가직한것 이나김장과기타의 반찬삼가는것을 갈직한것이보이지안코아바기말속할뿐이다

한집에는 마치점심때 이엇슴으로 밥상이버려저잇다 만주조밥에 소금저린한 짠지한가지로 한가족이 둘러안저 점심을먹고 잇섯다 도라오는길에 농촌에오족하나바게업다는잡화상을드려다보니 농민들이 잔득모여드러서서 소주를 한잔식마시고잇섯다 만리이역인만주벌판에서쓸쓸한살림을 하여가면서 오즉苦주림을 면하고저 애달픈고생을하고잇는 그들이 한잔의소주로 우울한마음을 위로하고저하는그심리를나는리해할수 잇는동시에 애처럽게도 보이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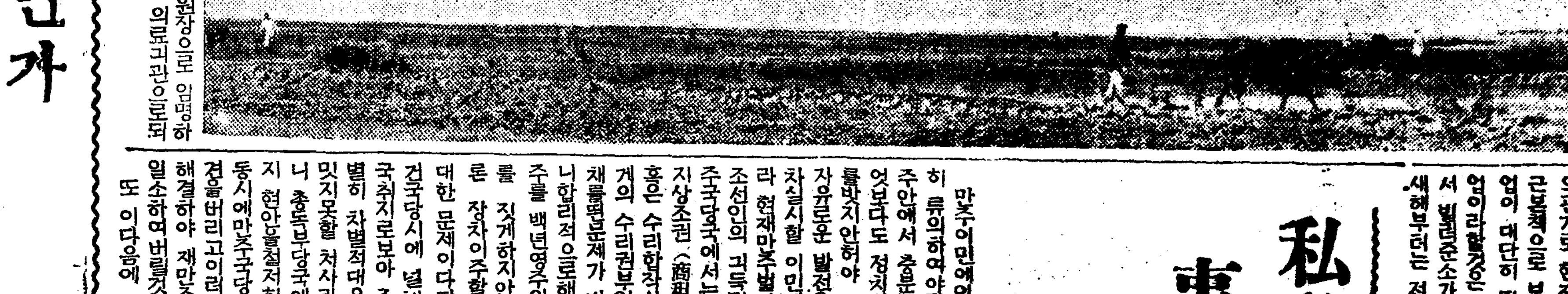
一[illegible]副業資料(蘆草作業)

收穫의깃븜

### 「教育機關 衛生施設」

어데나그럿케지마는 이농촌에 잇서서 간과치못할것은 교육문제이다 현재이농촌에는 총독부에서교사한채를 건축하야 교원네명을두어가지고 네학급에 이부교수를하는보통학교가잇다 륙학년 제도로 현재남자생도가 삼백칠십륙명 녀생도가 칠십륙명 합사백오십이명이잇는바 현재는 월사금도업고교과서도 무료로지급한다는데 총독부에서 학교경영비전액 삼천팔백원을동아권업회사에 지급하고 잇다 듯는바에의하면 총독부에서는 신년도부터 교실을더증축하고 학년은 현재의 륙학년제도를 사학년제도로 변경할 의향이라는데 아모리 일개농민이라도 륙학년제의 초등교육을 식히는것이 사년제의 간이교육보다는 나흘것이니 단순한 경비문제또는 단순히 농민이그다지 공부하여 무엇하는가하는 피상적생각을 가지고 학년을 단축한다면 이것은좀더 고려할 문제이며 또다수농민들도 역시 현재와가티 륙학년제도로존속하기를 히망하고잇다는것을 특히부언한다

이외에 농촌의 의료(醫療)시설로 병원하나를 총독부에서 설치하고 촉탁의로 경성의학전문출신 리종원(李宗源)씨를 원장으로 임명하야 농촌에우일한 의료긔관으로되어잇다



營口曠野에 쟁기든勇士

### 「可觀업는 副業施設」

농촌도집 관계와 설비긔술기타의관계로 현재는놀분 농사경영의 근본제으로 보아서라도 농가의부업이 대단히 필요한데 현재는 부업이라할것은 보잘것업다 회사에서 빌려준소가 일백오십두잇는데 새해부터는 전농가에 한마리식다빌려주며 도여것을농자소로 하야 장차는만주에잇서 조선소역중요한 산지로 계획하고 잇다한다 이외에 가축으로는 돼 도야지등이 잇스나 먹임것이업는이만치 간농가가 전부 사육치못하는상태이며 척근총독부에서는 가마니를 짜는기계일천대와 색기꼬는 기계이십대가 배급되얏슴으로 이것을 가지고공동 작업을하야 장차이런 종류의부업을 장려하는일방 남만주의특산이라할 갈대를가지고 조선삭자리를 맨드러팔계획도 구체화되고잇다한다

그러나 현재에는 아즉부업에대한설비와 지도가업기때문에 긔자가농촌을 방문하엿슬때에도 겨울에일은업스니까 농민들은 농장사무소에 모여드러『스토부』에 몸만쪼이고 만담이나하는것을 보앗스니 그들에게동절등잇는때에 적당한 부업을식히도록 긔급한설비와 지도가필요할것이다

### 「部落組織 金融機關」

현재영구농촌은한부락을약팔십호로정하고 십사개부락으로 난노아잇다 또농민의소비 조합겸공동판매조합으로 농우게(契)라는 것을한부락에 하나씩 열네개를두엇고이것을 다시련합하야 총제지도하는농우게 련합회라는것을 두어 농민에게자치 를 식히고 잇는데이것을버린장래에는 죽이농촌 전부가 자작농화한후에는 그것이 농촌의 행정긔관으로 전환할수 잇는성질의것이라한다

이외에농촌의금융긔관으로는영구금융회의출장원이농장에주재하야 농경자금의 대부와저금사무를 취급하고잇다한다

#### 田中外事課長談

영구농촌의 제일긔시설을 마치고시험적으로 삼남리재민 이천륙백명을 수용하고다시 새해부터는 만주벌판에 조선인을 대량적으로 이민식히고저 구체적계획을 진행식히고잇는 총독부 전중(田中)외사과장은 다음과가티 말하엿다

영구농촌은총독부가발서부터게획중이든대이민계획의전조(前兆)이민이니만치그성공을성공은 비상히중대한관심을갓게되는것이다 나도얼마전에농촌을시찰하야 본결과 현재만한시설이라도완성되야좌우간륙천명농민이 그곳에서농사를짓게되엇스니 농촌전경을보고 감개무량한바가잇섯다다수농민중에는 여러가지불평도잇겟지만 그곳에서부즈런히농사만지으면 십년안으로자작농으로독립하게될터이며 당국에서도장차 모든시설의충실을 도모하여갈작정이다

#### 向坊東亞社長談

영구농촌은 몰론새해에도 총독부의 만주이민실시사업을 대행하는긔관인 동아권업공사의향방(向坊)사장은 영구농촌에대하야다음과가티말하얏다

영구농촌경영에대하야는세상에서 흥은우리회사가 영리적으로경영하는듯이 오해하는모양이다 총독부가 직접만주에서 이민사업을 실시할수업는 관계로 우리회사에서 이것을대행하는것으로 총독부의 거액국고비 지급과 만철의 저리 자금융통이 잇기때문에다행히 념녀되든 영구농촌의 시험적 시설도끗나 첫해의 성적도 매우량호한셈이니 농민들이부즈런히 농사만지으면 불과십년내에 이정사단보의수전을 차지하게되야 건실한자작농으로 발전할수가잇는것이니 언론긔관에서도다대한응원과편달을하여주기를바라오

# 私私營利會社에 事業代行斷不可

## 政治的差別待遇의撤廢는 經濟的更生의捷徑

만주어민에잇서 당국자로서특히 류의하여야될것은 조선인이만주안에서 충분한발전을하려면 무엇보다도 정치적으로 차별적대우를받지안허야 그들이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발전을할것이다 오즉장차실시할 이민에잇서 그럴뿐아니라 현재만주벌판에산재한 이백만 조선인의 긔득권의옹호에잇서 만주국당국에서는 흥농부적자의 토지상조권(商租權)등 귀부인문제 흥은 수리합작사(水利合作社)관게의 수리권부인문제등 정치적색채를띈문제가 비일비재인 상태이니합리적으로해결하야 그들이 만주를 백년영주의땅으로 밋고농사를 짓게하지안흐면 현주자는불론 장차이주할농민에게 실로중대한 문제이다다욱 만주국에서는 건국당시에 널리 내외에선언한팁국취지로보아 조선인에대하야 특별히 차별적대우를 한다면너무나 맛지못할 처사라하지안흘가 그러니 총독부당국에서 이러한여려가지 현안을절저히 해결하도록하는 동시에만주국당국자도쓸데업는편견을버리고이러한문제는한꺼번에 해결하야 재만조선인의 악감정을 일소하여버릴것이다

또 이다음에 총독부당국에서는 이민실시시가 만주이니만치 그곳에서 총독부자체가 실지로일을할수업슴으로 현재는 동아권업공사를 이민대행긔관으로 장차는이민회사를 창립하야 이것으로하여금 이민사업을 대행식히게 되엇스니 아모리 당국에서 감독한다 하야도 영리회사로 하여금 대행식히면 반다시 모든것을 산판을 노아보고 리익이만치안흘일은 손을대지안는니만치 현재 이민들이 가진 불평의대부분이라 할지주적횡포과 착취적행동 또는관리이상의간섭주의를입세게할것이니 특별히 주의하야당국자는 철저한감독을단행하야 농민의 자유러운발전을 조장식히는동시에 한해라도 빨리 자작농가로 독립식힐방도를 강구하는것이 긴급한일이라할것이다

◇營口附近略圖(點線區域이移民村)

# 小作은宿命인가 汲汲한會社報債

## 全農場收穫今年에三萬五千石 開墾畓千五百町步

영구농촌의 현재 개간된논의총면적은 일천오백정보인데 새해에는 다시 구백정보를 확장하야 이것을 지난겨울에 수용한 삼남재해민에게 경작케되엇다한다

그리고 한호가 차지한 경지면적은 이정사단보인데 이번에는 한호의 수확고(高)는 최고일백이십석이고 최하는 십오륙석에불과하다는데 한호가경작하는면적은 가튼데 불고하고 수확에 전과와가티 큰차이가잇는것은 논의 토질관계와 염분(鹽分)의 다과도 큰관계가 잇다는데 또한농민의 부즈런하고 못한것도 영향이 잇섯다고 한다 그럼으로 결국 일천오백정보의 논중에서 지난 해에 삼만오천석을 수확 하엿고 단당(段當)이석삼사두 가량의 수확이라한다 그런데농민들이 회사에납입하는것은 아즉농작관리비와 농경자금으로대부한금액에대한리자로서 한호에이석두식을 납부식히고 토지매수자금회수는 아즉구체적으로 결정하지못한관계상 명년부터 납부식히게되엇다한다 그러나 지난해에농사를지은 다수한농민은 만주사변당시의 피난민으로 아모농사자금도업시모도빗을내여 시작한농사이니만치 결국 회사의빗 금융회(金融會)의빗과 개인의빗을갑고 세금을바치고보면 보통이상의수확을여든 농가에서도 춘궁긔에는 다시농량의빗을 어더서야사먹게될것이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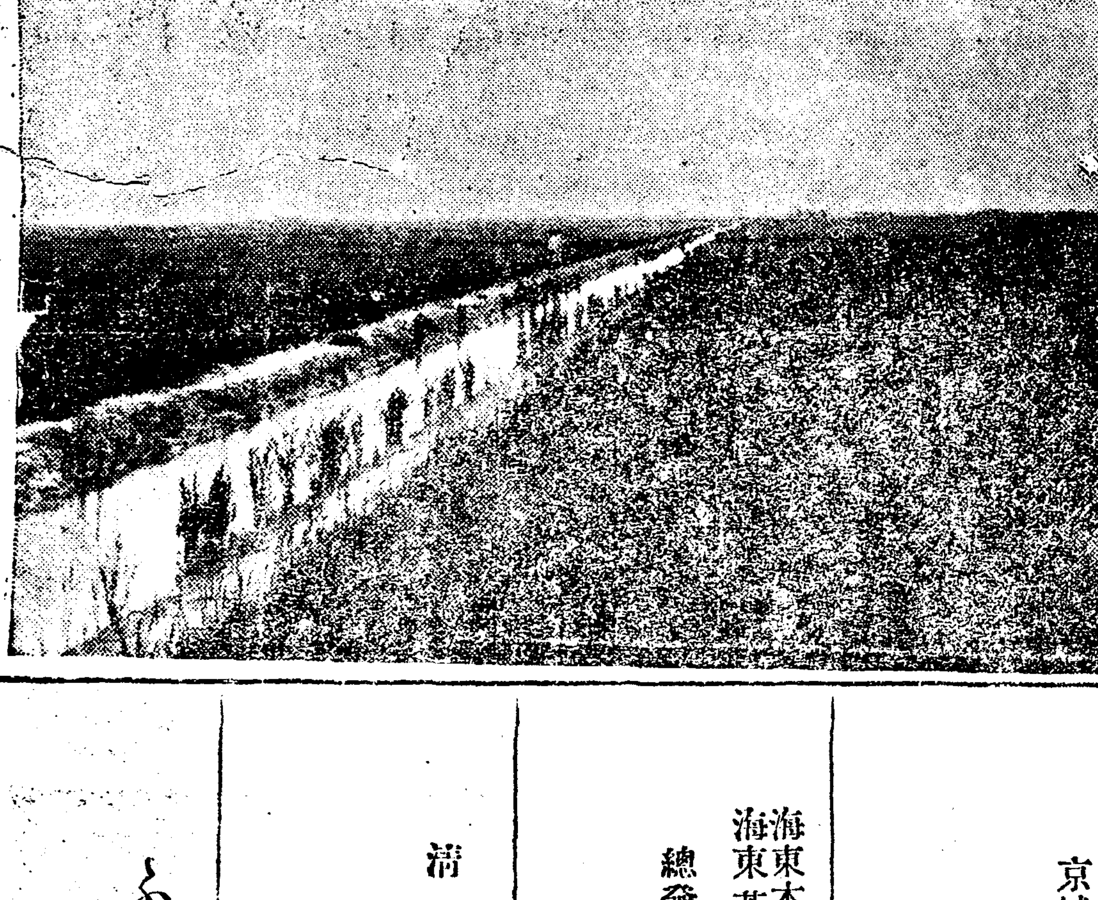
농작주임의 말을빌리면 지난해는 첫해농사이니만치 설비가 불충분하고 또농민이 농사에숙련치못한관계로보면 그만한수확이 잇는것도상상이상의 조흔성적이라 말하엿다그러나 합리적 경영이라하며 또국고보조가 거액이지출된 소위모범농장이라는 이곳에도 역시 남의 논밧을 빌어 농사짓는 소작인들에게는 조금이라도 여유잇는생활을하지못하는 상태이니 현재의모든 조건으로본다면 그들농민은 과연십년이내에 이정사단보의 수전주인공이될는지 압호로 비상히주목된다

그리고이곳긔온은(氣溫)만철연선 웅악성(熊岳城)지방과 비슷하고 조선의평북해안 선지방과 비슷하나 만주평야의찬바람은 이곳도매우심하다한다 우량(雨量)은 일년에 칠백『미리』내외로 대련지방과갓다그리하야변농사에는남만주중에서는 가장조타고한다 농촌이 자리를잡은 일대는전부 일망무제한대평야로 산이라고는하나도 볼수업는평탄한땅이나 『아까리』염분(鹽分)이만키때문에논을 맨드른후 삼사년동안에는 이염분을업새버리지안으면 올흔농사를 지을수가업다고한다

# 氣막힐疏菜飢饉 말못할飮料水難

## 今冬들어김장한집은全無 時急히解決할問題

영구농촌에잇서 특히고려할 문제는 음료수문제와 채소공급문제이다 농촌주질에대하야는 만주의과대학과 만철위생시험소에서 충분한검사를하야 감부락에 우물을 파기는하엿는데 울물을 데워먹으면 상관업더라도 랭수를먹어보면 아즉바다물가티 짜맛이잇고 물빛도 하야 위생상조라할수업스니 위생상여자면수를적당히려과(濾過)하야 음료수로사용하도록 상당한설비를할필요가잇슬것이다 또 이농촌에는 아즉 자가용으로 채소재배지도 업거니와 토지전체가 염분이 만흔곳이니만치 채소재배는 당분간 할수업는 상태임으로 금년김장도 농민들은 전장대라는 시가에가서 겨우 빗싼무배채를 사다가조금식 맨들엇다하니 농가에 무엇보다 부식물 (副食物)로중요한채소가 평시에는몰론 김장까지도 사서야하게된다니 궁핍한농가에서는 여간타격이 크지안흘것이다 그러니 무엇보다도우선염분을속히빼어버리고 각농가에 채소재배지로 적당한면적을분배하여줌이 긴급한문제이니 이두가지문제를 위생상으로 또는농가경제상으로 하로밧비 해결하여야 될것으로보이엇다



땀의結晶 千里!

化粧品石鹼卸商 大榮商會 京城府唐珠洞一六八 電話(光)二七三六番 振替京城九七八番

各種時計貴金屬類蓄音器レコード 標準時計 村木時計店 京城府本町二丁目 電話本局 四七一 四七二 四三七七

京城本町一丁目三十九 株式會社 大澤商會京城支店

最高級洋服 理想的裁斷 白鳥商會 石鎭友 京城府鍾路二丁目三四番地 電話光化門二〇二〇番

京城府公平洞十番地 協信商會 徐相協 電話光化門五八八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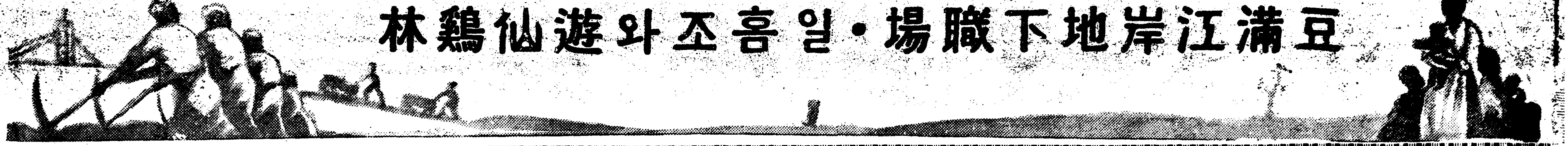
營業科目 活版石版 和洋帳簿 各種印刷 製本一式 東亞社印刷所 京城府永樂町一丁目六五 電話本局三五〇一番 振替京城一〇九六番

京城府古市町一四番地 龍峴炭京城販賣所 電話本局八八〇番 貯炭場 京城驛前構內

海東木、海東織、海東緞、海東北布 海東苧 海東廣布 海東道理廳 總發賣元 興一社 京城府南大門通一ノ一三 電話長光化門一八七五番

清雲洞六 料理 白雲莊 電話光化門二三三四番 二三八八番

ふぐ料理 旭町一 川長



# 豆滿江岸地下職場·일홈조와遊仙鷄林

## 關北移民炭鑛 踏査記

本社特派員 蔡萬植 記

# 炭窰에서울려오는 斷腸의望鄕歌!

## 飮食、勞働、風土急變이苦痛 鄕信頓絕、獨身의悲嘆

허덕어리는 기차가 실어다주는대로 무산(茂山)엽구리를 넘어회령(會寧)에 다다르기 반는날이아차였시 발서경성과는 기후에현격한 차이가잇다。 그러컷만 그곳사람들은 날세가따뜻 하다고하니남방사람에게는 질색할소리다 위선군청에 들리니 일요일이라맛나볼책임자는 업고숙직원이 대략못는대로 설명은 하엿주나 만족치못하엿다。 기자가 목적하는 유선탄광(遊仙炭鑛)이며 계림탄광(鷄林炭鑛)은 여기서도서북으로십여마일을 더드러가야한다 기차가그곳까지 통하기는 하나시간이닷치아니하여 자동차를세내어 사진사를데리고 그령저령 오정이가까워서탄광으로향하엿다

### 遊仙炭鑛

처음 당도한곳이 유선……유선탄광 유선이라니 일홍이조치 마일정말로 신선이정배(定配)라도 왓다면야드나마 가까운두만강(豆滿江)에트신자살를할만큼수되며 거칠며 살풍경한곳이다경성서보든 한강만큼도 수량과운치가 빈약한두만강이잇고 바로그러던에 불면날아갈듯한 오막사리조선식 빠락크와 생철집웅들여웅기종기 들어서서시커먼 석탄채굴장을 배경으로한 초라한올이루엇다그리고 강건너편에는 길을막는듯싶게 무뚝뚝한간도(間島)의산들이 겹겹이싸혀잇다——숨도업고 운치도업는 산들이다 바로국경이면서 국경다운 정취는 조금도업고 다만 살풍경한 분잡과몹이 마을듯한 활황뿐이다

이 유선탄광은개파한지 불과오륙년!시가 이백만원을 불러도팔려고아니하는 조선서수위를 다투는 대탄광이다 매몰탄광이 이천만톤!

현재 종업원(가족빼이고)이 일천이백여명에 하로 산출이일천오백톤。

그러한때문에 작업을 시작한지오륙년밧게아니되된 이탄광주락이차라리 회녕읍보담 번화하고경기가 조타는것이다 미상불거리는시끌한조의 장날다웁게 흥성하는사람의 왕래가 빈번하엿다

위선 사무소로 차저드러가서그곳의 주임격인 사무원을맛낫다

이 유선에는 맨처음에 경남함안(咸安)등 메칠로부터 아혼아홉명이 와서고재이회로 오십삼명이왓는데 그중녀자 즉가족을 단두명이요 전부가독신자이다 그리고최근에 울릉도로부터 두번에나누어독신자 스물다섯명과 가족데린일백아홉명이왓다 총수를 합하면이백여든 여섯명인데 그가운데경남수재지에서온 사람이 도착한믄수일만에 열여덟명이 탈주를했다고한다 그와가티 탈주한원인은?하고무르니까 임금이 적은것웅식이맛지아니한것 기후가 치운것그러한데다가 라진과청진이 버리가조타는 말을듯고버리 조흔곳을차저갓다는것이다

미상불 치다는것이 무리가아니다。그들의 고향은 경남에울창팟치피는데 이곳은 금년만으래외로따뜻한곳이다 삼월에 눈이내리도록치워심하면령하 삼십도를넘기는곳이다。 음식도 그들은보리밥에는 입과장부가 달련되엿슬지짐정조밥에는 인연이업다 그러라고새하야 이팝만먹자니생이 사라지아니한다임금도 처음떠날때에는 이원이니햇지만 그것은다음도 말하겟거니와 숙련된 한사람의 탄부가 되고래야 말이다。 농군이든 그들이 갑작히공겨허박한 지하 수천척이레드려가기도 서먹서먹하거니와 귀기필신(鬼氣逼人)하는듯한 암흑속에서 캔데라의 히미한 불빗에 끄을려 석탄을 캐기도어렵거니와 캔대자 청부제이라 도저히 일원넘어가는 수입을엇지못한다。이것은 단신자맨사람이기자에게재각금 여출일구로한말이다

그러고 보니 기후、노동、음식등의 급격한 변화로인하야 생리적변조——즉 수토불록 가르것도생기엇다고한다 그러나 밤서 반년가가히 되엇기때문에 그러한것은 완회가되엇다하고。

독신자들이 늘 안정이 아니되는것은 고향에둔 가족들이다어떠면사람은 생사조차 소식이끈처다고한다。그러니 자연 마음이 초조하고 들뜰바게 업는것이다。 그리하야 언제든지 딴곳으로떠나갈기회를 엿보는것이 그들의공통되심리다

그와반대로 울릉도에서온 가족데린사람들이며 또그곳 독신자들을은 어쨋읍인지 모다를 치척하여보엿다 가족이 잇는사람들은 대개가 부녀자와 아이들도 선탄장에나와 조력을해주기때문에 허나압헤 사오십전의 버리는넘녀되다는것이다

집들도 헙직한 공사이나름번에광산측에서 새로줄행낭가티 지어서가족 데린사람들이 제각금외딴살림을하게되어 잇다。 그밧게 사용하는 기구며의복가튼것도 처음광산측에서 빌려주어 그편의도만히입엇다한다

그런데 이유선탄광에서 특히귀에꺼우는말은 주인격 암흔이라는사람이 광산부근에 가진야간의토지를그들 가족데린사람들에게 나누어간단한 밧농사라도 명춘부터는부치게 하도록 한다는것이다。이조건이 그들을굿세이게 광산에매여두는것인듯하다。

임금의 전체적통계를보면 항내작업이 일원륙십전으로부터 구십전까지요 선탄이 오십전이나 사십전어이다

### 鷄林炭鑛

계림은유선에서 오국산성(五國山城)을 바라보고나간 산등성이하나를 넘는곳이다

이곳에는 제일회때에 경남과전남에서 독신자여든다섯명이 왓섯고 제이회에는 경남에서만가족데린 열다섯호가왓다 그열다섯호의전가족이 놀라지마라 일백예순일곱!

가난한사람의 자손의 만홍이란설명키어려운일이다

그곳서 안내해주든사람은 그를어 어린아이가 만키때문에주부가선탄장가든데나와 일을해서 단사오십전의 버리를해가지고 가장의수입을 돕고저하나 그것을못한다고하며 가난한사람의 자손만흔것을탄식하는말을 그자는듯엇다 매우슬직한말이다。

이곳도 임금은 일원륙십전부터구십전까지의 항내작업이잇고 오십전부터 사십전까지의 선탄작업이잇다。

그리고 유선과 마찬가지로 가족을데린사람은 그에 어매여동을 생심치못하고 독신자는불소리없은 망향가를 부르매분통이되어엿다

이곳서 단신자의 합숙소일을보아주며 또인솔해올때 두목격이든김(金)이라는 사람이 말스귀나아러드릉치하기에 기자는 방금사백삼십팔만원의남조선 수해복구비가릭시의회에 좋과되어 고향의농토가 어느정도까지는 복구가될터인데

咸北移民의一家族

가고싶지아니하냐?」고 무른니까 그는고개를 설설내어들으며대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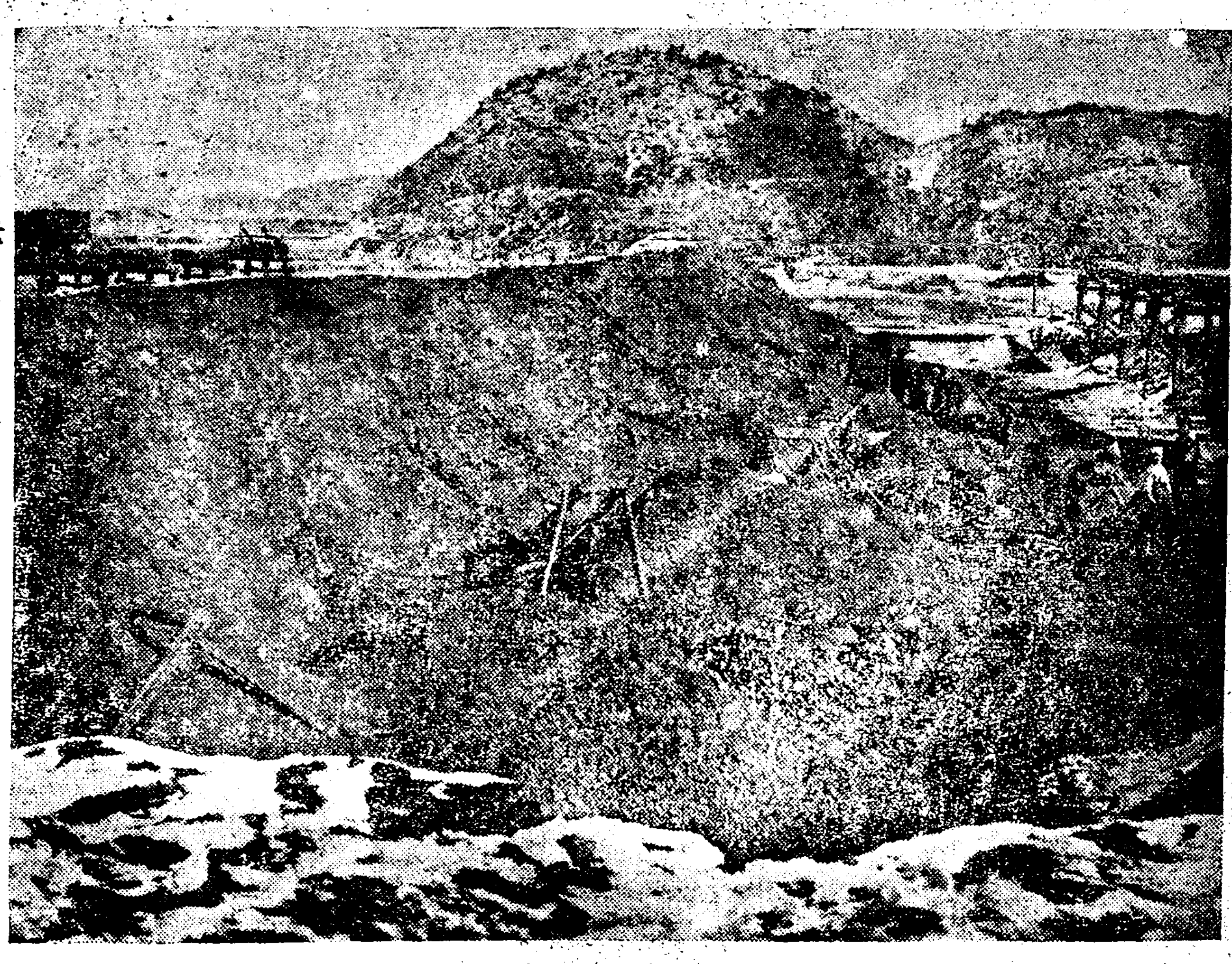
그외대답을 여기에 옮길자유가업스니 설명하거니와 괴충에손을너코 주위에둘녀섯든 이민들은약속이나 한듯이 저뭇하둘를치어다보며 한숨을후!하고 내어쉬인다

「국경이래서 조선땅이 아니것소!죄우간 살고잇서봅시다」

기자는 이러케위로해주고 그들과작별을하엿다

저물게 회녕읍으로도라와 려관에서 하로밤을지나면서 기자는다시 북으로 더드러가 아오지(阿吾地)청학(靑鶴)등의 탄광에를틀릴가하엿스나도라올길과더구나중간에틀릴용무가 밧버 이튼날로회정을하엿다

요컨대 귀자의 보고드른것을종합하면 방금조선농민이 어데를간들 일허버릴것이 업슬만큼―또잇대도 그다지앗가웅이 업슬만큼―가진것이 업는터이니 무슨생활로전향한들 더의회될것은 업는터이다 새해의 명랑한 햇발은 그들에거엇지행복의 수레를 끄으러가두록주목을하고 귀자는 발길을돌렷다



눈덥힌遊仙炭鑛

## 關西移民炭坑巡禮記

本社特派員 金晚炯

# 遊離途中再遊離 赤身으로夜間脫走

## 寤寐不忘하는내故鄕차저 三分二가再離散

이좃수업는작변 여름샵남대수재로내살림내농로를다일허버리고 정든내고향을 뒤로남겨둔후 헌어와풍습이 서투른서북조선을 향하는이민이꼬리를물고다치게되엇다

이래서 평안남도일대의 각탄광(炭鑛)농장(農場)등에는오십여명내지이삼백명식의 리재 이주민이 이곳저곳에 이주하여 꿈에도생각지못했든 맛치등화(燈火)가 꺼진암흑의떼허와도 갓타사면을 도라보아도 경(境)막으로 덥흘듯한흑색의산곡 탄광에서순서투른작업을 하게되엿든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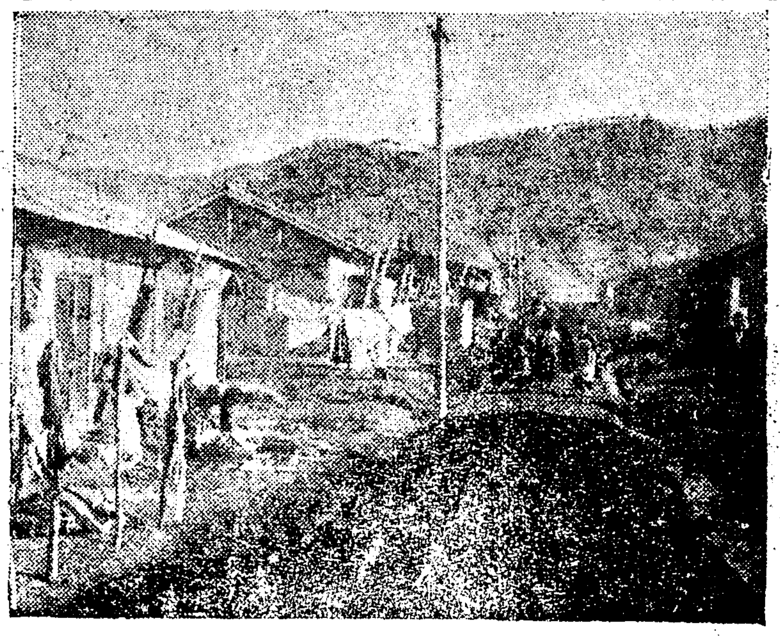
기자는 조호나실호나 오는새해를 맛고보든그들은 어떠한 정경에서 눈물겨운과세를하는지 임문겸한순례의길을떠낫다

평남각지의탄광과 농장에 작년십일월이래 이주되여온는 삼남리재민은 다음과갓다서

▲安州立石炭鑛 一四六名 ▲价川鳳泉炭鑛 六〇名 ▲大同三神洞炭鑛 二〇八名 ▲江東大成炭鑛 一〇〇名 ▲江東大文山炭鑛 六〇名 ▲大同高飛里炭鑛 六〇名 ▲江西東拓農場 六八〇名

합계 일천사백사명으로 그중에서 삼신동탄광과 강서동척농장을제외한각탄광의 이주민들은 야간을리용하여 속속탈출하고잇는상태이어서 대성탄광、대문산 탄광、고비리탄광등에는 십명내외를남기고 거의전부 탈출하엿고 개천봉천탄광은 십칠명을 남기고 탈안주립석탄광은 백명을남기고 탈출하여 결국삼분의이 이상이흙어가고말엇다

그리구 아직도탈주자는 계속하고잇서서 여기압선을 하여든총독부사회과에서도머리를알코잇는중이다



三神炭鑛住民住家

# 募集當時條件과 懸隔한現地待遇

## 地方當局의爭功的募集이弊

## 그들의脫走原因

전항과갓티 한곳을 제외한가지광이 주민이 무엇때문에탈주를하는가? 이에대하여서는 멧가지원인이 잇는것을 발견할수잇다

첫재는당국의이주민모집에잇서서너무도경솔했다는것이니농업에종사하든사람을전연방면이다른탄광에데파·노코이주를꾀한것이실패의원인이오물론모집할때에석출을올니려는지방당국자들이명년각단광과임금협정이잇슴에불구하고타가기만하면일금오원일급(日給)씩처일원오십전으로이삭원까지도바들수잇고 십세가 조곰도안해나로인들도 충분히 작업할수잇다하여 과장된사실로 모집하여보냇스나 막상현장에와서보니 임금도십전밧게 되지를하지 안흘뿐아니라로유의 약자는 도저히로동을할수도업고 사용도 아키때문에자연하생활의 위협을 밧게되는것이다

둘재는 온화한 지방에잇든사람들로서 또는뇌불한평야에서 비교적 안락히농사짓든사람들로서 돌연히령하 삼십도의한긔후를 맛나풍토에 저항이곤난할지경이요 사면을 바라보아도눈이착한 산뿐이니 자연히귀향심을 일의키게하는것이다

셋재는 언어의사투리가 판이하여소위 심장이라는자나 재래의광부들과 충돌이이러나 일종의공포심을 일으키게하고 아조참끌한 향구(坑口)를 드러다볼때에 맛치명부길이나 지옥길을밟는 생각이일어나게되는것이다

넷재는 각탄광의 배급소(配給所)의물가가 시장보다 턱업시고가인곳이만허 갓득이나 적은수입에불구하고 고액의물가를 지불케되며 전표를주고 현금과교환할때에 일원에 오전식 중간착취를 당하는것이다

이상과가튼예가지리유로서회사당국에 임금인상이나 대우개선을하여보다가 응치안는때에 탈주할은물론 도착즉시로 돌연히공포심을일으켜 그자리에서 그대로탈주하고 만례까지생기엇다 이와가티탈주하여 고향에향하는 사람들도도둘가지지못하엿기때문에도보로연선각지에서 문전걸식을 하면서남향하고잇는 상태이니 실로한심하기 짝이업는형편으로 당국자의로동이민에 잇서중대한과실을요망하는터이다

# 오나가나그설음

# 移民計數도不明

## 總督府와道廳의統計가各各相異

## 賃金은六七十錢平均

경성서 회녕사이가 급행으로도 열여덟시간……그동안에 지루할러니기자는의외의울에휩싸인마을에서 산으로 휩싸인그들기자가실지답사한 이외에 관북지방탄광의민은 총독부당국의 집계에의한다면 남조선수해리재민가운데 함경남북도와 평안도등지로 이민되어간수효가 가족들까지 합해서 삼천팔백명도 넘어 사천명에달하는것으로 볼수가잇다 그세별은다음과갓다

【咸北】

| | |
|---|---|
| 明川炭鑛 | 三八〇名 |
| 龍峴同 | 一〇〇 |
| 遊仙同 | 七九九 |
| 鷄林同 | 三〇〇 |
| 阿吾地同 | 三一五 |
| 靑鶴同 | 三一七 |
| 古乾原同 | 二九〇 |
| 吉州同 | 一八〇 |

【咸南】

| | |
|---|---|
| 文川炭鑛 | 二〇名 |
| 咸興同 | 五〇 |
| 大成同 | 一〇〇 |

【平南】

| | |
|---|---|
| 安州炭鑛 | 一五〇名 |
| 龍潭同 | 五〇 |
| 三神同 | 二〇〇 |
| 大成鑛山 | 一〇〇 |
| 其他(江東、貞栢、大文山等) | 一八〇 |
| 合計 | 三、八二一 |

그런데 그들이 가족을 데리고 갓다고는하나 또데리고간사람도 잇는것이 사실이나 그러나그대다수는 출발한대의 형편으로가족을 황폐한고토에 남겨둔사람들이다 십분지팔은 독신자들이다

먹을것이업고 의탁할곳이 업는흙더간마을에 남겨두고 그들은행여버리가 조호면 가족을데려갈예산을하엿든것이다 그러나 그것은오산(誤算)이엇다 오산인 리유는다음으로미루고 다시 이상 총독부측의집계를가지고 다시 이민들마러드린 탄광들과황지 도청에서가진수자와비교하면 흥미(?)깁흔 차이를발견할수가잇다

즉 이상총독부집계가운데 함경북도의분만 따로 떼어가지고보면이천칠백구십명이다

그런데 함경북도청에서 가지고잇는도착된이민의수자는그보다훨신적다 적을뿐만아니라 가튼함북도청안에잇는지방과(地方課)와보안과(保安課)두곳의수자가역시각각 다르다

(咸北道地方課保有統計)

▲明川炭鑛 一二〇名 ▲龍峴同 五〇名 ▲遊仙同 一〇〇名 ▲鷄林同 一五〇名 ▲阿吾地同 一〇〇名 ▲靑鶴同 一〇〇名 ▲古乾原同 一〇〇名 ▲吉州同 無 ▲合計七二〇名

(咸北道保安課保有統計)

▲明川炭鑛 一二二名 ▲龍峴同 四九名 ▲遊仙同 九九名 ▲鷄林同 一二〇名 ▲阿吾地同 二六名 ▲靑鶴同 五七名 ▲古乾原同 無 ▲吉州同無 ▲合計三七三名

가튼 함북도청안에잇는 두과에서가지고잇는바 수자가 이와가티갑절의 차이를보이고잇다

더구나 보안과의 전귀수자는처음도착한 수효요 그뒤에는다음과가튼탈주와 원적지에의 귀환자가잇서 실수효는 그보담도훨신줄어서잇다

▲明川炭鑛에서 三名脫走 ▲龍峴炭鑛에서 三五名脫走 一名歸還 ▲遊仙炭鑛에서 一八名脫走 一名歸還 ▲鷄林炭鑛에서 四六名脫走 ▲阿吾地에서 二名脫走 ▲靑鶴에서 二名歸還▲合計一〇八名 ▲殘餘二六五名

만일 함북도당국이 조곰만더바라고간 이주민그들을 동정의손과살틀한마음으로 마지햇섯다면 가튼 도청안의 두과에서그와가치각각 다른수자를 보여주는소홀한처리기업섯슬것으로밋는다

◇

그리고 그들이밧고잇는임금은대개 다음과갓다 (錢單位)

| | 最高 | 最低 |
|---|---|---|
| 明川炭鑛 | 七五 | 五五 |
| 龍峴同 | 七五 | 六五 |
| 遊仙同 | 一、六五 | 六二 |
| 鷄林同 | 二、〇〇 | 七五 |
| 阿吾地同 | 一、八〇 | 五五 |
| 靑鶴同 | 一、八〇 | 五五 |

이상과가튼데 그러면 다가튼최고임금이라면서 룡현탄광이나 명천탄광은 유선、계림등이 일원 팔십전이나 이원인데비하야 왜팔십오전이니 칠십오전이니하야 그러케 적은가? 거기에는 그러할리유가 충분히잇다

농사를짓든 농민이 탄광으로갓다 그러나그들은농민이라탄항(炭坑)속에드러가서 채탄작업(採炭)작업은 도저히 감착히는하지못한다 햇대자청부제도이니까 도리어항외(坑外)에서 선탄작업(撰炭作業)을하는수입만도못하다 유선이가다」일에경험이잇서가지고시험는것은 그중에사래이 조곰은「도해보결과 그러하다는것이지 결코제마다그러한버리를한다는것은아니다그래서 명천、룡현에서는솔직하게적은임금표를 보인것이다 어데를물론하고 거의전부가 최저임금이보이는듯항외작업(坑外)파내인석탄을 대중소(大中小)로 골르는오십오전내지 칠십오전의 버리들을하고잇다는것이어

遊仙炭鑛移民住家


自轉車直輸入商

風馬號 東亞號 月星號 フロフイレ號

京城府長沙洞八

東亞輪業株式會社

取締役社長 尹球鍾

取締役支配人 康熙文

電話光化門二二二三番・振替京城一七四四番

京城府永樂町二丁目二十五番地

共濟無盡株式會社

株式會社朝鮮取引所

證券取引員組合

自轉車とオートバイの御用は

內田商會

京城前驛 電本三三五四番

高級綢緞直輸入商

京城府鍾路二丁目三十三番地

水鄕商會

電話一四七七番

京城府長谷川町二十二番地

森永製品朝鮮販賣株式會社

電話本局長一三二四番

振替京城八三二一番

京城府南大門通

京城紡織株式會社

高級洋靴 運動器具

ウイニス號スケート製造發賣元

서울풋뽈製造所

京城公平洞一〇四 電光一九二〇九 振京五一〇九二番

京城府寬勳洞一四三

銀行、官廳、會社、月賦用達

主白樂詰

正屋靴店

電話光化門二一一七四番

土地家屋賣買賃貸建築請負賣買金供給以上附帶業務及貸金

京城府瑞麟洞一三

京城建物株式會社

電光二四五二

謹賀新年